

덴마크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kotra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1
2. 정치사회동향 /2
3. 한국과의 주요이슈 /5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7
2. 주요 산업 동향 /10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15

III. 무역

- 1. 교역동향**
수출입 동향 /16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18
-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수입규제제도 /20
대한수입규제동향 /20
관세제도 /21
주요인증제도 /21
지적재산권 /23
통관운송 /24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26
- 외국기업 투자동향 /27
- 우리기업 투자동향 /29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30
- 진출형태별 절차 /32
- 투자입지여건 /43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44
- 조세제도 /49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53

V. 기타 유용한 정보

1. 시장특성 /54
2. 물가정보 /57
3. 바이어발굴 /60
4.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60
5. 무역,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 /64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64
7. 이주정착 가이드 /65
8. 출장가이드 /69



1992 MAGELLAN GeographixSM Santa Barbara, CA (800) 929-4627

1.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명	덴마크(The Kingdom of Denmark)
위치	북위 54°34'부터 57°까지, 동경 8°5'부터 15°12'까지 (북해와 발트해 사이에 위치, 반도 및 406개 섬으로 구성)
면적	43,098km ² (한반도의 1/5)
기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 바람이 많고 특히 겨울에는 기후 변화가 심함. (평균기온: 0.4℃(2월), 16.5℃(7월)) ○ 연평균 강수량은 664mm이며 강우가 있는 날은 연간 약 160일
수도	코펜하겐(인구 50만 명, 수도권 포함 137만 명)
인구	542만 명
주요도시	Aarhus(29만 명), Odense(18만 명), Aalborg(16만 명) 등
민족(인종)	전체 인구의 96%가 북게르만계의 데인족
언어	(공용어)덴마크어 / (상용어)덴마크어, 영어, 독일어
종교	덴마크 루터복음교(87%), 기타(가톨릭, 침례교, 유대교)(12%)
헌법제정일	1849년 6월 5일
정부형태	입헌군주국, 내각책임제
국가원수 (실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원수: H.M. Queen Margrethe II ○ 총리: Mr. Anders Fogh Rasmussen
입법부	단원제(총 179석, 자치령 4석 포함)
정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당: 자유당(Liberal Party), 보수당(Conservative Party) ○ 최대야당: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 ○ 기타정당: 덴마크국민당, 사회 국민당, 중도 민주당, 좌파 연합당, 기독교 국민당, 진보당
정부 성향	우파 연합정당

자료: 덴마크 통계청

나. 경제지표 (2007년 기준)

GDP	3,115 억 달러
실질경제성장률	1.9%
1인당 GDP	57,021 달러
실업률	2.5% (평균)
물가상승률	1.7% (평균)
화폐단위	Danish Kroner (DKR)
환율	US\$ 1=DKK5.4456 (평균)
외채	466억 달러
외환보유고	306억 달러
산업구조	공공 서비스(26.4%), 무역 운송 통신(23.8%), 금융(20.3%), 광공업 에너지(22.0%), 건설업(4.6%), 농수산업(2.8%)
교역규모	수출: 1,022억 달러, 수입: 938억 달러
교역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돈육 및 육가공품, 의약품, 원유, 모피, 가구, 무선통신기기 ○ 수입: 자동차 및 부품, 컴퓨터 및 사무용기계, 일반기계, 통신기기

자료: 덴마크 통계청, 덴마크 중앙은행

다. 한-덴마크 관계

체결협정	상표의 상호등록에 관한 협정('60), 사증면제 협정('69), 개발차관 협정('69), 이중과세 방지협정('77), 해운협정('80), 재입국 사증면제협정('87), 투자보장협정('88)
교역규모(2007년)	수출: 462백만 달러, 수입: 701백만 달러
교역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자동차, 선박, 무선수신기, 주단강, 자동차부품 등 ○ 수입: 돈육, 의약품, 발전기, 펌프, 밸브, 화학기계 등
투자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덴마크기업 투자유치: 45건 267백만 달러(2008. 5.16 누계 기준) ○ 주요 대한 투자기업: 험펠코리아(주), 노보자임 코리아(주), 노보노르디스크제약(주), 롤런즈 코리아(주), 덴포스(주), 구룬포스펌프 코리아(주), 앤비퍼스트(Bioscan A/S), 유니스테프 코리아 등 ○ 우리나라의 투자진출: 10건 1,847천 달러(2008. 6월 말 누계기준) ○ 주요 진출기업: 셀바이오텍, 대한 항공, 엠텍비전
교민	약 250여 명

자료: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출입은행

2. 정치 사회 동향

가. 국가 형태 및 조직

1) 행정부

덴마크는 1849년 6월 자유민주주의 헌법채택으로 입헌군주국이 되었으며 실질적으로는 1901년부터 의회 민주제도(내각책임제)가 시작되었으나 법적으로는 현행 헌법이 채택된 1953년 6월 이후부터이다. 헌법상 3권 분립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입법권은 국왕과 의회가 공동으로 보유하며 형식상 행정권은 국왕에게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수상을 수반으로 하는 내각에 의해 행사되고 있다.

국가원수는 1972년 1월15일 즉위한 QUEEN MARGRETHE II 이며 현재의 내각은 2007년 11월 13 일의 총선거에 의해 자유당, 보수당 등의 우파 정당연립에 의해 구성되었으며 수상은 자유당의 Anders Fogh Rasmussen 이다.

2) 사법부

덴마크의 사법부는 대법원(SUPREME COURT), 2개 고등법원(HIGH COURT), 104개 하급 법원(LOWER COURT)으로 구성되는 3심 제도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 외 특별법원인 해양. 상업 법원(MARITIME AND COMMERCIAL COURT)과 노동문제를 담당하는 노동법원(LABOR COURT), 행정행위를 심판하는 Ombudsman 제도 등이 있다. 그리고 법관은 법무장관의 추천에 의해 국왕이 임명하나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고 있다.

3) 의회

덴마크 의회(Folketing)는 총 179석의 단원제로 운영되며 175석은 덴마크 본토에서 나머지 4석은 자치령인 Greenland 및 Faroe 제도에서 각각 2명씩 선출한다. 의원의 임기는 4년

으로 정부는 임기 종료 전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의회가 수상의 불신임 가결, 예산안 등 정부 신임을 묻는 법안을 부결시킬 경우 정부는 사퇴하거나 총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의회는 입법권 및 정부 감독권을 가지나, 의회에서 채택된 법안이 국회의원 1/3 이상의 요구로 국민투표에 회부되어 투표자의 30%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동 법안은 부결된다. 현 국회의장은 자유당의 Mr. Thor Pedersen이며 국회에 진출한 정당 의석 수에 따라 4명의 부의장을 두고 있다.

□ 정당현황

- 사회민주당(S: The Social Democratic Party) 1871년 창당되었으며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하고 과세에 의한 소득 재분배, 독점기업의 국영화 등을 정강으로 하고 있으며, 당수는 Ms. Helle Thorning-Schmidt이다.
- 사회주의국민당 (SF: Socialist People's Party) 1959년 전 공산당의 의장인 Aksel Larsen에 의해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창당되었으며 급진좌파 노선을 표방하고 있다. 당수는 Mr. Villy Soevndal 이다.
- 급진자유당 (R: Social Liberal Party) 1905년 창당되었으며 당원은 주로 소지주, 지식인 계층이며 국제적인 긴장완화, 국제협력, 비사회주의적 방법에 의한 사회개혁, 노동자의 기업 경영참여, 산업분쟁에의 국가개입, 트러스트 및 독점의 국가통제, 사기업화 등 중도노선을 표방하고 있다. 당수는 Ms. Marianne Vestager 이다.
- 통일당 (좌파연합당 - United List) 종전의 Communist Party, Left Socialist Party 및 Worker's Party의 연합에 의해 창당 되었으며 당수는 Mr. Soeren Soendergaard이다.
- 자유당 (V: Liberal Party) 1880년 창당되었으며 주요 지지기반은 농민이며 최근 농촌 및 중소도시로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자유무역, 기업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 권력 개입, 근대적이고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채택을 내세우고 있다. 당수는 현재 수상인 Mr. Anders Fogh Rasmussen 이다.
- 보수당 (K: Conservative People's Party) 1916년 창당되었으며 자유로운 국민발안, 사유 재산 유지, 경제. 사회적 균형 유지를 위한 국가의 통제권의 인정 등을 정강으로 하고 있다. 당수는 Ms. Lene Espersen 이다.
- 기독교 민주당 (KR.F: Christian Democrats Party) 1970년 창당, 중도노선을 표방하고 있으며 의원을 배출하지 못해 당수가 없다.
- 덴마크 국민당 (Danish Peoples Party) 1995년 창당되었으며 정강은 진보당과 유사하며 외국 이민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EU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당수는 Ms. Pia Kjaersgaard이다.

나. 우파연합의 집권 지속

덴마크는 좌파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과 사회자유당(Social Liberal Party) 연합이 1993년부터 2001년까지 집권해 왔으나 2001년 선거에서

우파정당인 자유당(Liberal Party)과 보수당(Conservative Party), 덴마크국민당(Danish People's Party) 연합이 집권하였고, 2005년 2월 총선에서 우파연합이 다시 승리하여 재집권에 성공한 바 있다.

2007년 11월13일 실시된 총선에서 민주당, 보수당, 덴마크국민당, 3당 연합의 우파 정권이 전체 의석 179석중 90석을 획득하여 다시 승리함으로써 사상 최초로 3번 연속 집권하였다.

우파연합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덴마크 경제가 계속 호황 국면을 유지 하면서 실업률 하락, 개인 소득세 동결 및 복지 제도 개혁, 법인세 인하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정책, 노동력이 부족할 당시 받아 들였던 무슬림계 이민자들에 대한 국민여론이 좋지 않은 가운데 덴마크국민당이 취하고 있는 이민을 어렵게 하는 정책 등이 유권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정당별 의석 현황

구분		2007 총선	2005 총선	증감
우파연합	자유당	46	52	-6
	덴마크국민당	25	24	+1
	보수당	18	18	0
New Alliance		5	-	+5
좌파연합	사회민주당	45	47	-2
	사회국민당	23	12	+11
	사회자유당	9	17	-8
	Unity List	4	6	-2

주: 그린란드 및 페로아일랜드 4개 의석 중에서 우파연합이 1석, 좌파연합이 3석 확보

다. 법인세법 개정

덴마크 정부는 여타 EU회원국 대비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7년 법인세율을 28%에서 25%로 낮추었다.

덴마크 정부가 EU평균 이하로 법인세를 낮춘 것은 외국기업들의 덴마크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서인데, 아일랜드가 낮은 법인세 혜택에 많은 외국기업들을 유치한 것을 예로 삼고 있다.

라. 노동력 부족

덴마크 경제가 3년 연속 호황을 보이면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03년 6.7%에 달했던 실업률이 2007년 말에는 2.5%까지 하락하여 1960년대 경제가 붐을 이룬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낮은 실업률로 인해 여러 산업분야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노동력 부족현상은 임금상승을 압박하여 높은 물가상승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기업의 비용상승을 가져와 경쟁력의 상실로 이어질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경제침체를 초래 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노동력 부족 현상에 관심을 보이면서 외국 노동력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 따라서 리투아니아, 폴란드, 스웨덴, 독일 노동자들이 환영 받으면서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덴마크는 과거 60년대 경제호황 때에 노동력이 부족하여 중동 지역으로부터 노동력을 수입하면서 이들에게 영주권을 준 바 있는데, 이들이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였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 수입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영주권을 주지 않고 단기 노동비자만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특히 공공 부분에서 조만간 은퇴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노동력의 수요를 유발시킬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마.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제도 개선

덴마크는 사회복지제도가 잘 발달된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다른 OECD국가처럼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사회복지제도 유지를 위한 예산부담 증가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노동인구에 비해 사회복지 수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1960년대에는 노동인구 대비 사회복지 수혜인구의 비율이 0.79%였으나 2006년에는 0.85%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0.91%, 2030년에는 1.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30년이 되면 일하는 사람보다 사회복지 혜택을 수혜 받는 사람이 많아질 전망임에 따라 현재까지 확립해 온 사회복지시스템의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2006년에 노인연금 수령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노인연금 수령액이 조금 적더라도 조기에 은퇴할 수 있는 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올린 바 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문제가 해소된 것이 아니어서 앞으로 노인연금 수령액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노인연금 외에 개인적으로 노후 대비를 위한 개인연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러한 고령화 문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율이 높은 국가로부터 이민을 받아 들여 출산율을 높여 노동인구 대비 사회복지 수혜인구의 비율을 낮출 것을 건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민을 받아들이는 문제는 1960년대 경제호황 때에 받아들였던 중동 이민자들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정치권 및 국민여론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한국과의 이슈 및 관계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한국과 큰 이슈 및 현안 사항은 없으며, 남, 북한과 동시 수교국 이기는 하지만 전통적으로 한국과 우호관계를 맺고 있다.

한국전쟁 중에는 병원선(유틀란드 호)과 600여 명의 의료진을 파견해 한국을 지원해 준 바 있으며, 당시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던 사람들 중에 40여 명이 현재 생존해 있다.

또한 한국전쟁 이후 한국으로부터 고아들을 꾸준히 입양하여 현재 덴마크 내에 한국계 입양아가 8,0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2000년 대들어 한국정부가 조선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이유로 EU가 한국을 WTO에 제소하였을 때 덴마크도 적극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여기에는 한국의 조선 산업으로 인해 덴마크 조선산업이 큰 타격을 받아 거의 몰락한 것이 영향을 미쳤으나 WTO로부터 한국이 무혐의 판정을 받으면서 이 문제도 해소되었다.

2006년에는 덴마크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써 반기문 전 외교부 장관이 UN 사무총장에 당선되도록 한국측을 지지하였으며, 2006년 11월 덴마크의 엔더슨 포 라스무센 총리가 방한한데 이어 2007년 10월에는 사상 최초로 덴마크 여왕이 방한한 바 있다.

2009년은 한-덴마크 수교 50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간 교류가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양국간에 체결된 주요 협정은 아래와 같다.

- 1960.12. 9 상표의 상호등록에 관한 협정
- 1963.10.11 특허권 상호부여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1969. 9. 5 사증면제 협정
- 1969.12. 4 개발차관 협정
- 1975. 9.18 국제운수에 관한 선박 및 항공기 운항 상호 면세 협정
- 1977.10.11 이중과세 방지협정
- 1980. 1. 9 해운협정
- 1987. 4. 2 재입국 사증 면제협정
- 1988. 6. 2 투자보장협정

나. 북한과의 관계

북한과는 1973년 7월 공식 외교관계가 수립되었으며, 1973년 10월 주덴마크 북한대사관이 설치된 바 있다. 1976년 10월에는 마약, 술, 담배 등의 밀수혐의로 북한 공관원 전원이 추방되었으며 1978년 7월 신임장을 재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1998년 5월 경제사정이 어려워 북한대사관은 다시 철수했으며 덴마크지역은 주스웨덴 북한대사관에서 관할하고 있다. 현재도 덴마크 및 북한 간에 인적 교류가 있으며, 북한에 인도적 차원에서 원조를 제공해 주고 있다.

대북 한 수출입 실적

(단위: 천 달러)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수 출	12,857	12,349	11,216	11,078	5,254	6,540
수 입	2,810	2,074	2,089	1,820	2,796	1,345

자료: 덴마크 통계청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가. 최근 경제 동향 및 향후 전망

1) 경제 성장

2006년에 덴마크의 경제는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3.5%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07년에는 경제가 하강국면으로 진입하면서 1.7% 성장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2007년에 경제가 하강국면으로 반전된 것은 낮은 실업률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임금 상승 현상이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둔화를 초래하였고, 또한 개인소비 증가율도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2008년에도 임금과 물가상승이 가속화됨에 따라 경쟁력이 약화되고, 국제금융위기의 영향 및 국내 주택시장의 침체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2007년보다 낮은 1.0%에 그칠 전망이다.

2) 개인소비

개인소비는 2005년, 2006년에 걸쳐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으나 그 이후 이자율 상승과 주택경기 하락으로 냉각되는 양상을 보여왔다.

2008년에도 임금상승에 따라 개인소득이 증가하겠지만 소비자들의 자신감 하락, 주택시장의 정체, 이자 지불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개인소비증가율은 더욱 둔화되어 2007년 2.3%보다 낮은 1.7%에 그칠 전망이다.

3) 정부 지출

덴마크 정부가 계속되는 재정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긴축적인 예산운용 정책을 견지함에 따라 2007년도 정부지출은 1.6%의 소폭 증가에 그쳤다.

2008년에는 간호원, 교원 등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높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진행하고 있어 1.6%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 투자지출

2007년도 투자지출은 소비 및 수출 증가율의 둔화, 이자율의 상승 등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지만 주택경기의 활황에 따른 건설부분의 투자 증가 및 노동력 부족현상에 따른 설비투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비교적 견실한 5.9%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2008년에는 노동력 부족에 따른 임금상승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설비 투자를 유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주택경기 침체와 노동력 부족 등이 건설부분에서의 투자를 급속하게 냉각시키고 있고, 이자율 상승, 국제금융위기 등이 산업분야의 투자도 주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투자지출 증가율은 2007년보다 훨씬 낮은 0.5%에 그칠 전망이다.

5) 대외교역

2007년 덴마크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은 노동력 부족에 따른 생산능력 부족, 임금상승에 따른 경쟁력 약화, 덴마크 코로나화의 강세 등의 영향으로 1.9%의 증가율에 그쳤으며, 2008년에도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특히 달러 대비 덴마크 코로나화의 강세로 미국 시장에서의 수출이 크게 둔화될 전망임에 따라 3.4%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한편 2007년 상품 및 서비스 수입은 개인 소비 및 설비 투자 모두 증가율이 둔화됨에 따라 3.8% 증가에 그쳤으며, 2008년에도 코로나화의 강세가 수입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지만 개인소비 및 투자지출의 둔화현상이 더욱 심화될 전망임에 따라 4.1%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6) 고용 및 물가

2004년부터 지속된 경제 호황에 따라 실업자 수가 꾸준히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7년에는 7만 7,000명까지 하락하였으며, 건축 및 전기 분야 등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완전 고용 상태에까지 달해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인해 2008년에도 실업자 수 감소 추세가 지속되어 5만 여명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한편 물가 상승률은 2007년에 임금상승, 고유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1.7%에 그쳤지만 2008년에는 지속적인 임금상승, 석유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 식품 가격의 급격한 상승, 달러화 약세 심화에 따른 수입품 가격의 상승 등의 영향으로 3.4%에 달할 전망이다.

주요 경제지표

(단위: %)

구 분	2007	2008 전망	2009 전망
GDP 성장률	1.7	1.0	0.8
개인소비 증가율	2.3	1.7	0.8
정부지출 증가율	1.6	1.6	1.7
총 고정투자 증가율	5.9	0.5	0.1
수출 증가율	1.9	3.4	3.1
수입 증가율	3.8	4.1	3.4
물가 상승률	1.7	3.4	2.6
실업인구(천 명)	77.4	50.6	58.2
재정수지(십억 DKK)	81.1	79.5	60.4
경상수지(십억 DKK)	20.3	17.4	11.1

주: US\$ 1 = 5.4456DKK(2007년 평균)

자료: Dansk bank, Nordic Outlook 2008.7 월호

나. 주요 경제정책

1)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한 해외 노동인력 수입

덴마크 경제가 3년 연속 호황을 보이면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03년 6.7%에 달했던 실업률이 2007년 말에는 2.5%까지 하락하여 여러 산업 분야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덴마크 정부는 노동력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덴마크인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및 외국 노동 인력 유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덴마크인의 노동시장 참여확대를 위해 장애인과 같은 특별그룹의 노동시장 참여기회 확대, 조기 은퇴 방지 및 질병으로 인한 사회보장 혜택 수혜 인구 감소 노력 전개, 공무원의 정년 연장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외국노동자 수입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인근 국가 및 동유럽 국가로부터의 노동 인력 유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스웨덴, 독일, 리투아니아, 폴란드 노동자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덴마크는 과거 60년대 경제 호황 때에 노동력이 부족하여 중동 지역으로부터 노동력을 수입하면서 이들에게 영주권을 준 바 있는데, 이들이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하였던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영주권을 주지 않고 단기 노동비자만을 주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외국인들이 덴마크에서 쉽게 일할 수 있도록 Green Card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사회 복지 제도 개선

1960년 대에는 노동 인구 대비 사회 복지 수혜 인구의 비율이 0.79%였으나 2006년에는 0.85%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0.91%, 2030년에는 1.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사회 복지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예산 부담 완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 2006년에 노인연금 수령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노인연금 수령액이 조금 적더라도 조기에 은퇴할 수 있는 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올린 바 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문제가 해소된 것이 아니어서 사회복지제도 개편과 관련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3) 긴축 재정정책 유지

덴마크 정부는 경제 호황으로 인한 경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긴축 정책을 실시하여 2005년부터 줄곧 재정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2007년에도 DKK 810억의 흑자(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 4.8%)를 내었다.

덴마크는 유가 상승, 경기 호황에 따른 세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출 증가율을 1% 대로 유지함으로써 재정 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재정수지 흑자를 국가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여 국가 채무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 및 국민들 사이에서는 재정 수지 흑자 규모의 축소 및 국가 채무 지불 속도를 낮추는 대신 노인 및 아동 복지를 위한 정부 지출 확대 요구가 거센 상황이다. 이러한 기조 하에서 2007년에 간호원 및 Healthcare Worker들이 파업한 바 있으며, 2008년에도 공공 부문 노동자들이 높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실시하였다.

4) 이자율 인상

덴마크는 유로화 가입에 대한 국민투표가 부결됨에 따라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고 덴마크 크로네화를 사용하고 있으며, 금융 정책도 유럽 중앙 은행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덴마크 크로네화의 유로화 대비 환율변동폭을 상하 2.25%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자율 등의 통화정책도 유로권과 협력하고 있다. 따라서 2006년 전반까지 유로권에 발맞추어 낮은 이자율을 유지해 왔으나 2006년 하반기부터 EU경기의 회복에 따라 유럽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인상함에 따라 덴마크도 함께 이자율을 인상하였다.

이처럼 이자율을 인상한 것은 EU 금융정책과 보조를 맞추는 측면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경제가 호황을 보이고 있어 경제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부동산 가격의 급등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노린 측면도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 하에서 덴마크 중앙은행은 2008년에도 추가로 이자율을 인상하여 2008년 7월 기준 ECB 보다 1% 높은 4.25%의 이자율을 유지하고 있다.

2. 주요 산업 동향

가. 전체 산업 총괄

덴마크는 다른 유럽국가와 비교할 때 산업화가 늦은 편이다. 20세기 초반에 산업화가 시작되었으나 1930년대까지 만해도 덴마크는 1차 농업생산국가에 머물러 있었다. 공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한 시기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였으며, 1950년대 말에 들어서서야 공업 발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농산물을 앞서는 주요 수출 산업으로 성장했다.

산업별 생산액 및 비중은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74.6%로 가장 높고, 제조업은 21.3%, 농수산업 및 광업 등 1차 산업의 비중은 4.1%에 불과하다. 서비스 산업 중에서는 무역, 호텔, 요식업의 비중이 40.1%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금융 및 비즈니스 서비스가 10.7%, 운송, 우편, 통신업이 10.3%로 높다.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분야는 건설업이며, 다음으로 운송, 우편, 통신분야로서 서비스 분야의 성장률이 높은 편이며, 제조업 성장률은 다른 분야에 비해 낮은 편이다.

산업별 생산액 및 비중

(단위: DKK10억, %)

구분	2005		2006		비중
	생산액	증가율	생산액	증가율	
농수산업 및 광업	117	11.46	126	7.71	4.1
제조업	609	5.60	654	7.44	21.3
에너지 및 수자원	112	4.49	123	9.69	4.0
건설	173	12.52	200	15.99	6.5
무역, 호텔, 요식업	1,123	10.76	1,229	9.43	40.1
운송, 우편, 통신	284	12.58	317	11.49	10.3
금융 및 비즈니스서비스	304	17.58	328	7.71	10.7
공공 및 개인 서비스	86	-0.16	88	2.44	2.9
총계	2,809	9.97	3,066	9.15	100.0

주: 2007년 통계 미발표

자료: Denmark Statistics

덴마크 1차 산업은 주로 돼지, 닭, 소 등 낙농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해양국가로서 수산업도 발달되어 있다. 광업은 북해에서 나오는 석유 외에 부존 자원이 거의 없어서 미미한 실정이다.

제조업은 고도 기술제품 및 디자인 제품에 특화 되어 있으며 일반소비재 생산은 많지 않다. 제조업 중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는 의약품, 식품가공, 풍력발전기, 기계 등 고도기술 제품과 가구, 조명, 장식품 등 디자인 제품이다.

서비스산업 중에서는 컨테이너 운송 등 해양운송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밖에는 다른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이다.

나. 제조업

다른 산업국가들과는 달리 덴마크 제조업은 원자재 공급에 문제가 없는 분야와 틈새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제조업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거대기업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제조업체 중에서 수만 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대 다국적기업은 없으며, 덴마크에서 가장 큰 소수 몇 개사 정도가 종업원 1만 명 이상이고, 상당히 큰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종업원이 몇천 명 수준이다. 이는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 수가 996개 사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덴마크 제조업이 발달한 분야는 제약, 풍력발전, 식품가공업, 엔지니어링, 가구, 그리고 최근에 더욱 그 중요성이 더해가는 IT전자분야를 들 수 있다.

덴마크 제조업의 추세는 의류, 식품가공업, 금속 등 노동집약 혹은 자원집약적인 산업의 비중은 감소하고 화학, 전자 및 엔지니어링과 같은 고도기술 및 know-how를 중시하는 산업분야가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최근에 많은 업체들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디자인, 기술개발 등만 덴마크에서 하고 생산 시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아웃소싱하려는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 알려진 덴마크 업체들은 이미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으며, 덴마크에서 생산을 고집하던 Lego사조차도 최근에 덴마크 생산 공장을 폐쇄하고 동유럽 및 중국으로 생산 공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덴마크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더라도 공장 자동화를 통해 인력을 절감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덴마크 제조업체로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기업으로는 인슐린을 생산하는 Novo Nordisk, 신경안정제를 생산하는 Lundbeck, 보청기의 Oticon, 냉난방시스템의 Danfoss, 펌프의 Grundfos, 교육용 완구의 Lego, 선박용 보일러의 Allborg Industries, 풍력 발전기의 Vestas 와 Siemens Energy, 소비용 전자제품의 Bang & Oulfsen 등을 들 수 있다.

1) 제약, 의료산업

덴마크의 의약품 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현대화되고 성공적으로 성장한 산업으로 꼽히고 있으며 코펜하겐을 중심으로 한 외레준트(Oresund)지역을 의약품 산업 및 BT산업의 클러스터로 개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외레준트 지역은 일명 Medicon valley라고도 불리는데 Copenhagen Capacity가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지역을 생명공학 및 의약품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자국기업 육성은 물론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덴마크의 Novo Nordisk등 세계적인 제약 회사가 위치해 있으며, 가장 활발하게 R&D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덴마크의 의약품 수출액은 2007년 기준으로 DKK405억(약 74억 달러)으로써 인구 1인당 의약품 수출액으로 계산할 때 세계에서 두 번째로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다.

의약품 산업은 전체 매출액의 14%를 연구개발비로 투자하고 있어 전체 산업 중 연구 개발비 투자 비율이 가장 높다. 덴마크의 의약품 산업은 치열한 세계 시장의 경쟁에도 불구하고 10여 년 동안 뛰어난 성장을 계속해 왔다. 덴마크 의약품 업계에서 생산하는 약품 수는 400여 종류가 넘으며, 이 중에는 인슐린 항생제 및 정신안정제 등의 생산이 많다. 특히 덴마크는 세계 인슐린 시장의 50%이상을 지배하고 있다.

제약분야 대표적인 회사로는 인슐린의 Novo Nordisk A/S, 신경정신계 의약품의 Lundbeck A/S, 피부치료제로 유명한 Leo Pharma A/S, 효소 및 미생물 분야의 세계 선두업체인 Novozymes A/S 등을 들 수 있다.

의료기기 분야 대표적인 회사로는 세계 5대 보청기 회사에 드는 GN Resound A/S, Widex A/S, Oticon A/S가 있으며, 플라스틱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Coloplast A/S, Uno Medical A/S 등을 꼽을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및 2000년 초까지는 미국에서 제품 개발을 위해 미국에 R&D센터를 적극 설립한 바 있으나 최근에는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핵심분야를 제외한 R&D분야 및 생산분야를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업체들은 아시아 지역에 R&D센터를 설립하기도 하지만 규모가 크지 않은 업체들은 임상 실험과 관련된 분야를 중국이나 인도 등의 연구소를 통해 하는 아웃소싱 전략을 택하기도 하고 있다.

2) 전자산업

전자산업은 덴마크에서 매우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분야이나, 주로 산업용 전자제품, 기기 및 부품 생산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자산업의 총 매출액은 2007년 기준으로 DKK 827억(약 152억 달러)이었으며 전자제품 수출은 2007년 기준으로 DKK 587억(약 108억 달러)에 달했다.

덴마크의 전자산업은 TV나 냉장고 등이 생산되고는 있으나, 세계 규모로 볼 때 영세한 수준이며 오디오 업체 중에는 B&O사가 고급의 첨단 디자인 제품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으나 다른 세계적인 기업은 없다.

반면 산업용 전자에서 보면 전기모터 혹은 발전기, 사무용기기 및 컴퓨터 장비 등과 같은 산업용 전자장비의 생산이 전체 전자 제품 생산 라인의 1/2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 관련 장비 및 계측기기가 29.2%이고 나머지가 라디오, 전화기 및 보청기 등의 소비자용 전자제품이다. 덴마크의 소비자용 전자제품은 매우 독특하고 디자인이 뛰어난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3) 풍력 발전 산업

덴마크에는 풍력발전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가 Vestas사와 Siemens Energy 2 개사가 있는데 이들이 전세계 시장의 38.5%를 장악하고 있다. Siemens Energy의 경우 독일 Siemens 그룹이 덴마크의 Bonus Energy를 인수하여 회사명을 변경하였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풍력발전기 날개업체인 LM Glasfiber가 있다.

현재 세계 풍력발전 분야 시장점유율을 보면 Vestas(덴마크) 22.8%, GE Wind(미국) 16.6%, Gameza(스페인) 15.4%, Enercon(독일) 14.0%, Suzlon(인도) 10.5%, Siemens Energy(덴마크) 7.1%, Acciona(스페인) 4.4%, Goldwind(중국) 4.2%, Nordex(독일) 3.4%, Sinovel(중국) 3.4% 등이다.

한편 덴마크는 풍력발전 기술개발의 메카라고 할 수 있다. 덴마크는 Wind turbine 생산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데, 1980년대부터 직경 20m 짜리 로터를 지닌 20-60 KW 급에서부터 직경 60~90m 짜리 로터를 이용한 2 MW 급 이상의 터빈까지 만들어 내고 있다. 현재는 4,5 MW 용량, 직경 112m 로터의 터빈까지 생산하고 있으며, 해안 발전용 터빈의 경우 더 큰 용량의 발전기와 로터를 사용하는 프로토타입 디자인도 소개되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발전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인데 덴마크가 전세계 시장의 80-90%를 장악하고 있다. 해상 풍력발전의 경우 해저 심토에 강철 구조물을 설치하고 견고하게 자리 잡도록 해야 하며, 해상 발전기와 송전선망을 잇는 수십 킬로미터의 케이블을 설치해야 하고, 유지 보수를 위해 해상 발전기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 등도 필요하다. 따라서 해상 풍력발전은 육상 풍력발전기의 설치에 필요한 기술 외에 "해상화"에 필요한 특수 기술 등이 필요한데 이는 바다의 염분에 견딜 수 있는 구조물 제작하거나 바다의 거센 바람에 적합한 발전기 날개 제작, 발전기 유지 보수를 위한 Built-in 기술 등이다.

이처럼 덴마크가 풍력발전 기술을 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페인의 Gameza, 인도의 Suzlon, 독일의 Nordex 등이 덴마크에 기술개발을 위한 사무실을 운영 중이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풍력발전 설비를 수출하고 있다. 현재 독일, 미국, 캐나다,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 수출하고 있는데 풍력발전기 총 수출액을 보면 2007년 기준으로 DKK94억(17억 달러)에 달하였다.

이처럼 덴마크에서 풍력발전 산업이 발전한 이유는 첫 번째로 풍력발전에 유리한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시사철 바람이 많고 규칙적으로 불어 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는 풍력발전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다. 풍력발전은 원자력이나 화력에 비해 생산단가가 높지만 덴마크 정부가 풍력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높은 단가로 구입해 주는 반면 환경을 감안하여 원자력발전소는 건설을 하지 않고 있다.

세 번째로는 일찍부터 풍력발전에 관심을 갖고 기술을 개발해 온 Vestas와 같은 기업이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덴마크가 조선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서 조선소에 근무하였던 용접공 등 기술자들이 풍력발전 업체로 옮겨온 것도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일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4) 가구 산업

2007년 현재 덴마크 가구협회의 회원사로 가입된 중견기업 이상의 가구제조사만 해도 307개에 달하며, 소규모 가구제조사를 포함할 경우 400개 이상의 가구제조업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덴마크의 가구생산은 2가지 타입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대량 생산에 의한 가격경쟁력 확보 그리고 소량 생산이지만 철저히 디자인에 의존하는 고가의 가구 생산이다.

덴마크의 가구산업은 내수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80% 이상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전형적인 수출산업으로 이중에서도 50여 개의 대형업체가 전체 수출액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덴마크의 가구는 10대 수출주종품목에 속하며, 단순하면서도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유명하다. 덴마크의 주종수출 가구는 목재 테이블, 의자, 소파, 침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서비스산업

덴마크는 선진 복지국가로 이 전해 가는 과정에서 서비스 부문이 매우 빠르고 광범위하게 발전해왔다. 따라서 2006년 기준으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74.6%에 달하고 있다.

서비스 부문 중에서 공공 부문의 고용이 가장 큰데, 이들은 주로 공공행정, 보건, 복지 및 교육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서비스산업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서비스 부문 고용 인원 중 약 절반은 민간 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덴마크는 특히 해상물류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A.P. Moller그룹의 계열사인 머스크사는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 운송사로서 전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IT 및 생명공학 부문의 연구인력도 매우 풍부하여 Hewlett-Packard, IBM, Siemens 등 다국적기업들이 덴마크를 연구개발기지 또는 e-commerce 센터로서 투자진출을 하고 있다.

또한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대형화 및 국제화의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는 덴마크의 Unibank가 핀랜드의 Merita Bank, 스웨덴의 Nordbanken, 노르웨이의 Christiania Bank Og Kreditkasse은행들과 합병을 통해 2001년 12월 북구 및 발트해 연안 내 최대의 금융보험 서비스 그룹인 Nordea로 태어난 것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덴마크의 ISS (International Service System)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민간 청소업체이며, Sophus Berendsen은 대형의 세탁업체이자 수압 장비 제조업체로서 영국의 Rentokil사의 모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라. 농림수산업 및 광업

덴마크는 공업국가로 발전하고는 있지만, 전체 국토의 61.9%가 경작지로서 전통적인 농축 산업 생산은 물론 이와 연계된 식품 가공 산업에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세계 최대의 돈육수출국이며, 또한 밍크모피의 세계적인 생산국이자 집산지이기도 하다. 매우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덴마크의 농업 및 관련 산업은 세계적으로 가장 최신의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1차 농산물 생산에서부터 가공, 포장, 운송 및 기타 판매를 위한 서비스 활동을 모두 포함할 경우 식품 및 음료 생산업은 덴마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기준으로 11.7%에 달할 정도로 크다.

덴마크의 대표적인 유가공업체나 도축업체는 협동조합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많은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소속 조합원인 농민들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예를 들어 덴마크 육류 연구소(Danish Meat Research Institute)와 같은 협동조합 기구들은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개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덴마크의 농축산업 중에서도 가장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은 돈육산업이다. 덴마크의 돼지 사육 수는 2,500만 마리로서 덴마크 인구 1인당 평균 돼지 보유수가 5마리에 달하고 있으며, 순수한 돈육(신선육, 냉장육, 냉동육 등) 수출만도 2007년 기준으로 DKK 563억(약103억 달러)에 달해 덴마크 전체 수출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돈육산업의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덴마크 돈육은 세계적으로 그 품질을 인정 받고 있어 유럽은 물론 일본, 미국, 캐나다 등 세계 각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7년 기준으로 약 5,600만 달러를 수입하고 있다. 또한 각국에서 덴마크 양돈 및 도살 방법을 배우기 위해 연수생을 파견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덴마크에서만 아니라 해외서도 양돈을 하기 위해 리투아니아 등으로 투자 진출까지 할 정도이다.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가. 지역협력체 참여 현황

1) EU 회원국

덴마크는 1972년 국민 투표에 의해 EC가입을 결정하고 1973년1월 1일부로 EC회원 국이 되었다. 그 후 EU가 출범하면서 EU 회원국이 되었으나 에든버러 협정에 의거 통화 단일화, 공동 방위 정책, 유럽 시민권, 공동경찰 사법정책 4개 항에 대해서는 예외(Opt-out)를 인정 받고 있다. 덴마크가 EU회원국이 된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다.

- 1972년: 국민투표에 의해 EC 가입결정 (1973.1.1일자로 EC 가입)
- 1986년: 국민투표에 의해 Single European Act 비준
- 1993.5.13일: 국민투표에 의해 구주연합조약 비준 (찬성 56.8%)
- 2000.9.28일: EURO화 가입여부 국민투표 부결

현 정부는 완전한 EU 회원국이 되기 위해 에든버러 협정에 의거 예외를 인정받고 있는 4개 조항에 대해 현 정부 임기 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가부를 묻겠다고 밝히고 있다.

2) 북구각료 이사회 회원국

덴마크는 문화적, 사회적, 지리적 연계성에 따라 2차 대전 후 북구제국간의 협력을 제창 하였고 1952년 북구이사회(Nordic Council)와 1971년 북구각료이사회(Nordic Council of Minister)가 창설되면서 북구 5개국(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간의 의회 및 정부차원의 협력이 구체화 되고 있다.

덴마크는 북구 5개국 중 스웨덴, 핀란드와 함께 EU에 가입한 국가로서 북구협력과 EU는 이해 상충보다는 보완적인 협력분야가 많다고 보고 양기구간 교량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나. 자유무역협정 체결현황

덴마크는 EU회원국으로서 다른 나라와 독자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EU의 결정에 따르고 있다. 덴마크는 EU회원국 중에서도 자유무역을 지지하며, 또한 적극적으로 FTA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EU가 FTA를 체결한 나라는 다음과 같다.

EU와 양자 간에 FTA를 체결한 국가는 알제리, 칠레, 크로아티아, 이집트, 마케도니아, 모로코, 팔레스타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스, 튀니지이다.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는 EFTA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는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이다.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가. 수출입 동향

덴마크는 전통적으로 수출이 수입을 상회하고 있다. 2006년도에는 수출이 DKK 5,563억에 달한 반면, 수입은 DDK 5,382억을 기록하여 무역 수지 흑자가 DKK 181억 (약 33억 2,000만 달러)에 달했다.

(단위: DKK십억)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수출(DKK십억, FOB)	442.8	429.3	452.4	501.6	546.8	556.3
수입(DKK십억, FOB)	384.7	369.7	400.1	445.8	506.8	538.2
무역수지	58.1	59.6	52.3	55.8	40.0	18.1
평균환율 (DKK/U\$)	7.8812	6.5899	5.9919	6.0034	5.9470	5.4456

자료: 덴마크 통계청, Denmark National Bank

나. 수출

덴마크의 주요 수출 품목은 원유, 인슐린, 냉장 돈육, 의약품, 풍력발전기 등이다. 덴마크는 북해 유전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원유를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으며 이외 돈육을 비롯한 육가공품, 의약품, 풍력발전기 등의 품목이 유명하다.

한편, 덴마크에서는 모바일폰을 생산 하고 있지 않으나 세계적인 모바일 폰 무역업체인 Dangaard Telecom이 관련 품목을 중계 무역하고 있어 통계상 모바일 폰이 수출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목

(단위: DKK백만)

수출품목	2004	2005	2006	2007
원유	24,197.7	31,990.7	32,892.9	27,685.4
모바일폰	6,927.1	12,942.2	7,806.9	3,466.4
인슐린	9,374.1	12,694.8	10,892.1	10,190.2
냉장 돈육	7,912.3	6,937.6	7,324.1	6,807.1
소매용으로 포장된 의약품	7,554.3	6,449.0	7,956.5	8,730.0
전기엔진 부품	2,163.1	5,737.9	3,945.2	4,644.5
풍력발전기	5,312.3	5,423.3	7,042.3	9,375.8
햄 및 기타 돈육	4,117.3	4,690.0	5,111.9	4,873.9
헤모글로빈	3,636.8	4,254.8	4,686.6	4,579.9
호르몬 의약품	3,494.0	4,191.3	4,596.8	5,511.2
수출총액	452,399.8	501,551.7	546,831.1	556,294.9

주: 평균 환율(DKK/U\$): ('04년) 5.9919, ('05) 6.0034, ('06) 5.9470, ('07) 5.4456

자료: 덴마크 통계청 수출입 통계

주요 수출국가

(단위: DKK백만)

수출대상국	2004	2005	2006	2007
독 일	79,949	87,802	92,203	88,015
스웨덴	58,026	67,263	77,916	79,134
영 국	39,522	45,499	48,345	40,407
미 국	26,352	33,039	36,440	30,940
노르웨이	25,242	26,751	30,930	33,033
네덜란드	25,161	26,359	27,275	24,097
프랑스	22,577	26,036	25,521	22,927
이태리	15,538	16,664	18,235	16,452
핀란드	12,946	14,314	16,645	14,848
스페인	14,011	13,922	15,907	14,649
환율(DKK/U\$)	5.9919	6.0034	5.9470	5.4456

자료: 덴마크 통계청 수출입 통계

다. 수입

덴마크에서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승용차, 컴퓨터 기기 및 부품, 오일류 등이다. 모바일 폰의 수입비중이 높은 것은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덴마크 중계 무역업체의 수입 물량이 많기 때문이며 덴마크에서 수출 1위 품목인 원유 외에 기타 오일류를 수입하고 있는 것은 겨울철에 높은 에너지 수요 때문이다.

주요 수입품목

(단위: DKK백만)

수입품목	2004	2005	2006	2007
모바일폰	8,744.2	19,257.6	10,814.3	3,945.2
1,500-3,000CC 승용차	8,572.9	9,764.9	9,086.7	8,642.1
소매용으로 포장된 의약품	5,719.2	6,247.7	6,763.2	7,674.1
1,500-2,500CC 디젤엔진승용차	4,237.2	5,799.3	7,942.6	8,947.1
컴퓨터 기기	3,255.6	4,924.6	3,858.7	3,630.8
가스 오일	2,569.5	4,551.6	4,873.8	5,211.1
원유	2,569.5	4,551.6	4,771.8	2,167.1
컴퓨터 부품	3,069.1	3,404.6	3,203.4	3,471.4
노트북 컴퓨터	2,601.4	3,355.0	3,617.5	3,115.2
제트 오일	1,512.9	2,984.6	2,790.7	1,646.1
수입총액	400,124.6	445,797.8	506,800.5	538,200.4

주: 평균환율(DKK/U\$): ('04년) 5.9919, ('05년) 6.0034, ('06) 5.9470, ('07) 5.4456

자료: 덴마크 통계청 수출입 통계

주요 수입국가

(단위: DKK백만)

수입대상국	2004	2005	2006	2007
독 일	87,041	93,650	109,375	116,309
스웨덴	53,956	62,065	72,629	77,226
네덜란드	27,030	29,975	31,798	38,493
영 국	24,222	27,344	28,628	27,695
중 국	16,094	21,699	26,448	29,816
노르웨이	18,841	20,251	23,393	22,289
프랑스	18,396	19,255	22,412	21,993
이탈리아	16,292	18,574	20,190	22,247
벨기에	13,856	15,378	16,921	19,068
미 국	15,192	12,875	15,372	18,232
환율(DKK/U\$)	5.9919	6.0034	5.9470	5.4456

자료: 덴마크 통계청 수출입 통계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연도별 수출입 현황

한국의 대 덴마크 수출은 90.7%의 높은 증가세를 보인 2004년 이후 연 6.2~6.5억 달러 규모를 유지해왔다. 2004년부터 우리 나라의 대 덴마크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주로 자동차와 선박의 수출 증가에 기인하며 따라서 2004년 이후 2006년까지 무역 수지도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2007년에 우리나라의 대덴마크 수출은 기아자동차 슬로바키아 공장 가동과 현대의 중형차 공급중단 등에 따른 승용차 수출감소, 무선전화기 등의 인근국가를 통한 우회수출 증가 등으로 인해 크게 감소한 반면 덴마크로부터의 수입은 돈육, 의약품, 화학기계, 선박부품, 조립식완구, 보일러 등의 호조에 힘입어 크게 증가하였다.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1~8
수출	335(14.6)	639(90.7)	620(-2.8)	653(5.3)	462(-29.2)	280(0.5)
수입	404(-4.9)	471(16.6)	560(18.8)	574(2.7)	701(22.0)	501(3.5)
수지	-70	168	60	79	-238	-221

주: () 안은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KOTIS 한국무역통계

나. 한국의 대 덴마크 수출 품목

2007년 기준 우리 나라의 대 덴마크 수출은 전년대비 29.2%가 감소한 4억 6,300만 달러를 기록 하였으며 주요 수출 품목은 승용차, 선박 및 부품, 무선수신기, 주단강 등이다.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	2006	2007
1	승용차	221,016 (-8.0)	141,520 (-36.0)
2	선박용 엔진 및 그 부품	52,929 (-17.3)	78,208 (47.8)
3	무선수신기	31,208 (190.1)	33,436 (7.1)
4	주단강	9,957 (12,406.9)	22,236 (123.3)
5	타이어	12,072 (24.2)	14,501 (20.1)
6	전동축 및 기어	11,299 (305.5)	13,934 (23.3)
7	합성수지	9,545 (-10.4)	11,477 (20.2)
8	무선전화기	28,037 (22.9)	10,919 (-61.0)
9	자동차부품	9,489 (20.6)	9,010 (-5.0)
10	원동기	4,986 (64.8)	8,902 (78.6)
총계		653,282 (5.3)	462,624 (-29.2)

주: () 안은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KOTIS 한국무역통계

다. 한국의 대 덴마크 수입 품목

덴마크로부터의 수입은 2007년 기준으로 전년대비 22.0% 증가한 7억 2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가축육류, 의약품, 발전기, 화학기계, 펌프 등이다.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	2006	2007
1	가축육류	53,059 (-17.9)	55,851 (5.3)
2	의약품	38,338 (10.7)	54,197 (41.4)
3	발전기	57,544(113.1)	47,804 (-16.9)
4	화학기계	27,082 (16.6)	47,123 (74.0)
5	펌프	25,748 (11.3)	32,282 (25.4)
6	선박용엔진 및 그 부품	21,572 (-2.0)	28,983 (34.4)
7	밸브	22,312 (-5.0)	24,879 (11.5)
8	밍크모피	27,804 (12.4)	23,973 (-13.8)
9	가열난방기	16,850 (-4.4)	23,231 (37.9)
10	배전 및 제어기	0 (-)	22,305(-)
총계		574,906 (2.7)	701,528 (22.0)

주: () 안은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KOTIS 한국무역통계

3. 수입규제제도

가. 수입금지 품목 및 허가품목

덴마크는 대부분 수입이 자유화되어 있고, 수입 금지 품목 및 허가 품목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 수입 금지 품목 및 허가 품목은 아래와 같다.

- 수입 금지 품목
 - 마약, 지적 재산을 위반한 복제품, 덴마크 동식물의 소멸을 가져올 수 있는 동식물
- 수입 승인 및 허가 품목
 - 산 동물 및 그 제품, 생선 및 생선제품, 사람 및 동물에 사용되는 약품, 독약, 무기 및 폭발물, 방사능 물질 및 폐기물, 반덤핑 등 수입규제 품목

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덴마크는 EU회원국으로서 EU 공통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덴마크만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관세장벽은 없다.

비관세장벽도 덴마크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없으며, 수입쿼터 및 반덤핑 관세 부과 등과 같은 경우는 EU에서 취하는 조치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다. 수입쿼터

덴마크는 EU회원국으로서 별도의 수입쿼터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EU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

현재 EU에서 쿼터를 정하고 있는 품목은 신발, 섬유·의류, 철강 등 크게 세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웹페이지 내 쿼터 부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common/databases/index_en.htm

4. 대한수입규제 동향

2008년 9월 19일 기준 EU로부터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제품은 5개 품목이며, 그 외 2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받고 있다.

구분	조치 유형	대상 품목
규제 중	반덤핑 관세	폴리에스테르단섬유(PSF), PET 칩, 양문형 냉장고, 실리콘(우회덤핑관세), 철강제 관연결구류
조사 중	반덤핑 관세	스텐레스스틸 냉연강판(신규조사), 철강제관연결구류(만기재심),

5. 관세제도

가. 관세제도 개황

덴마크는 EU 회원국으로서 수입 물품의 가치 산정, 제품군의 분류, 관세부과 절차 등을 EU의 규정에 따르고 있다. EU회원국 간 거래 시에는 관세를 부과치 않고 있으며 EU 역 외국 생산 제품의 수입 시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EU와 특별 협정에 의거 개발 도상국, EFTA 회원국, 중앙 및 동부 유럽 국가로부터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거나 또는 할인된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EU 역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의 가치는 통상 인보이스 기재 가격이 인정되고 있으며, 수입 관세는 인보이스 가격에 운송료, 보험료, EU 국경까지 수송에 따른 제반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관세분류는 HS분류체계를 기초로 EU 통합분류(CN)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부과기준은 CIF 가격에 의한 종가세이나 종량제도 일부 적용되고 있다. 관세혜택별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무관세: EU 회원국
- 특혜관세: 협정체결국 및 지중해 연안국에 대해 품목별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율 적용
- 일반특혜관세: 개도국 공산품에 적용
- 일반관세: 역외국에 적용되는 일반 관세

나. 관세율 알아보는 법

덴마크의 관세율은 EU 규정을 따르고 있으므로, EU 관세율 검색 사이트를 통하여 쉽게 알아 볼 수 있다. http://europa.eu.int/comm/taxation_customs/dds/en/tarhome.htm에 접속한 뒤 Code taric을 클릭, 상품 코드를 입력한 후 해당 관세율을 확인하거나 Designation taric을 클릭하여 키워드를 입력하면 해당 관세율을 찾아볼 수 있다.

다. 관세 납부

등록된 수입업자의 경우 자신이 수입하는 수입품에 대해 즉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통관할 수 있으며 관세 등 세금 납부는 그 다음달 16일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반면 등록된 수입업자가 아닐 경우에는 통관 시 이를 납부하여야 제품을 인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대부분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시스템을 이용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관세 등 세금 납부가 간편해지고 있다.

6. 주요인증제도

가. CE 마크

CE마크는 EU 시장이 단일화되면서 역내 기술장벽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인증 제도로 다른 EU 국가와 마찬가지로 덴마크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는 데 필수적인 인증서다. CE 마크는 EU 국가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등에서 통용되며 CE 마크를 획득한 제품은 소비자의 안전과 위생, 환경 보호 측면에서 유럽의 기준을 준수함을 의미한다.

나. 대상 품목

품목	규정 지침
가스기기(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90/396/EEC
사람수송용 케이블(Cableway Installation to Carry Persons)	2000/9/EC
저압 전기 기기(Low Voltage Electrical Equipment)	73/23/EEC
건설자재(Construction Products)	89/106/EEC
폭발용 기기 및 보호제품 (Equipment and Protective System for used in potentially explosive Atmospheres)	94/9/EC
민간용 폭발물(Explosives for Civil Uses)	93/15/EEC
온수보일러(Hot Water Boiler)	92/42/EEC
가전 냉장.냉동고(Household Refrigerators & Freezers)	96/57/EC(에너지효율지침)
승강기(Lift)	95/16/EC
기계(Machinery)	98/37/EC
선박(Marine Equipment)	96/98/EC
의료기기(Medical Devices)	93/42/EEC
의료용 임플란트(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90/385/EEC
시험관 치료용 기기(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98/79/EC
수동저울(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90/384/EEC
무선전신 및 통신 말단기기 (Radio Equipment &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99/5/EC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89/686/EEC
단순압력용기(Simple Pressure Vessels)	87/404/EEC
압력기기(Pressure Equipment)	97/23/EC
여가용 보트(Recreational Craft)	94/25/EC
장난감(Toys)	88/378/EEC
Trans-European Conventional Rail System	96/48/EC, 2001/16/EC

다. 인증절차

CE인증절차는 해당제품에 속한 모듈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제조업자가 자신의 제품이 EU규정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적합선언서를 작성하여 제품에 CE마크를 부착하는 A 모듈이 가장 일반적이다.

라. 인증기관

- DS(Dansk Standard)
 - 주소: Kollegievej 6, DK-2920 Charlottenlund
 - 전화: +45) 3996 6101
 - 팩스: +45) 3996 6102
 - 웹사이트: www.ds.dk

7. 지적재산권

가. 상표권

덴마크 내에서 상표권은 THE TRADEMARK ACT(NO 211 OF JUNE 11,1959)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상표권의 유효기간은 10년이나, 연장갱신이 가능하다. 최초의 출원자에게만 독점적인 상표권이 부여되나 선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으면 상표권은 선 사용자에게로 이전이 가능하다. 출원 공고기간은 2개월이며 갱신 신청 기간은 최초 유효기간 만료 전 1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마크도 등록할 수 있으며 유효 기간은 저작권자 사후 50년이다.

나. 특허권

PATENT AMENDMENT ACT(1978)가 1978년 12월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덴마크의 모든 제조업자 및 무역업자는 그들의 발명품(INNOVATION)에 대하여 특허를 취득하고 TRADE MARK를 등록해야 한다. 특허권의 유효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출원심사는 특허 출원 내용 상의 신규성 여부가 검토된다. 출원공고에 대한 이의 신청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며 동 기간 중 이의 신청이 없으면 특허가 부여된다. 발명품 특허 후 3년(출원 후 4년 간)이 경과해도 특허취득 내용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 실시권을 인정할 수도 있다.

다. 의장권

1970년에 제정된 Design Act(218) 의해 의장권을 보호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디자인에 대해서는 신청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보호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네 번 갱신할 수 있는데 한번 갱신할 때 마다 보호기간은 5년이다. 모델에 대한 보호 기간은 3년이며, 두 번 갱신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갱신 시에는 3년 동안 두 번째 갱신 시에는 4년 동안 보호 받을 수 있다.

라. 저작권

문학작품, 언론보도, 미술품, 영화, TV및 라디오 방송물, 사진, 음반, 소프트웨어 등 저작물은 1995년에 제정된 Law on Copyright(395)에 의해서 보호 받을 수 있다. 문학작품, 그림,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자가 생존해 있는 기간 동안은 물론 사후 70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나 방송물 및 음반 등은 대중에게 유포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50년 동안 보호받을 수 있다.

마. 소비자보호제도

식품류 및 의약품의 판매 및 생산에 대한 덴마크의 법은 상당히 까다로우며 공장, 가게 그리고 식당에서 현장검사도 한다.

현지에서 생산되는 의약품과 약제는 등록 되어 하며 시장에 판매되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정 의약품에 대한 생산 및 판매는 특별히 합격된 회사와 인가된 약국에서만 가능하다.

의약품의 경우 2003년 여름 이후 제도변경에 따라 종전과는 달리 1) 건강식품(Health food), 2) 생약, 3) 일반약품 등 3개 카테고리 중 하나로만 등록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공산품 전반적으로는 종전의 덴마크 국내규정에 의하면 1년간의 보증기간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2002년 1월부로 EU의 규정을 채택(덴마크 법 Law No. 213 of 22 Apr 2002)함으로써 원칙적으로 내구소비재의 경우 2년간의 보증기간을 설정 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매 시 하자가 있는 물품은 6개월 내 신제품으로 대체 또는 전액 현금으로 반환해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소비자보호위원회(Consumer Complaints Board)내 옴부즈맨을 통해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실제 소비자의 하자제기 및 환불요청에 대해서 신속 원활하게 처리해주도록 상 관행이 정착되어 있다.

8. 통관/운송

가. 통관

1) 통관 절차

덴마크 기업 또는 개인이 EU국가 및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이외의 국가에서 상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관세를 세관에 납부해야 한다.

관세는 원산지 및 제품의 종류에 따라 종가세 기준으로 적용되며 일부 제품의 경우 종가세를 보완하여 종량세 기준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세율은 EU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보세 구역에 보관 중이거나 제 3국 운송을 위해 반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면세이다.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 이외에 25%의 부가세가 부과되며, 주류, 담배, 초콜릿, 커피 및 차, 비디오 테이프 등의 제품에는 소비세가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통관 절차는 수입신고 (입항 전 또는 직후 모두 가능) → 입항 → 하선 → 물품보세 구역 반입 → 장치 확인 → 심사 → 물품 검사 → 세금 납부의 순이다.

EU 국가 이외에서 제품이 수입되어 덴마크 국경에 도착할 경우 운송업자는 이를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수입업자는 제품, 원산지, 수량 등이 명기된 수입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에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수입 신고서, 상업 송장 사본, Packing List가 필요하며, 제품의 종류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가 요구되기도 하며, 수입허가 품목일 경우는 수입 허가증이 필요하다.

수입업자가 세관 당국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자신이 수입하는 수입품에 대해 즉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통관할 수 있으며, 관세 등 세금 납부는 그 다음달 16일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반면 등록된 수입업자가 아닐 경우에는 통관 시 이를 납부하여야 제품을 인도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대부분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시스템을 이용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관세 등 세금 납부가 간편해지고 있다.

- 세관 연락처
 - 기관명: Toldcenter Copenhagen
 - 주소: Snorregadesgade 15, DK-2300 Copenhagen S.

- Tel: (+45) 3288 7300
- Fax: (+45) 3295 1874
- Web: www.toldskat.dk

2) 물품검사

세관에서는 화물 송장 등의 각 항목별 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물품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최근 전자상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세관은 물품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물품 검사요원들의 숫자를 늘려가고 있다.

나. 운송

1) 국제공항

□ KASTRUP

코펜하겐 남쪽 10Km지점에 위치한 국제공항으로 택시 이용 시 15분 정도면 도심에 진입할 수 있다. 1999년 초에 공항 증축이 완료되어 복구 최대의 허브 공항이 되었다.

□ BILLUND

JUTLAND반도 남쪽에 위치한 국제공항으로 인근에 조립식 완구로 유명한 LEGOLAND가 위치하고 있다.

□ AARHUS

제2대 도시인 AARHUS 외곽에 위치한 공항으로 택시 이용 시 도심까지 40분 정도 소요된다.

2) 국제항구

- 국제항구: COPENHAGEN, AARHUS, ESBJERG, HELSINGOER, FREDERIKSHAVN
- 복구와 교역항구: COPENHAGEN, HELSINGOER, AARHUS, FREDERIKSHAVN
- 영국과의 교역항구: ESBJERG

3) 한국과의 운송

□ 주로 이용되는 항구

한국과 운송 시 이용되는 덴마크 항구로는 COPENHAGEN, AARHUS 항구가 많이 이용되며,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독일 함부르크 등의 항구를 이용하여 육상으로 덴마크까지 운송되는 경우도 있다.

□ 컨테이너 비용(2008. 6. 1일 기준)

COPENHAGEN항구에서 부산항구, AARHUS 항구에서 부산항구까지 컨테이너 비용은 동일하며, 비용은 아래와 같다. 이 비용은 항구에서 항구까지만을 계산한 것이며, 여기에 핸들링 비용, 운송비용 등이 약 600달러 정도가 추가된다.

(단위: 달러)

구분	20피트 컨테이너	40피트 컨테이너
Basic Price	400	500
BAF	517	1,034
CAF	Basic price의 17.7 %	Basic price의 17.7 %
총계	1,079.31	1,805.52

- 덴마크에서 한국까지의 컨테이너 운송 기간: 약 45일

다. 운송 에이전트

- Modul Transport A/S
 - 주소: Vallensbaekvej 20A, DK-2605 Brøndby
 - Tel: (+45) 4342 6800
 - Fax: (+45) 4342 6658
 - E-mail: lasse@modultransport.dk
 - Web: www.modultransport.dk
 - 담당자: Mr. Lasse Jensen
- Nordic Consolidators A/S
 - 주소: Turbinevej 11, DK-2730 Herlev
 - Tel: (+45) 4488 1020
 - Fax: (+45) 4488 1021
 - Web: www.nordcons.dk
 - 담당자: Mr. Jan Carstens

IV.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매력도

경제분석기관인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World Investment Prospects to 2011” 보고서에서 덴마크를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갖춘 나라로 평가한바 있으며 2008 년 미국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전 세계 121 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가별 기업환경 분석에서도 1 위를 차지할 정도로 덴마크의 기업 투자 환경은 안정되어 있다.

덴마크는 국내 기업이나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고, 일반 국민들도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을 구별하고 있지 않으며, 덴마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모두 덴마크 기업으로 인정할 정도로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해 개방적이다.

따라서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인수 합병이 아주 자유롭기 때문에 외국자본이 덴마크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밖에도 덴마크 및 북구시장을 겨냥한 판매법인, R&D 센터 등이 많이 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비싼 편에 속하는 물가 및 임금으로 인해 덴마크 기업들조차도 생산 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조업 투자지로서는 매력에 없는 편이다.

나. 투자지로서의 장단점

1) 장점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덴마크 투자환경을 가장 좋게 평가한 것은 다음과 같은 장점 때문이다.

첫째, 최근에 실시한 노동시장에서의 개혁조치로 인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한층 제고되었고, 노동자의 교육수준도 한 차원 높아진 것이 높은 점수를 받은 주 원인이 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신중한 재정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재정의 건전성을 가져와 국가 채무를 감축 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세 번째로는 세법을 보다 단순화한 조치와 2007년부터 실시될 지방정부의 개혁조치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지방정부의 개혁조치는 공공 부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후한 점수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로는 덴마크의 금융시스템이 매우 투명하고, 강한 은행 분야로 전문화 되었으며, 코펜하겐에 있는 증권거래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 높게 평가되었고, 또한 세계 최고 중의 하나라고 알려진 운송시스템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섯 번째는 수도인 코펜하겐이 소재한 질랜드 섬과 저틀랜드를 다리로 연결함으로써 독일까지 연결되고, 또한 코펜하겐과 스웨덴을 다리로 연결함으로써 덴마크가 스웨덴, 노르웨이 등 노르딕 국가는 물론 중앙 및 동구 유럽국가의 물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EIU는 인근 EU국가와 비교할 때도 덴마크가 정치 및 제도적 환경, 국가 경제의 안정성, 비즈니스 관련법,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칙, 인프라, 금융 부분의 건전성 등 6개 분야가 특히 우수하다고 평가하였다.

2) 단점

첫 번째로는 제도 및 법규 측면에서의 단점은 거의 없으나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물가 및 임금이 투자의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법인세가 25%로 EU 평균보다 다소 높으며, 개인소득세도 평균 50%에 달할 정도로 높은 것이 문제이다.

2. 외국기업 투자동향

가. 최근 투자동향

덴마크의 외국인 투자는 기투자액의 철수가 신규 유입보다 많았던 2004년을 제외하고는 유입세가 지속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것은 IMF 기준에 따라 Equity

Capital의 이전은 물론 투자자와 외투 기업 사이의 Loan Capital의 이전까지도 감안하여 외국인 투자 통계를 집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도 덴마크의 외국인 투자는 DKK 509억에 달하였다.

지역별 덴마크 투자동향을 보면 전통적으로 EU지역으로부터의 투자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미국으로부터의 투자가 많으며, 아시아를 포함한 기타 지역으로부터의 투자는 미미한 상황이다.

따라서 덴마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투기업을 보면 대부분 유럽 및 미국계 기업들이며, 아시아 및 기타지역의 기업들은 많지가 않다. 이것은 지리적 여건의 영향도 있지만 덴마크의 경우 시장은 상대적으로 협소한 반면 물가는 비싸기 때문에 아시아를 포함한 기타 지역의 경우 투자가 여의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업종별 투자동향을 보면 매년 변동이 심하나 전통적으로 금융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이 가장 많은 편이다. 제조업의 경우 인건비가 높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많지 않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 투자현황

(단위: DKK 십억)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EU (EURO지역)	8.0 (5.9)	-7.4 (2.5)	65.6 (43.6)	36.2 (11.7)	38.6 (11.7)
(스웨덴)	(2.9)	(-15.5)	(23.5)	(17.1)	(3.3)
(영국)	(0.1)	(5.3)	(-2.0)	(6.0)	(22.1)
기타유럽 EEA 및 스위스	-	-	6.3	-3.5	4.6
기타	-	-	3.1	-2.3	0.3
미주 (미국)	1.5 (4.5)	-18.0 (-17.7)	8.3 (5.6)	-5.3 (-2.5)	8.8 (7.7)
아시아	0.7	2.0	0.2	1.3	-1.2
기타	-	-	-1.1	-0.8	-0.2
총계	15.8	-5.7	82.4	25.6	50.9

주: 상기 수치는 순 투자유치 개념으로 연도 중 덴마크에 투자된 금액에서 철수된 금액을 상계한 수치임.

자료: 덴마크 중앙은행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DKK십억)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농수산업 및 원자재	-2.0	-0.4	0.3	-2.3	2.2
제조업	5.6	3.4	4.9	-2.9	1.4
무역, 호텔, 식당	-0.7	-11.4	3.6	16.2	2.4
수송 및 통신	-2.7	-10.3	11.7	0.2	16.5
금융, 보험, 비즈니스 서비스	11.8	9.5	50.2	8.7	27.5
기타	3.8	3.5	11.7	5.7	0.9
총계	15.8	-5.7	82.4	25.6	50.9

주: 상기 수치는 순 해외 투자 수치로 연도 중 해외에 투자한 금액에서 철수한 금액을 상계한 수치임.

자료: 덴마크 중앙은행

나. 덴마크 내 주요 외국기업

덴마크의 경우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제조업을 위해 투자한 유명 외국 기업이 많지 않으며, 판매업은 세계 유명 기업들이 진출해 있지만 일부는 독일이나 스웨덴 법인에서 덴마크 시장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서비스업의 경우는 외국 유명기업들이 대부분 진출해 있는데, 제약, IT분야를 중심으로 R&D 활동을 위해 진출한 기업과 금융, 비즈니스 서비스를 위해 진출한 경우가 많으며, 유통 체인은 모두 미국과 유럽계 기업들을 중심으로 진출해 있다.

덴마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은 아래와 같다.

구분	기업명
제조업	Siemens(독일, 기계), Statoil(노르웨이, 석유), Nestle(스위스, 식품), MAN(독일, 선박엔진), Royal Shell(화란, 석유)
판매업	Proctor & Gamble(미국, 생활용품), Toyota(일본, 자동차), Loreal(프랑스, 화장품), BASF(독일, 화학), Philips(화란, 전자), Philip Morris(미국, 담배), Matsushita (일본, 전자), Eli Lilly(미국, 제약)
서비스 및 금융	DHL(미국, 운송), UPS(미국, 운송), Oracle(미국, 소프트웨어), IBM(미국, IT 서비스), GE(미국, 금융), DeutscheBank(독일, 금융), Citibank(미국, 금융)
R&D	Microsoft(미국, 소프트웨어 개발), Ferring(스위스, 제약), Siemens(독일, 기계)
유통체인	Lidl(독일, 슈퍼체인), Bodyshop(영국, 미용 및 피부관리), 7 Eleven(미국, 편의점), ToysRus(미국, 완구), IKEA(스웨덴, 가구)

3. 우리기업 투자동향

가. 우리기업 투자동향

우리기업이 덴마크에 투자한 것은 2008년 3월 말까지 총 10건에 184만 7,000달러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 2001년 이전에 투자된 것이 2건 10만6,000달러이며, 그 이후 2003년에 1건 20만 달러, 2006년에 3건 139만 8,000달러, 2007년에 4건 14만 3,000달러가 투자되었다.

2001년 이전에 투자된 2건의 경우 실체가 정확하지 않으며, 2003년에 20만 달러는 ADVANCED VEHICLE MANAGEMENT AS에 투자된 것이며, 2006년에 투자된 3건은 요식업에 대한 지분투자 20만9,000달러, 덴마크 회사에 지분 투자가 17만1,000달러, Cell Biotech이 법인 설립을 위해 투자한 금액이 101만8,000달러다. 2007년에도 투자된 것도 소액으로 실제 한국인이 파견되어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밖에 덴마크에 직접 투자 없이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를 운영하는 기업이 한국선급, 대한항공, 두산 중공업, 엠텍비전, 서울반도체 등 5개사이다.

우리기업의 대 덴마크 투자 현황

(단위: 천 달러)

구분	2003년까지 누계	2004	2005	2006	2007	2008.1-6	총계
투자건수	3	0	0	3	4	0	10
투자금액	306	0	0	1,398	143	0	1,847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나. 우리나라 투자기업 리스트

1) 투자기업

회사명	모기업	업종	제품명	합작비율	종업원 수	투자진출 시기
Cell Biotech Europe	Cell Biotech	판매법인	유산균	90.9	2	2006

2) 지사 및 연락사무소

회사명	모기업	업종	제품명	합작비율	종업원수	진출시기
두산엔진	두산엔진	연락사무소	선박엔진	-	2	2000
대한항공	대한항공	지사	항공화물	-	8	2004
한국선급	한국선급	연락사무소	선박 및 기 자재 검사	-	1	1995
엠텍비전	엠텍비전	연락사무소	핸드폰부품	-	1	2007
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	연락사무소	LED	-	2	2007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투자유치관련 법규

외국인의 덴마크 내 투자와 관련한 별도의 법규는 없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도 덴마크 국내 기업과 동일한 법규를 적용하고 있으며 외국기업과 국내기업간 법적지위, 권리, 의무 등에서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

나. 외국인투자 장려, 금지, 제한분야

1) 장려분야

일반적으로 덴마크는 해외로부터의 직접투자를 환영하고 있으며, 특별히 장려하는 분야는 없으나 실업률이 높고 개발이 덜 된 지역으로의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2) 금지분야

덴마크는 모든 업종을 개방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는 분야는 없다.

3) 제한분야

석유시추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제한 분야가 있지만 이것은 외국인투자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내국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에게만 적용되는 제한 분야는 없다.

다. 투자인센티브

덴마크의 투자유치 정책은 내국기업이나 외국기업을 막론하고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덴마크는 해외로부터의 직접투자를 환영하고 있으나 외자에 대한 특별한 우대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으며 덴마크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국내 기업과 동등한 권리가 부여된다.

덴마크 정부의 투자장려 정책은 일반적인 장려정책이 아닌 특정지역 혹은 특정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촉진 정책으로 볼 수 있으며 지역보조는 실업률이 높은 지역일 경우에만 한해서 이루어지며, 활동보조는 주로 수출관련 산업과 기술발전에 투자하는 산업부문에 한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안정된 경제기반 위에서 기업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로 대부분의 장려정책은 저리의 대출 혹은 정부보증과 같은 금융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지 당국과 협의하여 저가로 토지를 제공받거나 혹은 신 공업단지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극히 제한적이다.

1) Growth Fund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제도는 아니지만 덴마크 정부는 창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Growth Fund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자금은 세가지 형태로 지원되는데 직접 투자, 대출, 보증 등의 형태이다.

직접투자는 중소기업이 유망하지만 아주 위험도가 높은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은행 또는 외부 투자자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울 때 이 Fund가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다.

대출은 연간 매출액이 4,000유로 이하이면서 종업원이 250명 이하인 기업이 유망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총 소요자금의 45%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보증은 최소 연간 매출액이 4,000만 유로 이하이면서 종업원이 100명 이하인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의 2/3에서 1/2까지를 보증해 주는 제도이다.

2) 세제 우대

덴마크 내의 혹은 덴마크의 특정 지역 내의 외국 기업의 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세금 우대 제도는 없다.

3) 금융 지원

덴마크 내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제도는 없다. 다만 덴마크 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현지 금융 및 자금조달이 가능하며 덴마크 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내국 및 외국 은행으로부터 다양한 신용 및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주로 담보유자기관이나 은행을 통하거나 혹은 연금관리회사 및 투자회사를 통하여 장기신용이 가능하다.

5. 진출형태별 절차

가. 투자진출 형태

덴마크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주식회사(A/S), 유한회사(ApS), 지사 (Udenlandsk filial, Branch office),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를 설치하는 네 가지 방법이 있다.

구분	A/S	ApS	Branch	Representative office
적용	대규모 및 중간 규모 회사에 적합하며, 덴마크 주식시장에 등록 가능	중소규모의 회사에 적합	본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활동을 덴마크에서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형태	덴마크에 지사 또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서 사용
등록	Danish Commerce and Company Agency 에 등록 필요	Danish Commerce and Company Agency에 등록필요	Danish Commerce and Company Agency에 등록 필요	등록 불요
자본금	최소 DKK 500,000	최소 DKK 125,000	최소 자본금은 없으나 조세 목적상 본사가 최소 DKK 125,000 이상의 자본금 서류 제출 필요	요구사항 없음
책임	출자 주식의 가치 범위 내	출자 주식의 가치 범위 내	지사의 본사가 전적으로 책임	외국의 모회사
경영	반드시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최소 1명의 사장이 필요	이사회 또는 사장이 운영 가능하며, 양자가 모두 있어도 무방	최소 1명의 지사장 등록필요	요구사항 없음
회계	회계사가 감수한 연간 회계보고서 필요	회계사가 감수한 연간 회계보고서 필요	지사의 회계보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본사의 연간 회계 보고서 사본 제출 필요	연간 회계보고서 준비 불요
세금	법인세 25%	법인세 25%	덴마크 지사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25%	덴마크 내에서 판매 및 A/S활동을 하지 않으면 항구적인 설치로 간주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음
적용법	The Danish Act on Public Limited Companies	The Danish Act on Private Limited Companies	The Danish Act on Public Limited Companies	적용되는 법 없음

나. 설립절차

덴마크에 새로운 회사나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① 근무 예정자가 덴마크인이 아닐 경우에는 Residence 및 Work permit이 필요, ② 덴마크 기업청에 기업 등록, ③ 세무 당국에 기업 등록, ④ 은행 계좌 개설, ⑤ 적합한 회계 처리를 위한 회계사 고용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변호사를 고용하게 될 경우 ②~⑤단계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시간을 절약 할 수 있다. 변호사를 구할 경우에는 www.copcap.com/resources 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상기에 언급한 5가지 절차에 대한 세부 내용은 www.copcap.com/publications 의 "Fact Sheets"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 체류허가(Residence permit) 및 노동허가(Work permit) 절차

외국인이 덴마크에서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체류허가 및 노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체류 및 노동허가에 대한 조건은 개인의 국적에 따라 내용이 상이한데 EU 회원국의 국민이 아닐 경우에는 덴마크에 도착하기 전에 체류허가 및 노동허가 모두를 받아야만 하고, EU 회원국 국민은 덴마크에서 최대 3개월까지 체류허가나 노동허가 없이 일을 할 수 있으며, 노르딕 국가의 경우에는 체류나 노동허가 없이도 덴마크에서 일을 할 수 있다.

덴마크 거주 희망자는 국민 등록(덴마크어로는 Folkeregisteret)을 해야 하는데 일단 국민 등록이 되면 개인은 자동적으로 국가 의료서비스에도 등록이 되며 CPR 번호(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념)도 부여 받게 된다.

CPR 번호를 받게 되면 덴마크에서 무료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www.copcap.com/publications "Health care"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비 EU 회원국 국민을 위한 신청 절차

비 EU 회원국 국민은 최근 3개월간 자신의 영주 또는 법적 거주 국가 내 덴마크 대사관을 통해 체류허가 및 노동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신청자가 이미 덴마크에 법적 거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혹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덴마크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에는 지위, 고용조건(급여, 근로시간, 주요 업무 등)이 명시된 고용계약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연구원, 관리자, 컨설턴트, 교육자와 엔지니어, 의사, 간호사, 운동선수, 운동코치, 건축가와 같은 전문 직종 종사자, 그리고 새롭게 회사를 설립하는 사람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거주 및 노동허가가 발급된다. 체류 및 노동 허가를 받기까지는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상 소요된다.

□ 덴마크에서 독립 무역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추가적인 요구 사항

덴마크에서 독립 무역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덴마크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다음과 같은 추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신청자의 교육 이력(학력)
- 신청자가 설립을 원하는 비즈니스의 본질 또는 특징
- 사업 운영을 위한 소요 예산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 덴마크 거주기간 동안 신청자 및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재정 수단

□ 전문 직종 종사자를 위한 체류 및 노동허가 신청(Job Card Scheme)

2002년 7월 1일부로 과학·기술 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효되었는데 과학·기술 부문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덴마크 기준에 상응하는 고용 조건에 따라 취업 제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즉각적으로 이민국에서 거주 및 노동허가를 발급 받을 수 있다.

□ 거주 및 노동 허가 기간

원칙적으로 비 EU 국가의 전문 직종 종사자들은 최대 3년까지 노동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3년이 지난 이후에는 한번에 최대 4년까지 연장이 가능 하다. 단, 노동 허가는 고용 계약 서상에 명시된 기간에 대해서만 보장을 하며 회사 설립자의 경우에는 최대 1년의 노동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매년 기간을 연장 신청해야 한다. 추가적인 사항은 www.copcap.com/publications 의 "Regidence and work permits"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유용한 연락처: 덴마크 이민국 (The Danish Immigration Service, Udlændingestyrelsen)
 - 주소: Ryesgade 53, DK-2100 Copenhagen Ø, Denmark
 - 전화: +45-3536-6600
 - Fax: +45-3536-1916
 - 홈페이지: www.udlst.dk
 - 이메일: udlst@udlst.dk

2) 기업청에 기업 등록

덴마크 내 모든 기업은 등록되어 CVR번호(사업자 등록번호)를 받아야만 하며 CVR 번호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관공서와 연락할 때 빈번하게 사용된다. 기업의 등록 및 CVR 번호 발급은 덴마크 기업청(DCCA, The Danish Commerce and Companies Agency) 에서 하고 있다.

덴마크 기업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되는데 우리의 공개 주식회사와 같은 A/S(Aktieselskab, public limited company), A/S보다 규모가 작은 ApS(Anpartsselskab, private limited company), 그리고 지사(Udenlandsk filial, branch office)로 나눌 수 있다. 여러 변호사들이 기업 설립 절차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은 1~2일 정도이다.

연락사무소(Repræsentationskontor, representative office)의 경우에는 기업 등록이 불필요하며 대신 인보이스 발급을 할 수 없고 활동 범위도 오더 수주, 덴마크 제품 구매, 기타 관리 업무 등 시장 개발 업무로 제한 된다.

□ A/S 및 ApS 기업 등록

덴마크에서 기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 예정 기업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하며 정보들은 기업 등록청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작성하면 된다.

- 영업 시작일
- 회사명 및 덴마크 내 주소
- 사장 및 이사회, 경영진 구성원 이름 및 주소(A/S 의 경우에 해당하며 만약 덴마크 인 이 아닐 경우에는 여권 사본 필요)

- 회계사 이름 및 주소
- 회사 정관 및 회계연도
- 기업 설립 목적
- 서명자에 대한 회사 조항(공동의 이사회는 항상 이사회의 서명으로 기업에 대한 법적 기업력을 가질 수 있음)
- 자본금 (A/S의 경우 500 천 DKK, ApS의 경우는 125,000DKK)

기업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아래의 것들이 있다.

- 기본 정관
- 기본 정관 작성에 쓰인 참고 자료
- 초기 자본 납부 증명서(구좌 증명서, 회계사 혹은 변호사로부터 공증된 서류)
- 기업 설립 참여인들의 회의 기록발췌문(가능한 경우)
- 소유권 증서, 재산권 교부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지사 설립 및 등록

만약 모기업이 EU,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미국, 에스토니아, 호주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덴마크에서도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상기 언급한 국가에 모기업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모기업은 등록 신청서와 함께 상호주의를 표방하는 증명서류를 보내야 한다.

지사 설립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지사 설립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의 이름과 주소
- 지사의 관리자 이름과 주소, CPR 번호
- 모기업체 대한 기본 정보
- 모기업 통제권을 규제하는 조항
- 지사 통제권을 규제하는 조항
- 모기업의 설립 목적
- 지사 설립 목적
- 모회사의 자본금

지사 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아래의 것들이 있다.

- 해당 기업이 모국에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공증서
- 회사 정관
- 지사 관리자, 대리 위임장 소유자, 서명권자에 대한 정보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복사본이어야 하며 외국어로 되어 있을 경우 공인된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 기업 등록 소요시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기업청은 해당 기업을 등록 후 CVR 번호를 부여하는데 소요 시간은 약 1~2주 정도 걸린다. 기업청은 이후 CVR 번호를 국세청(CCTA, The Central Customs and Tax Administration)에 보낸다.

기업청과 국세청은 일년에 한번 감사를 거친 연차보고서의 송부를 요청하는데 기업 설립 초기 단계 때부터 회계사를 고용하여 연차보고서에 대한 필요 정보에 대해 조언을 받아야 한다.

코펜하겐 지역의 공인 회계사 정보는 www.cocap.com/resources의 "Accounts"에서 검색할 수 있다. 기업 등록을 위한 신청 양식은 www.eogs.dk/publikationer/index.asp에 있으며 공개회사에 대한 법률 정보(영어버전)는 www.eogs.dk/Lovsamling_love/에서 검색 가능하다.

- 유용한 연락처: 덴마크 기업청(The Danish Commerce and Companies Agency, Erhvervs-og Selskabsstyrelsen)
 - 주소: Kampmannsgade1, 1780 København V, Denmark
 - 전화: +45-3330-7700
 - Fax: +45-3330-7799
 - 홈페이지: www.eogs.dk
 - 이메일: eogs@eogs.dk

3) 국세청에 기업 등록

덴마크 기업청 등록 후에는 국세청에도 VAT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신청서는 각 지역별 세무서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국세청 등록은 기업 활동이 시작되기 최소 8일 전에는 신청되어야만 하는데 신청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약 8일 정도이기 때문이다.

신청은 www.cvr.dk에 소개된 절차를 따르면 되며, 신청서 제출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정보가 필요하다.

- 기업의 활동 내용 및 자산
- 종업원 수
- 근로시간(파트타임 근로자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 최초 근로자 고용일
- 발기인들의 이름과 주소, 외국기업 등록번호

이외에 현금예금의 규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기업의 서명자와 기업등록 회계사 혹은 공인 회계사의 인증이 필요하다.

일부 사업 영역에 대해서는 VAT가 면제되거나 VAT를 납부하는 대신 지불급여세 과세 대상이 되기도 한다. 지불 급여세는 전체 지불 급여의 약 5~9% 수준이다.

국세청은 신청서 검토 후에 VAT 및 기타 세금에 대한 법률과 절차에 대한 자료를 송부해 주는데 덴마크 세금 구조에 대한 내용은 www.cocap.com의 "Taxation" 에서 검색 가능하다.

기업의 매출액에 따라 기업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VAT를 납부한다.

- 연 매출액 1,000 만 DKK 이상인 경우 매월 신고해야 하며 납부기한은 55 일이다.

- 연 매출액 100 만~1,000 만 DKK 인 경우 분기별로 신고해야 하며 납부기한은 40 일이다.
- 연 매출액 0~100 만 DKK 인 경우 격년 단위로 신고해야 하며 납부기한은 60 일이다.
- 유용한 정보
 - 세금 관련 문제 www.copcap.com/publications "Taxation"
 - VAT 및 기타 세금 조건 www.toldskat.dk
 - 세무당국 등록 신청서 www.erhverv.toldskat.dk/blanketter/49005.pdf
 - 가까운 세무서 찾아보기 www.toldskat.dk/basic.php?source=adresser/regioner.cnt
- 국세청 (The Central Customs & Tax Administration, Told og Skat)
 - 주소: Østbanegade 123, 2100 København Ø
 - 전화: +45-3529-7300
 - 팩스: +45-3543-4720
 - 홈페이지: www.toldskat.dk

4) 은행 구좌 개설

은행구좌 개설을 위해서는 시중 은행에 구비되어 있는 기업 구좌 개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국 내 주거래 은행의 레퍼런스도 첨부해야 한다.

은행마다 상이하기는 하지만 신청서와 함께 구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의 것들이 있다.

- 서명 날인된 위임장
- 기업 등록 확인서 사본(기업명, 등록번호, 주소)
- 회사 정관 및 합의각서 사본
- 회사를 대신하여 서명을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받은 자에 대해 언급되어 있는 이사회 의사록
- 실 소유자 및 회사 대리인의 유효한 여권 사본
- 회사의 최근 연도 연 은행구좌 및 기업 활동 영역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 예상되는 입출금 횟수 및 규모

종종 관련 서류에 대해 거래은행, 공증인, 덴마크 외교부 담당자 혹은 덴마크 은행의 해외 영업소 담당자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거래 은행이 관련 서류를 증명할 때에는 서류 내용에 거짓이 없으며 최근의 내용임을 확인해야 하는데 증명서에는 은행의 관련 책임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www.copcap.com/resources의 "Banks"에서 찾아 볼 수 있다.

5) 회계사 고용

덴마크 정부는 정부가 공인한 공공 회계사를 통해 연차 보고서를 감사 받도록 하고 있다. 덴마크의 회계처리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회사 설립 초기부터 회계사를 고용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회계처리의 문제점을 감소시키고 덴마크 국세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실력 있는 회계사들에 대한 정보는 www.cocap.com/resources의 "Accountants"에서 검색 가능하다.

또한 회사의 규모가 크지 않다면 부기나 급여처리를 대신하는 업체를 통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급여처리 대행회사 정보
 - 회사명: PBS Multidata
 - 주소: Lautrupbjerg 10, 2750 Ballerup
 - 전화: +45-4489-2289
 - 팩스: +45-4489-7680
 - 홈페이지: www.dataoen.dk
 - e-mail: dataoeninfi@multidata.dk

다. 주식회사(A/S) 설립 및 운영

1) 설립절차

주식회사는 1명 또는 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체에 의해서 설립될 수 있으며, 설립자는 정관을 포함한 설립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설립계약서에 서명한 후 6개월 이내에 회사 등록소(Danish Commerce and Companies Agency)에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등록비는 없다. 회사는 설립 계약서에 서명한 즉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나 등록 전에는 의무를 지거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획득할 수 없다.

정관에는 회사명, 회사의 목적, 회사 설립지역, 자본금, 이사회 인원수, 회계연도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주의 2/3 이상 참석, 2/3 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승인될 수 있다.

2) 자본금

최소 자본금은 DKK500,000이며, 자본금은 회사 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에 모두 납입되어야 한다. 회사는 회사의 이름으로 명목상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이사가 주식을 인수할 경우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투표권의 5% 이상 또는 최소 DKK100,000에 해당하면서 총 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는 그의 주식 소유 내용을 회사에 통지해야 하며, 또한 어떤 주주가 5% 제한을 초과 하거나 또는 투표권 및 총 주식의 1/3, 2/3에 달하는 주식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 내용을 변동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4주 이내에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회사는 5%, 1/3, 2/3의 제한을 초과하는 주주의 리스트를 확보해야 하며, 이 리스트와 Annual Report상의 연간 회계정보를 포함한 회사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3) 경영

모든 주식회사는 이사회를 최소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해야 하며,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3년 연속 평균 35명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회사의 경우 종업원이 이사의 절반을 선출할 권한을 가진다.

이사회는 사장을(General Manager)를 선임하며, 사장은 이사회 멤버가 될 수는 있으나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될 수는 없다. 이사진의 다수는 회사의 경영진이 아니어야 한다. 이사회와 함께 사장은 회사의 경영진을 구성하고 회사관리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진다.

이사회에 의해서 소집되는 일반적인 연례 주주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나, 주식시장에 상장된 대기업은 4개월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4) 연간회계

주식회사는 감사를 받은 회계기록을 준비해야 하며, 회계기록은 최소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을 포함해야 하고 Annual Report도 준비되어야 한다. 회계기록은 덴마크어로 작성되어야 하나 종종 다른 언어로도 작성될 수 있다. 화폐단위는 덴마크 크로네 또는 유로로 표시되어야 한다.

연간회계 기록이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즉시, 그러나 회계연도 종료 후 4-5개월 이내에 Annual Report와 함께 기업 등록소에 제출되어서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청산

청산의 결정은 주주총회에서 2/3 이상의 주주 참석, 2/3 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청산이 결정되면 주주총회는 1명 또는 그 이상의 청산인을 선임하며, 청산의 결정은 덴마크 관보를 통해 공고되어야 하며, 모든 채권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라. 유한회사(ApS) 설립 및 운영

유한회사는 법 및 조세 차원에서 볼 때 주식회사와 비슷하나 유한회사 형태를 운영하는 것은 제한된 유동성으로 소규모 회사 설립을 촉진시키기 위해서이며 설립절차 등은 주식회사와 동일하나 주식회사와 크게 다른 점은 아래와 같다.

- 납입자본금이 최소 DKK 125,000
- 자본금이 일인 또는 그 이상의 설립자에 의해서 납입
- 주식이 주식 소유자의 이름으로 발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주식 소유자는 주식 소유자가 된 날로부터 또는 주식 소유자가 되지 않은 날로부터 4주 이내에 회사에 통지해야 하고, 회사는 주주명단을 유지해야 하며, 자본금이 DKK500,000이상인 회사는 주주명단을 공개해야 함.
- 한 명의 주주에 의해 모든 주식이 소유되었다는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해야 함은 물론 주식 소유자의 신분도 확인될 수 있어야 함.
- 유한회사는 회사의 이름으로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
- 유한회사는 반드시 이사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으며, 사장(General Manager) 선임을 안 해도 됨. 경영진은 한 명의 이사, 한 명의 Director, 한 명의 General Manager로 구성할 수 있음.
- 주주의 권한을 축소하는 정관의 변경은 모든 주주의 만장일치로 승인되어야 함.
- 자본금의 40% 이상을 잠식할 경우 회사는 자본금의 재 출자 받거나 또는 해산해야 함.
- 유한회사의 회사의 청산절차가 주식회사에 비해 매우 간단함.

마. 지사설립 및 운영

1) 설립절차

모국에 등록된 외국법인 혹은 회사는 덴마크 산업부의 허가 하에 지사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비 EU회원국의 법인이 지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이 소재한 국가에 동일 분야의 덴마크 기업도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지사명에는 모회사명 및 출신 국가명과 더불어 Filial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자본구조

외국업체의 덴마크 지사는 자본을 등록할 의무가 없다.

3) 경영

최소한 한 명 혹은 그 이상을 지사의 Manager로 선임하여 등록해 한다.

4) 지사폐쇄

지사가 채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장기간 지사장이 공석일 경우, 지사는 폐쇄될 수 있다. 회사 등록소에 등록이 취소되면 지사는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지사장은 소득세, 관세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에 대한 채무를 개인적으로 책임진다.

5) 장부 및 회계기록

지사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모회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연차 회계보고서의 공증된 사본을 회사 등록소에 제출해야 하며, 또한 지사의 연간회계기록은 납세신고서와 같이 제출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6) 법정감사

세법 및 회사법에서는 지사에 대한 회계기록을 감사하도록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만약 지사 설립에 허가가 요구될 경우 산업부는 회계감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바. Representative Office 설립 및 운영

외국회사가 등록 없이 Representative Office 또는 이와 유사한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설립된 사무소는 분리된 법인체로 간주되지 않으며, 수행되는 모든 활동은 완전히 외국 회사를 대신해서 행하는 것이며, 따라서 사무소의 의무 및 채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외국 회사가 책임을 진다.

사. 공장설립 절차

덴마크에서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식회사(A/S) 또는 유한회사(ApS)를 설립해야 한다.

그 다음에 공장을 신축하거나, 기존의 공장을 인수한 후 개보수하는 형태로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데 이 두 경우 모두 두 가지의 승인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야 한다. 다만 식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한 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예외이다. 승인을 받는 것은 법에 정해진 내용만 충족시키면 크게 어렵지 않다.

첫 번째는 공장설립승인이다. 공장설립 승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Technical Division 이 해주는데,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이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인지를 Zoning Law 에 따라 검토한 후 승인을 해준다. 즉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이 주거지역인지 공장 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처리기간은 통상 6-8 주가 걸리나 대도시 지역은 이보다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규모가 적은 지역은 덜 걸릴 수 있다.

두 번째는 환경과 관련된 승인이다. 이것 역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는데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쓰레기, 폐수, 냄새 등을 점검한 후 승인을 해 준다.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공무원이 공장을 방문하여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쓰레기, 폐수, 냄새 등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는 지를 점검한 후 승인을 해 준다.

아. 투자관련 정부기관

1) 회사 등록기관

- 기관명: Erhvervs og Selskabstilsynet (Danish Commerce and Companies Agency)
 - 주 소: Kampmannsgade 1 DK-1780 Copenhagen K
 - 전 화: (+45) 3330 7700
 - 팩 스: (+45) 3330 7799
 - 이메일: ebst@ebst.dk
 - Web : www.ebst.dk

2) 투자지원 정부기관

- 기관명: Invest In Denmark
 - 주 소: Slotsholmsgade 10-12, DK-1216 Copenhagen K.
 - 전 화: (+45) 3546 6000
 - 팩 스: (+45) 3546 6001
 - E-mail: Info@investindk.dk
 - Web : www.investindk.dk

3) 공장설립 승인기관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방 자치단체를 접촉해야 하는데 코펜하겐의 경우 아래와 같다.

- 부서명: Byggeri & Bolig 내의 Byggesagsafdelingen
 - 주 소: Postboks 432, Ottiliavej 1, 4. sal, DK-2500 Valby
 - 전 화: (+45) 3366-5200
 - 팩 스: (+45) 3366-5200
 - E-mail: byggesagsafd@tmf.kk.dk

4) 공장설립을 위한 환경관련 승인기관

공장을 설립 시 환경 관련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접촉해야 하는데 코펜하겐의 경우 아래와 같다.

- 부서명: Environmental Division
- 주 소: Postboks 432, Ottiliavej 1, 4. sal, DK-2500 Valby
- 전 화: (+45) 4322-2849
- 팩 스: (+45) 4322-2866
- E-mail: aaslyn@tf.kbhamt.dk

자. 투자관련 서비스 기관

1) 회계법인

- Price Water house Coopers
 - 주 소: Strandvejen 44, DK 2900, Hellerup
 - 전 화: (+45) 39453945
 - 팩 스: (+45) 39453987
 - 이메일: dk-webmaster@pwc.com
 - Web : <http://www.pwc.com>
- KPMG
 - 주 소: Borups Alle 177, Postboks 250, 2000 Frederiksberg
 - 전 화: (+45) 38183000
 - 팩 스: (+45) 72293030
 - 이메일: kpmg@kpmg.dk
 - Web : <http://www.kpmg.dk>
- BDO Scanrevision
 - 주 소: Kristinebjerg 3, 2100 Copenhagen East
 - 전 화: (+45) 39155200
 - 팩 스: (+45) 39155201
 - 이메일: koebenhavn@bdo.dk
 - Web : <http://www.bdo.dk>

2) 법무법인

- Jonas Bruun
 - 주 소: Bredgade 38, 1260 Copenhagen K
 - 전 화: (+45) 3347 8800
 - 팩 스: (+45) 3347 8888
 - 이메일: jb@jblaw.dk
 - Web : <http://www.jblaw.dk>

- Kromann Reumert
 - 주 소: Sundkrogsgade 5, 2100 Copenhagen Ø
 - 전 화: (+45) 70121211
 - 팩 스: (+45) 70121311
 - 이메일: cph@kromannreumert.com
 - Web : http://www.kromannreumert.com

- Niels Ahlmark(Member of the Law Firm Ret & Raad)
 - 주 소: Vester Voldgade 90, 1552 Copenhagen V
 - 전 화: (+45) 3315 1563
 - 팩 스: (+45) 3313 0707
 - 이메일: koebenhavn@ret-raad.dk
 - Web : http://www.ret-raad.dk

6. 투자입지여건

가. 입지 여건

덴마크는 대부분 공업용지를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관계로 원칙적으로 공장부지 결정은 지자체가 하게 되는데, 지자체들은 특정 지역에서만 공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한편, 동 지역 내 공장부지는 업체유치를 위해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부지확보의 용이성, 환경보호 문제 등으로 인해 공장들은 주로 도시 외곽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특히 코펜하겐 외곽지역인 Glostrup, Bronby, Ballerup 지역이 공장설립 지역으로 선호되고 있으며 많은 외국기업 생산공장 및 판매사무소도 이곳에 설립되어 있다.

덴마크의 대표적 기업들은 대부분 각 지방의 소도시에서 분산되어 있는데, 이는 당초 기업이 설립될 당시부터 소재지에서 커왔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Danfoss사가 본토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으며, Grunfos사는 중북부지방, Lego는 중부지방, Vestas 사는 중서부 지방의 소도시에서 위치하고 있다.

덴마크 본토의 북부지방인 Aalborg지역에는 IT업체가 많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이 지역의 산업지원 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조선산업이 발달해 있던 지역이었으나 조선업이 경쟁력을 잃어감에 따라 지방정부에서는 대체산업으로 IT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대학 등의 관련 학과 증설, 직업학교과정 확대를 인력을 조달하는 한편 금융 지원을 통해 관련업체 유치한 결과 현재는 덴마크 뿐 아니라 북유럽에서 손꼽히는 IT산업 지역으로 발달했다.

2000년 코펜하겐-말뫼를 잇는 교량의 완공됨에 따라 동 지역(Oeresund)의 경제권이 단일화되고 있으며, 특히IT 및 생명공학 관련산업이 집중 발전되고 있어 이를 Medicon Valley로 부르기도 한다.

상기 이외에도 Herning 및 Ikast시를 포괄하는 지역의 섬유디자인산업 클러스터, Horsens지역을 중심으로 한 농업 및 농업용 철물산업 클러스터, Esbjerg지역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코펜하겐을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 여행산업 클러스터, Funen 지

역의 묘목산업 클러스터, 유틀란드 반도체 동부를 중심으로 한 운송산업 클러스터 등이 유명하다. 이들은 해당 지자체 및 정부의 산업정책과 산학연의 협력을 통해 특정산업에 특화, 발전한 지역들이다.

한편 Invest in Denmark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자의 목적에 맞는 공장부지를 알선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Invest in Denmark를 접촉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Invest in Denmark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 Invest In Denmark

- 주 소: Slotsholmgade 10-12, DK-1216 Copenhagen K.
- 전 화: (+45) 3546 6000
- 팩 스: (+45) 3546 6001
- E-mail: Info@investindk.dk
- Web : www.investindk.dk

나. 산업단지

덴마크에는 특별 경제자유구역 등 특수한 목적으로 조성된 산업단지가 없다.

7. 노무관리

가. 인력

덴마크의 노동인구는 약280만 명이며 그 중 150만 명이 남성이고 130만 명이 여성이다. 대체적으로 노동인력의 질이 높고, 안정되어 있다. 임금 상승률은 일반적으로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편인데, 연간 물가상승률이 2%이면, 임금 상승률은 3-4% 수준 정도이다.

국립학교를 비롯 고등학교, 대학교는 무료이고 산업 근로자는 전문인 양성과정 혹은 기타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다른 나라와 비교할 경우 여러 분야에 숙련된 노동력을 찾을 수 있으며 효율성과 훈련의 수준도 높은 편이다. 또한 정부는 노동력의 수급 (ARBEJDFORMIDINGEN)을 위해 주어진 지역의 일자리를 구하는 개인들의 명단을 기록하는 등 노동력의 유동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제호황으로 건설 등의 분야에서 노동력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동구 등에서 노동력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 노사관계

피고용인-고용주와의 관계는 월급 고용인에 대한 법과 덴마크 고용주 연합(DA)과 덴마크 노동조합연합(LO) 간에 1973년 10월 31일 체결된 주 협정문 및 그 후 개정 사항을 포함하여 노사합의 내용을 적용 받는다.

상기 법과 합의내용은 피고용인의 고용은 물론 법정최소 휴가일, 해고통보, 초과근로 수당, 여성 및 남성의 출산휴가 등 근로조건과 관련한 피고용인의 보호에 대한 근거가 되고 있다.

다. 노동조합

대부분의 피고용인은 기술별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회원이다. 따라서 일정 분야의 기업 피고용인들은 여러개의 노동조합원이 될 수도 있다. 노동조합의 회원가입은 의무는 아니지만 회원들이 비회원과의 근무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경우가 많다. 노동조합 간의 경쟁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용주와 합의하여 특정 조합의 회원만을 고용하기도 한다.

노사의 총체적 합의는 그 회사가 속한 고용주 단체와 관계되는 노동조합 간에 2년 또는 3년, 4년 마다 이루어지며, 여기서 임금, 근로조건 및 기타 노사관계 문제를 협의하게 된다. 협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덴마크 고용주 연합과 덴마크 노동조합 사이의 교섭이 이루어지게 되며, 필요할 경우 공식 중재자를 두기도 한다.

라. 근로자 평의회

고용주연합과 조합간의 합의에 따라 모든 산업체는 35명 이상의 고용인이 있을 경우 정보공유와 대화를 통해 노사간의 협력의 유지와 보강을 목적으로 하는 평의회를 두어야 한다.

마. 피고용인의 이사 선출권

지난 3년간 평균 35명 이상을 고용한 회사나 기업의 피고용인은 그들 중 최소 2명과 대리인 2명을 이사회에 이사로 선출할 권리가 있다. 이사회에서의 피고용인의 대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 절반 이상의 피고용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피고용인이 이사회에 이사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선거일로부터 그 회사에 최소한 일 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바. 피고용자 Stock Option Scheme

산업근로자의 기업공동소유권을 촉진하기 위하여 “The Tax Assessment Act”는 Stock Option Scheme이 덴마크 조세당국에 의해서 승인된 것이라면 피고용인이 획득한 주식에 대해 조세감면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 근로조건

1) 임금

덴마크에는 법으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도는 없다. 그러나 노사합의에 의해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되는데 강제 규정이 아니다. 2006년 기준으로 일반근로자의 평균임금은 DKK 30,485이며, 간부직 평균임금은 DKK 44,825이다.

부문별 일반근로자의 월 급여 수준

(단위: DKK)

부문별	일반근로자	간부직	부문별 전 직급 평균
농수산업	46,370	70,406	50,109
제조업	32,741	50,997	35,842
도소매, 호텔, 식당	28,657	44,517	30,682
운수, 창고 및 통신	30,422	49,716	32,467
금융중개업	37,525	59,838	40,144
전 업종 평균 급여	32,694	49,837	34,963

주: 2006년 덴마크 통계청 발표자료(2007년 통계 미발표)

2) 수당

많은 회사들이 은행, 보험회사와 협력하거나 독자적인 연금자금을 마련하여 부가적인 연금 가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주는 피고용자를 위하여 적합한 식사시설을 마련해야 하는 관계로 대부분의 현지 기업들은 식사와 음료를 적당한 가격에 제공하는 매점을 설치해 놓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편의 뿐만 아니라 간혹 주거시설도 제공된다. 회사의 고위 간부들에게는 회사차량이 지급되어지기도 한다.

덴마크에서는 연금을 제외하고는 높은 특별 수당을 주는 것은 그리 널리 행해지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특별 수당은 피고용인에게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3) 근무시간

임금 근로자의 경우 단체계약에 의해 주당 5일, 37시간 근무가 규정되어 있다. 야간 근로자의 경우 매 38시간 근무 시 2시간의 별도 유급휴가 권리가 부여된다. 초과 근무 시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초과 근무수당은 조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치를 밝히기 어렵다.

고용인 연합(EMPLOYEE'S ASSOCIATION)의 회원일 경우 초과근무 수당의 계산은 첫 3시간은 50%를 지급하고 그 이후는 100%를 지급하며,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 시에는 100% 지급한다.

4) 유급휴가 및 공휴일

모든 피고용인들은 공휴일도 임금이 지불되며, 휴가 및 휴가비 지급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용인은 법에 의해 연간 5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정식으로 고용된 월급 근로자는 휴가기간에도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 받는다. 월급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총 급여의 12.5%가 휴가비로 주어진다.

병가에 대해서는 월급근로자인 경우 정상 급여를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월급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병가 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출산휴가는 총 52주를 가질 수 있는데 출산 전 어머니가 4주, 출산 후 어머니가 14주, 아버지가 2주를 가질 수 있고, 32주는 어머니 아버지가 나누어서 가질 수 있다. 출산 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출산 전 4주, 출산 후 14주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50%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외에 산후 46주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해준다.

5) 해고

고용주가 월급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아래 규칙에 따라 사전통보를 해야 한다.

- 6개월 이내 근무직원: 해고 1개월 전 통보
- 6개월- 3년 근무직원: 해고 3개월 전 통보
- 3년- 6년 근무직원: 해고 4개월 전 통보
- 6년- 9년 근무직원: 해고 5개월 전 통보
- 9년 이상 근무직원: 해고 6개월 전 통보

월급 근로자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큰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사전통보 없이 해고할 수 있다. 월급 근로자의 사직은 통보한 당월로부터 1개월 후에 가능하다. 그러나 단순히 인턴이나 단기 근로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월급 근로자가 12, 15, 18년 혹은 그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면 부수적으로 1개월, 2개월, 3개월 분의 추가월급을 보상 받을 권리가 부여된다.

1, 2, 3년 혹은 그 이상 근무한 월급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부인 및 18세의 미만 자녀가 부양 가족으로 있으면 1개월, 2개월, 3개월 분의 월급을 받을 권리가 주어진다.

임금근로자 해고에 관한 규정은 상당히 다양하지만 노동시장을 전체적으로 볼 때, 보통 임금근로자는 9개월 이상 근무했을 경우 21일의 사전 통보를 받아야 하며, 2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는 21일의 사전통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피고용인의 사직통보는 이에 반해 상당히 짧은 편이다.

6) 기회균등

법령에 의해 인종, 국적, 종교 혹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봉급, 임금 혹은 혜택의 수준이 성별이나 앞서 언급한 기준에 의해서 고용인에게 달리 주어지지 않는 안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성이 저소득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여성의 평균임금은 남성동료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다.

7) 보건 및 안전

모든 기업은 근로보건 및 안전법(ARBEJDSMILJOLOVEN)에 근거한 산업보건 및 안전규정, 노사합의 사항의 적용을 받는다.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안전 요원을 지명하거나 최소한 1개의 안전그룹을 조직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주는 인지도 높은 보험회사에 피고용인의 근무시간 동안 발생한 사고와 비위생적인 근로 조건 혹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영구 부상 및 건강 악화를 보상해주는 보상재해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8) 교육훈련

현지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피고용인을 위하여 기본훈련 혹은 고등훈련 과정을 마련하고 있다. 훈련 과정과 수련인의 시험 관리는 정부가 보조하는 교육기관이나 현지 시당국이 맡고 있다. 아울러 고용주는 여러 과정에 참가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자체 훈련시설을 제공하기도 한다.

아. 사회보장

1) 사회보장제도

덴마크는 아래와 같은 포괄적인 사회보장제도를 가지고 있다.

- 공공기금으로 총당하는 연금, 의료 및 아동복지
- 공공기금으로 총당하는 실업자 및 장애자 복지

- 피고용인의 기부금으로 총당하는 추가연금
- 산업재해 보험
- 공공기금으로 총당하는 피고용인 보장기금(Employees Guarantee Funds)

2) 보장

피고용인 보장기금에서 제공하는 추가연금 혜택만 제외하고 나머지 사회보장제도는 고용주, 피고용인을 막론하고 덴마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까지 적용된다.

3) 기부

사회보장기금의 기부는 주로 정부출자로 이루어지며 어떠한 사회보장비용도 직접적으로 고용주에 의해 출자되지는 않는다.

4) 혜택

□ 연금

모든 덴마크 시민은 다른 소득에 상관없이 기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며, 외국인이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덴마크 체류기간 등과 같은 특정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연금은 65세가 된 다음달부터 지급되며, 1999년 6월 1일 이전에 60세가 된 사람에게는 67세가 된 다음 달부터 연금이 지급된다. 2008년에는 연간 DKK 61,152가 연금으로 지급되며, 매년 이 금액은 임금상승률을 토대로 조정된다.

만약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는 개인 1명에게는 연간 DKK 61,560이 추가로 지급되며, 부부에게는 DKK 28,752이 추가로 지급된다.

모든 피고용인과 근로자 (외국인 포함)는 67세에 추가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1999년 6월 1일 이전에 60세가 된 사람은 65세가 된 다음 달부터 추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추가연금 이외에 피고용인이 개인적으로 연금기금에 가입하였을 경우 추가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연금은 개인이 연금기금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지급 시기는 65세부터이며, 1999년 6월 1일 이전에 60세가 된 사람은 67세부터이다. 이 연금은 회사가 복지차원에서 피고용인을 대신하여 가입해 주는 경우가 많으며, 피고용인이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도 있다.

국가공인 실업기금의 회원 중에서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조기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60세에서 64세 사이에서 조기퇴직이 가능하며, 퇴직하는 회원들에게는 65세가 되어서 퇴직한 사람이 받는 연금수령액 보다 약간 적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연금 수령액은 조기퇴직제도에 규정되어 있다.

□ 질병 및 의료비용

1971년의 봉급 근로자법에 따르면, 질병으로 어쩔 수 없이 결근할 경우에도 유급으로 하고 있다. 만약 피고용인이 2주일 이상 질병으로 결근하였음에도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2주 이상부터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지자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다. 출산휴가 시에는 별도 규칙이 적용된다.

의료 및 치료 비용은 개인의 의사 및 치료의 선택 제한유무에 따라서 완전히 환불되거나 50%만 환불되며 입원은 수술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무료이다.

□ 아동복지

2008년 기준으로 2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가족은 연간 DKK 14,156을 받을 수 있으며, 3세부터 6세까지의 자녀를 가진 가족은 연간 DKK 12,792을 받을 수 있고, 7세부터 17세까지의 자녀를 둔 가정은 DKK 10,064을 받을 수 있다. 지급되는 금액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이 금액은 연세로서 소득과 별개로 구분되며 매 분기마다 미리 부모에게 지급된다.

□ 실업수당

실업수당은 해당 사람이 국가공인 실업기금의 회원인지 아닌지의 따라 크게 차이가 나며, 국가 공인 실업기금의 회원일 경우 원래 봉급의 90%, 2008년의 경우 주당 최고 DKK 3,515의 실업수당을 받을 권리가 주어지나 회원도 아니며 기타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개인은 거주하는 시청에서 생활보조비가 주어진다.

□ 피고용인 보장기금(Employees Guarantee Fund)

피고용인 보장기금의 목적은 고용자가 파산할 시 지불되지 못한 보수에 대한 피고용인의 피해를 막는 데 있으나 기금은 각 피고용인에게 소득세 후 최고 DKK 110,000을 지불한다.

5)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

CPR CARD(현지주거자 신분증)를 발급 받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현지인과 거의 동일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교관은 CPR CARD발급대상이 아니므로 사회보장 수혜 대상이 아니다.

8. 조세제도

가. 세제 개황

세금의 종류를 보면 첫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법인의 경우 법인세와 이산화탄소세, 개인의 경우 개인소득세가 있고, 개인과 법인에 부과되는 자본소득세가 있다. 두 번째로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VAT), 자동차 등록세, 관세 및 여러 재화에 부과되는 소비세, 인지세, 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다.

또한 자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개인에 대한 재산세(법인은 제외함)와 부동산 보유세가 있다. 자본세(주식양도세, 부유세 등), 지급 급여세 등은 없다.

국세의 총당은 간접세가 39%를 차지하고 약 61%가 직접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세금은 국회에서 제정된 세법에 의거하여 부과되며, 세금은 국가, 주 및 시단위로 부과 가능하다. 비록 각기 다른 정부기관이 세금을 부과하는 하지만 세금을 신고, 추징 및 수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나. 기업 조세

1) 법인세

법인세는 단일세율로 25%이다. 법인세는 면세항목과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전세계에서 발생한 총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다. 덴마크에 주재하는 기업의 경우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과세되지만, 비거주 기업은 덴마크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서 과세된다.

모든 덴마크 기업을 포함한 과세 가능한 영구설립기관(예: 지사)을 둔 비거주 외국기업은 매 세무기간마다 납세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면 회계연도가 4월1일에서 12월31일까지인 법인은 늦어도 이듬해 4월30일까지 납세신고서를 끝내야 하고, 회계 연도가 1월1일과 3월31일 사이에 끝나는 법인은 당해 5월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보통 납세 신고서 제출은 6월30일까지 연장 가능하고 그 이상의 연장도 가능하지만, 연장 사유가 구체적이고 정당해야 한다.

또한 납세신고서와 함께 일반적으로 감사를 거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납세신고서를 경영진의 결제를 받고 제출하기 전에 회계사나 세무사의 자문을 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세금의 부과는 기업이 제출한 납세신고서를 근거로 현지 세무당국이 실시하며 납세자는 세금 부과 이전에 서면 혹은 구두로 세금액수의 변동을 가져올 사유를 표시할 수 있다. 결정이 이루어지면 결정에 대한 이유를 밝히며,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 납세자에게 있음을 알린다.

납세자가 올바르게 납세 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 세무당국은 추정치로 부과한다. 납세 신고서의 정보가 미흡하여 세무당국이 만족하지 않으면 추정치 혹은 임의의 세금 부과가 이루어진다.

만약 법인이 과다하게 세금이 부과되었다고 판단할 시에는 세금 부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시 세무위원회(Municipal Tax Board)를 대상으로 서면으로 항소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사건을 재심사하여 새로이 부과하게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재결정에 법인이 아직도 만족하지 않으면 결정이 내려지고 난 일로부터 4주 이내에 서면으로 다시 지자체 세금심의위원회(Municipal Tax Council)로 항소할 수 있다.

지자체 세금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또다시 8주 이내에 국립 세금 재판소(National Tax Tribunal / Landsskatteretten)로 항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직접 출두하거나 회계사 혹은 변호사를 대신 선임할 수 있다.

그 이후의 항소 절차는 세무당국이나 납세자의 항소에 따라 6개월 이내에 고등법원(High Court)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대법원(Supreme Court)으로 이어지게 된다.

법원 내에서의 항소는 이따금 회계사들의 지원을 받고 변호사들에 의해 처리된다.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세무연도 5년이 지나기 전에 부과금액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세무당국은 재심사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여길 시에 수용할 수 있다. 만약 세무 당국이 수용하지 않으면 납세자는 법원으로 항소할 수 있다.

법인세액은 별개의 고지서로 일괄적으로 부과된다. 납기일은 세무연도 이듬해 11월 1일까지이며, 납부가 11월 20일을 지나면 안 된다.

2) 이산화탄소세

이산화탄소세는 덴마크 영토 내에서 이산화탄소의 탐사 및 채굴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산화탄소세는 이산화탄소의 탐사 및 채굴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가진 자에게 부과되며, 법인세 외에 추가로 이산화탄소세가 부과된다.

이산화탄소세는 2004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생산자에 의해서 채굴된 이산화탄소의 판매로부터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70%가 부과되었으나 2004년 1월 1일 이후에는 52%로 하향 조정되었다.

3) 자본소득세

3년 이상 소유한 주식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자본 소득세가 면제되나 3년 미만 소유한 주식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는 자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세율은 DKK 46,700까지는 28%, DKK 46,700~102,600까지는 43%, 그 이상에 대해서는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외국인 주식소유자는 덴마크 회사의 주식에 대해 덴마크의 자본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4) 간접세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 관세, 물품세, 자동차 등록세 등이 있다.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25%이며, 관세는 덴마크가 EU 회원국이기 때문에 EU 관세율을 적용 받는다.

물품세는 술, 음료, 담배, 차, 커피, 초콜릿, 물, 자동차 연료, 난방용 석유, 가스, 석탄, 전기 등에 부과된다. 자동차 등록세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180%로 매우 높다.

다. 외국기업에 대한 조세

외국기업 및 자사의 경우도 법인세, 이산화탄소세, 자본소득세 등은 동일하게 납부해야 하며, 간접세도 마찬가지이다. 이 외에 자사의 본사로의 이윤 송금 시 원천 징수세나 기타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으로 지급되는 배당금에 대해 28%의 원천 징수세나 조세협정에 따른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조세협정 체결국이 아닌 외국인에게 지불되는 로얄티에 대해서는 28%의 로얄티 원천징수세가 부과된다.

영구설립기관으로 인하여 발생한 덴마크내의 산업 및 공업 이윤은 과세된다. 외국기업의 피고용인이 판매활동을 하면서 고용인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주어지면 영구설립기관으로 간주된다. 연락사무소 혹은 대표 사무소는 직원이 실제로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지 않는다면 면세로 활동할 수 있다.

비거주 회사에 대한 이중과세 협정에 의해서 덴마크 내에서의 납세의무 정도를 규정하며, 만약 협정이 없다면 OECD모델 협정과 유사한 조항에 의해서 규정된다. 협정에 의해 국내 영구설립 기관으로 인해 발생한 산업 및 상업이윤에 대한 과세가 제한된다.

또한 비거주 회사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과세되지만 영구설립기관은 거주회사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된다.

대리점이 없는 덴마크 소비자를 위한 재화의 수입은 영구설립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윤에 대한 덴마크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비관련 대리점(Unrelated agent) 및 독점 대리점(Sole agent)이 행하는 상업활동은 일반적으로 외국법인의 판매를 담당하는 영구설립기관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외국기업의 피고용인이 판매활동을 하면서 고용인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주어지면 영구설립기관으로 간주될 수 있다. 결재가 사실상 형식에 불과할 경우에는 판매 활동은 영구설립기관으로 간주될 요인이 된다. 따라서 마지막 결정이 덴마크에서 이루어졌는지 외국에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관건이다. 즉 판매계약이 덴마크에서 체결되면 영구설립기관으로 분류된다.

이중과세방지 협정의 조항에 따라 지사의 이윤중 법인세가 부과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다.

- 지사에 의해 직간접으로 발생한 모든 거래소득과, 지사를 위한 자산 혹은 소유권 으로 발생한 소득
- 지사와 관련된 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은 50%의 법인세가 부과된다. 지사의 소득과 손실을 법인세를 위해 조정하는 방법은 거주자 회사와 같으나, 소득을 수익공제 항목으로 손금처리 하기 위해서는 덴마크 내에서 지사를 통한 무역만을 위한 용도이어야 한다.
- 또한 외부 부채임을 쉽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본사로부터 빌린 부채 대한 이자 지급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 또한 재화의 구입, 광고 및 기타 보조활동을 위한 사무실이나 고정된 장소는 납세의 무가 없으며 지사의 본사로의 이윤 송금에 대한 원천 징수세나 기타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 덴마크 회사로부터 외국인 주주에게 배분되는 배당금 또한 28%의 원천 징수세 내지는 조세협정에 의한 세율로 과세된다. 주주총회에서 배분된 배당금뿐만 아니라 비밀 배당금 및 파산절차를 밟지 않는 회사로부터의 주식, 자본의 감소로 인한 지분 그리고 파산절차를 밟는 회사의 역년 이전의 배분 또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조세 협정에 의해 일반적으로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원천 징수된 금액과 조세협정에 의한 세율 차이의 환급을 위해서는 세무당국으로 서면 제출이 필요하며, 세무당국은 외국인 주주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
- 원천 징수세는 확정세액으로서 다른 원천의 손실로 인해 감소될 수 없다. 외국인 주주들도 이중과세 방지조약 체결국에 해당하면 거주자 회사의 공개된 배당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주주들은 덴마크 주식의 판매 혹은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이득에 대해 보통 덴마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회사간 주식 판매는 덴마크 세무관계상 배당금으로 분류되어 과세될 수 있다.

라. 개인 조세

1) 소득세

덴마크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덴마크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은 덴마크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전국민은 소득액의 8%를 실업기금으로 기본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외에 소득액에 따라 추가로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 2008년도의 경우 총 소득에서 기본 감면액(DKK41,000)과 기타 감면액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대해 아래와 같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되며, 총 세율이 59%를 초과할 수 없다.

- 국세(State Tax Rates)
 - 기초세율(0 - DKK279,800): 5.48%
 - 중간세율(DKK279,800 - DKK335,800): 6%
 - 고세율(DKK335,800 이상): 15%
 - 지방세(Local Tax Rates) 평균: 32%

이 밖에 종교세가 1% 인데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납부하고 싶은 사람만 납부하면 된다.

따라서 고소득자의 경우 실업기금 8%, 국세와 지방세 59%, 종교세 1% 등 총 68%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외국에서 파견된 고액 연봉자나 과학자 등은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3년에 한해 25%의 특별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2)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는 DKK 55,400를 초과하는 자산(2008년 경우)에 대해 부과되는데, 세율은 상속자가 자식, 부모 등 직계일 경우 15%, 상속자가 형제, 자매, 친척 등 기타 관계인 경우 15% 외에 추가로 25%(첫 번째 15% 감면후의 금액에 대해)를 납부해야 하는데 총 세율이 36.25%를 초과할 수 없다.

증여세는 부부간의 경우 금액의 다과와 상관없이 면제되며, 직계존속의 경우 DKK 56,800을 초과하는 금액(2008년 경우)에 대해 15%의 세금이 부과되며, 기타 관계인 경우 36.25%의 세금이 부과된다.

3) 재산세

DKK 3,040,000까지의 재산에 대해서는 1%, 이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3%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외환규제

일반적으로 덴마크 내에서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특별한 외환규제는 없다. 다만 투자자의 거주지 국가가 덴마크 국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 제한할 수는 있다.

나. 외국자본 및 기술등록

통계 및 통제 목적을 위해 DKK100,000이 넘는 국제송금은 덴마크 중앙은행에 보고해야 하는 것 외에 외국자본에 대해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다. 기술협정이나 이와 유사한 협정에 대해서도 보고할 필요가 없다.

다. 현금구좌

모든 덴마크 내 거주인은 덴마크 혹은 해외에 현금구좌를 가질 수 있으나 해외에 은행 구좌나 증권권을 보유하는 거주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은행명, 구좌 혹은 예금 종류 등을 덴마크 내 거주자임을 밝히는 증명서와 더불어 신고해야 하며 다음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덴마크 국세청에 예금 혹은 구좌 조사권 위임
- 해외의 은행기관이 덴마크 국세청으로 이자율 및 잔고에 대한 연간보고 등을 승인하는 신고서

라. 자본 및 소득의 송금

법인 혹은 지사에 투자된 자본의 본국송금에 대한 외환규제는 없으며 재화 혹은 서비스의 구입 및 판매, 이자, 로열티, 배당금 및 기술자문료를 포함하여, 소득의 본국송금에 대한 규제 또한 없다.

마. 자금조달 방법

덴마크 은행으로부터 대출은 다른 선진국처럼 매우 자유로우며, 대출 방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자산이 있을 경우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자산이 없을 경우 모기업 또는 제2자의 지급 보증에 의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V. 기타 유용한 정보

1. 시장 특성

가. 시장규모

덴마크의 연간 수입 규모는 2007년 기준으로 988억 달러 수준으로, 산업 구조상 일반 소비재 및 공산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인 경기 호황으로 수입 시장 규모는 계속 확대되어 왔으며 우리의 주종 수출품목인 일반 소비재 시장도 확장세를 보여왔다.

특히 덴마크는 비교열위에 있는 상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의 고가품 생산에 주력하여 화학, 의약, 측정장비, 디자인, 가구, 오디오, 건설기술, 발효기술, 시멘트공장 설비, 조립식 완구 등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나. 시장 특성

첫째로 소비패턴이 양극화 되어 있는 시장이다. 덴마크는 2007년 기준으로 1인당 GDP가 5만 7,000달러 대의 고소득 국가인 관계로 의류, 전기, 전자제품, 신변용품 등은 고급

브랜드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고율의 세금부담으로 인해 생활용품 등은 저가품을 선호하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중급품 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 대표적인 소량 다품종 시장이다. 덴마크는 인구 540만 명의 작은 나라이며, 일부 제품은 덴마크에서 수입하여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구 국가와 독일 등 중부 유럽에도 공급하기도 하지만 전체 수입량 규모는 크지 않다.

세 번째로는 상거래 형태가 매우 보수적인 시장이다. 처음 거래를 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장기간이 걸리나 일단 거래관계를 형성하면 쉽게 거래선을 바꾸려 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네 번째로 일반 소비제품의 경우 대형 체인점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가전 제품, 생활용품, 안경 등 일반 소비재는 소수의 대형 체인점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들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있다.

다섯 번째로는 환경을 매우 중요시하는 시장이다. 덴마크는 깨끗한 국토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나라이다. 덴마크인들은 환경 문제를 하나의 추상적인 문제가 아닌 실제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새로운 방안이 유익하다고 판명되면 당장 그 방안을 실행하는 것을 고려하게 된다. 당연히 환경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제품은 시장에 내어놓을 수 없다.

여섯 번째로는 비교적 의사 결정 속도가 느리다. 돌다리도 두드려 가듯이 한번 수입 결정을 하기까지 여러 가지 테스트와 검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최초 상담에서 첫 번째 거래가 이루어지기까지 1년 가까이 소요된다.

다. 한국상품 점유율 및 인지도

덴마크 전체 수입 규모는 2007년 덴마크 수입통계 기준으로 DKK 5,382억(988억 달러) 규모인 반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DKK 31억(5억 6,000만 달러) 정도로서 덴마크 수입시장 점유율이 약 0.6% 정도이다.

한국상품 중에서 수입시장 점유율이 높은 품목은 자동차와 전기.전자 품목으로 자동차가 10% 내외, 핸드폰이 약 13%~14%, 컴퓨터 모니터 및 평면 TV가 6%~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일부 특수한 품목 경우는 자동차나 전기. 전자 제품보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것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품목들은 아직도 수입시장 점유율이 낮은 상황이다.

한국상품에 대한 인지도는 품질 면에서 중국 등 개도국 제품에 비해 우수하나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제품에 비해 떨어지며, 가격은 개도국 제품보다 조금 비싸나 선진국 제품보다는 훨씬 싸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한국산 핸드폰, 평면 TV 등이 최고의 제품 반열에 올라서면서 한국제품 전체의 인지도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

라. 유통구조

덴마크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유통구조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대형 유통체인이나 매장을 가지고 있는 도매상의 경우 대부분 본인들이 직접 수입을 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고 있다. 그 밖에는 도매상이 수입을 하여 소매상에게 공급하고, 소매상이 일반 소비자

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3단계 구조가 가장 일반적이다. 자동차를 예를 들면 독점 수입상이 자동차를 수입하여 딜러에게 공급하고 딜러가 일반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그러한 구조이다.

마. 수출유망품목

1) 가정용전자

덴마크 경제가 하강국면으로 들어서면서 전반적으로 개인소비가 위축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시장 진입 여지가 많은 고기능의 전자제품은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 한국산 제품에 대한 평판이 좋기 때문에 수출이 유망하다.

구체적인 품목으로는 평면 TV, 디지털 카메라, MP3, 자동차 네비게이션 등을 들 수 있다.

2) 보안제품

9.11테러, 런던 폭발물 사건에 이어 모하메드 만평 사건 등 덴마크와 중동국가간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보안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DVR, CCTV등 보안관련제품의 수출이 유망하다.

3) 자동차부품

신차 판매가 2004년 이래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국산차 시장점유율도 매년 8-10%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산차가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지 7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부품교체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타이어를 비롯한 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덴마크 대부분 수입상들이 순정부품을 수입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철강제품

2007년까지 호황을 보였던 건설경기가 다소 정체되고 있지만 중국산 등 저가 개도국 철강제품의 반덤핑 관세 부과로 국산제품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5) TV 셋톱박스

2006년 3월부터 DR1, DR2, TV2가 Digital Terrestrial Broadcasting을 실시함에 따라 이 방송 수신을 위한 셋톱박스(DVB-T) 수요가 새로 나타났으며, LCD및 플라즈마 TV 등 평면 TV판매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신규로 TV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대부분 보다 선명한 화면을 즐기기 위해 디지털 방송 시청을 위한 TV 셋톱박스를 구입하고 있고, 2009년까지 TV 방송을 아날로그에서 모두 디지털로 전환할 계획임에 따라 TV 셋톱박스 수요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덴마크에서 사용되는 셋톱박스는 Viaccess encryption이 지원되어야 한다.

2. 물가정보

가. 코펜하겐(덴마크) 기초 통계자료

	2003	2004	2005	2006	2007
명목 1인당 GDP(USD)	39,209	44,742	47,434	50,625	57,021
명목 물가상승률(%)	2.0	1.1	1.8	1.8	1.7
명목 임금상승률(%)	4.6	3.9	4.0	4.4	6.3
미화 대비 연평균 환율	6.59	5.99	6.00	5.95	5.45

나. 코펜하겐(덴마크) 물가정보(1 USD = 4.9728 DKK)

번호	항목	가격(USD)			
1. 식재료			7. 채소		
1.1	쌀 1kg	3.81	7.1	양배추 1kg	3.42
1.2	밀가루 1kg	1.36	7.2	양상추 1kg	3.02
1.3	백설탕 1kg	2.00	7.3	당근 1kg	1.21
1.4	스파게티 면(엔젤헤어) 1kg	2.80	7.4	양송이 버섯 1kg	6.84
1.5	계란 12개	6.63	7.5	감자 2kg	1.06
1.6	햄 1kg	13.47	7.6	양파 1kg	2.41
1.7	베이컨 1kg	3.21	7.7	토마토 1kg	3.02
2. 육류			8. 과자 및 당류식품		
2.1	쇠고기 등심 1kg	36.14	8.1	스낵과자 130g	-
2.2	쇠고기 안심 1kg	50.17	8.2	초콜릿 100g	-
2.3	돼지고기 목살 1kg	-	8.3	씨리얼(콘플레이크) 375g	5.22
2.4	돼지고기 등심 1kg	20.11	9. 음료		
2.5	닭고기 가슴살 1kg	16.08	9.1	탄산음료 250ml 캔 6팩	9.05
3. 어패류			9.2	생수 1L	2.61
3.1	냉동새우(중간 크기) 1kg	16.07	9.3	오렌지주스(100%) 1L	2.81
3.2	대합조개 1kg	8.04	9.4	아메리카노 커피(전문점)	5.03
3.3	연어(생) 1kg	22.10	9.5	카페라떼 커피(전문점)	6.44
3.4	냉동참치 1kg	8.03	9.6	인스턴트 커피 125g	9.84
4. 낙농품			9.7	Ground 커피 500g	5.62
4.1	우유 500ml	1.51	9.8	홍차 티백 25bags	3.41
4.2	요거트 150g	2.81	9.9	코코아 250g	2.81
4.3	치즈(슬라이스) 500g	12.05	10. 주류		
4.4	버터 500g	2.60	10.1	맥주 355ml 캔 6팩	8.03
4.5	마가린 500g	2.31	10.2	스카치 위스키(750ml) 1병	98.54
4.6	바닐라 아이스크림 473ml	5.63	10.3	와인 750ml	-
5. 유지			11. 담배		
5.1	식용유 1L	2.20	11.1	담배 1갑	6.54
5.2	올리브오일 1L	8.04	12. 패스트푸드		
6. 과일			12.1	햄버거 1개	5.78
6.1	사과 1kg	5.03	12.2	치킨 런치세트 1개	10.26
6.2	오렌지 1kg	4.02	12.3	치즈피자 라지 1판	8.45
6.3	레몬 1kg	3.82	13. 잡화		
6.4	바나나 1kg	2.41	13.1	치약 150g 1개	5.62
			13.2	샴푸 400ml	5.18

13.3	칫솔 1 개	2.98	17.11	자동차보험료 임의(2,000cc 신차)	2,815.32
13.4	화장비누 1 개	-	17.12	엔진 오일 1 회 교체 비용	201.09
13.5	면도기 1 개	20.10	18. 교통비		
13.6	전기 면도기	196.87	18.1	도심 1 시간 주차료	5.03
13.7	건전지 AA size 4 개 1 세트	8.03	18.2	지하철 기본요금(1 구간)	4.02
13.8	미용용 화장지 1 통	3.01	18.3	시내버스 기본요금	4.02
13.9	화장실 롤 티슈 12 롤	10.04	18.4	택시 기본요금	6.44
13.10	세탁용 세제 3L	18.69	18.5	택시 1km 당 추가요금	2.51
13.11	섬유 유연제 1L	3.81	18.6	철도이용료(100km)	22.32
13.12	주방용 세제 750ml	3.01	19. 통신이용료		
13.13	살충제(스프레이 식) 330g	19.90	19.1	전화 개통비 1 회선	191.04
13.14	전구 60W 2 개(백열등)	4.01	19.2	전화 사용료 월 기본요금	-
14. 의류 및 신발			19.3	전화요금(시내) 3 분	0.03
14.1	남자정장	1,709.30	19.4	국제전화 3 분	6.94
14.2	여자정장	683.72	19.5	휴대전화 개통비	무료
14.3	여성핸드백	1,578.59	19.6	휴대전화 사용료 월 표준 1 분	0.14
14.4	아동복	-	19.7	인터넷 가설비(최소 DSL)	무료
14.5	청바지	140.77	19.8	인터넷 월 사용료(최소 DSL)	38.01
14.6	남자코트	1,106.02	19.9	국내우편 일반편지 1 통	1.11
14.7	여자코트	1,608.55	19.10	국제우편 일반편지 1 통 (현지~서울)	1.76
14.8	티셔츠	160.88	19.11	특급우편 1kg 이하(현지~서울)	241.31
14.9	신사화	401.99	20. 주택환경 및 공공요금		
14.10	숙녀화	412.24	20.1	아파트 월 임차비용 150 m ²	3,016.41
14.11	드라이클리닝(정장 한 벌)	40.22	20.2	단독주택 월 임차비용 150 m ²	6,032.82
15. 가구			20.3	중개수수료 월 임차료의 % (단독주택)	100%
15.1	소파 3 인용(패브릭)	301.64	20.4	임차보증금 월 임차료의 % (단독주택)	300%
15.2	침대 퀸 사이즈 매트리스	361.97	20.5	가정용 전기요금 kWh	0.37
16. 의료비			20.6	가정용 가스요금 m ³	1.73
16.1	의료보험료 4 인 가족 1 년	7,239.38	20.7	가정용 수도요금 m ³	8.60
16.2	병원진료비(의료보험 X)	261.42	20.8	케이블 TV 1 달(기본)	30.97
16.3	병원진료비(의료보험 O)	무료	21. 가전제품		
16.4	진통제 10 정	4.02	21.1	LCD TV 40 인치	3,418.40
16.5	해열제 100 정	16.97	21.2	DVD Player 범용형	80.24
16.6	흉부 x-ray 비용 1 회	191.04	21.3	냉장고 600 리터급	1,005.27
16.7	치과 방문 1 회(스켈링 1 회)	54.50	21.4	세탁기 10kg(드럼형)	965.25
16.8	제왕절개수술	1,398.41	21.5	전자레인지 20 리터급	291.59
17. 자동차 및 차량유지			21.6	에어컨	804.17
17.1	경승용차 900~1,299cc	25,136.74	21.7	토스터기 1 개	60.33
17.2	소형승용차 1,300~1,799cc	40,218.79	21.8	식기세척기 24 인치(폭)	804.17
17.3	중형승용차 1,800~2,499cc	60,328.19	21.9	데스크탑 본체	1,106.02
17.4	대형승용차 2,500~3,500cc	80,437.58	21.10	노트북	1,307.11
17.5	초대형 3,500cc 이상	160,875.16	21.11	컴퓨터 프린터기	904.92
17.6	무연휘발유 1L	2.07	22. 문화서비스 및 도서		
17.7	LPG(단위부피당)	-	22.1	복사용지 1 권 250 매 (A4 또는 Letter Size)	3.62
17.8	경유 1L	1.99			
17.9	자동차 등록비(2,000cc 신차)	차 가격의 180%			
17.10	자동차보험료 의무(2,000cc 신차)	1,608.75			

22.2	개봉극장 입장료 1 회(성인)	17.09	30. 노무환경					
22.3	DVD 타이틀 1 개(신작 기준)	40.22	30.1	주당 법정근무시간	없음			
22.4	공연 best seat (유지컬, 대형극장 기준)	70.38	30.2	출산휴가일수	50 주			
22.5	도서 1 권(신작 소설)	36.00	30.3	연간 국경일수	13 일			
22.6	CD 앨범 1 장 (대중음악 신작 앨범 기준)	30.16	30.4	토요일휴무제	시행			
22.7	해당국 유력 일간신문 1년 구독료	823.48	* 비교					
23. 교육								
23.1	유치원 수업료 1 년(사립)	3,740.35				1.7	375g	
23.2	초등학교 수업료 1 년(사립)	1,713.32				2.5	800g	
23.3	중학교 수업료 1 년(사립)	1,713.32				3.3	냉동	
23.4	고등학교 수업료 1 년(사립)	2,895.75				3.4	300g	
23.5	국공립 대학교	무료				4.4	250g	
23.6	사립 대학교	2,895.75				4.6	1L	
23.7	전문대학	0.00				6.1	12 개	
23.8	외국인 학교 초등 수업료 1 년	14,880.95				6.2	10 개	
23.9	외국인 학교 중등 수업료 1 년	15,685.33				6.3	3 개	
23.10	외국인 학교 고등 수업료 1 년	19,103.93				6.4	7 개	
24. 외식 및 숙박						7.1	1 개	
24.1	패밀리레스토랑 4 인	241.31				7.2	1 개	
24.2	특급 호텔(5성급) 1 박	360.96				7.7	6 개	
24.3	중급 호텔(3성급) 1 박	260.42				9.6	200g	
24.4	특급 호텔(5성급) 조식	32.18				9.8	20bags	
24.5	중급 호텔(3성급) 조식	22.12				13.2	250ml	
25. 스포츠						14.2	유사제품	
25.1	골프장 그린피(퍼블릭)	70.38				14.3	유사제품	
25.2	골프공 1 다스(12 개)	50.27				14.9	유사제품	
25.3	피트니스 클럽 1년 이용료	723.94	14.10	유사제품				
26. 임금			16.2	외국인 기준. 덴마크 국민 무료				
26.1	사무직 일반 초임(대졸)	6,334.46	16.4	12 정				
26.2	사무직 비서 초임(대졸)	6,133.37	16.8	덴마크 국민 무료				
26.3	생산직 일반 초임(학력 무관)	5,530.08	19.3	분당 요금				
26.4	가정부 시간당 임금(주중)	33.18	19.6	분당 요금				
26.5	베이비시터 시간당 임금(주중)	22.12	22.1	500 매 기준				
27. 이미용 서비스			23.5	교육비 무료				
27.1	여성 헤어컷 1 회	80.44	23.8	등록비 \$4525.425 별도				
27.2	남성 헤어컷 1 회	50.27	23.9	등록비 \$4525.425 별도				
28. 화장품			23.10	등록비 \$4525.425 별도				
28.1	바디로션	9.04	28.1	유사제품(200 ml)				
28.2	영양크림	100.35	28.2	유사제품(50 ml)				
28.3	스킨로션	85.46	30.1	통상 37 시간으로 노사 협의				
28.4	밀크로션	-						
29. 관공서 요금								
29.1	여권 발급 비용	120.66						
29.2	신규자동차운전면허증 발급 비용	116.63						

3. 바이어 발굴

가. 각종 협회를 이용하는 방법

덴마크에는 각 제품 또는 산업별 협회가 잘 발달되어 있어 협회를 통해 관련 제품이나 산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덴마크 협회에 대한 연락 정보는 www.branchelink.dk에 소개되어 있는데 건설(Byggeri), 에너지 및 환경(Energi og miljø), 금융 및 보험(Finans og forsikring), 소비자재 (Forbruger produkter), 식품(Fødevarer), 산업재(Industriprodukter), 농수산물(Jordbrug og fiskeri), 문화 및 미디어(Kultur og medier), 공공재(Ofentlig), 서비스 및 IT(Service og IT), 건강(Sundhed), 운송(Transport) 등으로 산업을 분류하여 각 산업별 제품에 대한 협회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다.

나. 전시회를 통한 바이어 발굴

덴마크 바이어들은 독일 등 인근 유럽국가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많이 참관을 하는 편이다. 따라서 유럽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거나 참가 기업의 디렉터리를 통해 적합한 거래 업체를 찾는 것은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한편, 덴마크에서 개최되는 유명한 전시회로는 코펜하겐 국제 패션전(CIFF), 허닝 산업전(HI), 허닝 농업박람회(Agromek) 등이 있으며 덴마크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정보는 KOTRA 코펜하겐 무역관 홈페이지(www.kotra.or.kr/copenhagen) 전시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덴마크 최대의 전시장인 Bella Center 홈페이지(www.bellacenter.dk) 내 전시캘린더를 통해서도 주요 전시회 일정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다.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인터넷을 통해 덴마크 기업을 발굴하고 거래 알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로는 아래의 두 가지가 있다.

- Danex Trade Leads Bulletin (www.danex-exm.dk/bboard.html): 전세계 주요 거래 알선 사이트와 연계되어 있으며 오피 등록 서비스를 제공
- Danish Exporters (www.danishexporters.dk): 덴마크의 수출업체 리스트를 제공

이외에도 유럽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European Business Directory (www.europages.com)에는 약 30여 개 유럽국가들의 업체정보와 각종 오피정보가 제공되므로 참고해 볼 만하다.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가. 비즈니스 에티켓

1) 비즈니스 언어

덴마크인의 70%가 영어를 구사하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영어를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언어로써 영어를 사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2) 복장

덴마크 사람들은 복장에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복장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덴마크 사람들도 정장을 차려 입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는 정장차림이 좋으며, 일반적인 상담 때에도 가급적 정장 차림이 좋으나 불가피 할 경우는 아주 예의에 어긋나지 않은 차림이면 된다.

3) 약속

덴마크는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덴마크 기업들은 가능한 인력을 절감하려 한다. 따라서 구성원 각각이 매우 바쁘며, 특히 회사 고위층의 경우 더욱 바쁘다. 따라서 상담 약속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주 전에 접촉해야 한다.

일단 상담 약속이 잡히면 상담약속을 어긴 경우는 많지 않으나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2~3일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덴마크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약속을 잘 지키기 때문에 상대방도 상담 약속시간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상담이 잡히면 지켜야 하며, 불가피하게 상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는 반드시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한다.

상담시간은 덴마크 사람들의 근무시간이 오전 8:30에서 4:00사이이기 때문에 가급적 퇴근시간인 오후 4시반 이전에 상담을 마치는 것이 좋다. 이는 맞벌이 부부가 많은 덴마크의 특성상 육아 및 가정 문제를 부부가 서로 분담하여 돕기 때문이다.

4) 선물

덴마크 사람들은 선물을 주고 받는데 익숙해 있다. 예를 들면 상대방 집에 초대 받았을 경우나 또는 기념식 등에 초청 받았을 경우는 반드시 조그만 선물을 준비한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에는 가족, 친구 사이에 선물을 준비하여 주고 받는다.

따라서 상담 때에는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생일, 크리스마스 등에 축하카드나 조그만 선물을 주는 것도 비즈니스에 매우 도움이 된다. 비즈니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념일을 잊지 않고 챙겨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선물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좋으며, 선물의 종류로는 한국 전통 수공예품 등 한국적인 것이 좋다.

5) 인사

인사는 보통 서양식으로 하면 된다. 밝게 웃으며, 인사말과 함께 악수를 하는 방식이다. 그 외 아주 친한 경우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포옹과 함께 볼을 부딪치며 반가움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다.

6) 식사

덴마크 사람들은 점심시간이 30분으로 짧기 때문에 점심보다는 저녁식사를 초대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점심 식사는 보통 간단하게 하며, 저녁식사는 격식을 갖추어서 한다. 따라서 식사 초대는 저녁식사로 하는 것이 좋다.

식당은 양식당이 무난하나 한국음식도 나쁘지 않다. 덴마크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국음식으로는 불고기, 갈비 등 소고기나 돼지고기 구이를 좋아한다. 김치는 매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괜찮으나 매운 것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은 권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나. 문화적 금기사항

특별히 문화적 금기사항은 없으나 덴마크 사람들의 경우 여왕과 왕실을 존경하며, 왕실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여왕이나 왕실에 대한 나쁜 이야기는 삼가 해야 한다.

다. 바이어와의 연락

일반적으로 바이어와 연락을 취하는 방법은 일반 우편, e-mail, 팩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팩스의 경우는 종종 담당자에게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며 전화는 초기에 담당자를 찾을 때나 연락이 한두 번 오고 간 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잘 모르는 업체로부터의 전화 연락은 반감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메일을 보낼 때는 한국어가 들어가거나 스팸 메일로 취급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Active X나 별도의 다운로드를 요하는 메일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 또한 hotmail 등의 메일 계정 보다는 회사 메일 계정을 통해 메일을 보내는 것이 전문적으로 보인다.

바이어에게 연락을 취할 때는 다음의 사항들을 명확히 해야 한다.

- 연락을 취하는 목적
- 업체 및 제품에 대한 소개: 영문 홈페이지가 있을 경우 효과적이며 일반적인 소개나 스팸성 메일 보다는 해당 업체에 맞춤형 내용이 필요
- 한국 업체 담당자의 주소, 전화, 팩스 등 연락처

라. 상담 시 유의사항

상담에 들어가서 바로 비즈니스 이야기부터 시작하기 보다는 날씨, 덴마크에 대한 인상 등 비즈니스 이외의 가벼운 화제로 분위기를 환기시킨 후 상담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웃음을 잃지 않는 자세가 상담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된다.

덴마크의 인구가 적다고 하여 작은 시장으로 보아서는 안되고, 노르웨이,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3 개국을 하나의 상권으로 보아야 한다. 상당수 바이어들은 스칸디나비아 전체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독점 에이전트 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덴마크를 통해 스칸디나비아 시장을 공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바이어와의 연락 시 구매 수량에 따른 가격 차이 등 일반적인 거래 가격 수준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으며 가격 수준을 처음부터 너무 높게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초기에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한데 덴마크 바이어들은 처음에 제시된 가격에 따라 거래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협상을 위한 가격 폭은 10% 내에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제방법은 신축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초기 거래 때에는 바이어에 대해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L/C 베이스로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신뢰가 구축되면 바이어의 입장에

서 거래조건을 신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L/C 개설에는 은행수수료가 많이 들고, 목돈이 잠기기 때문에 L/C 조건의 거래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덴마크 바이어들은 초기에 소량 주문을 통해 시장성 테스트, 품질 및 납기 기한 이행 여부 등 기본 요소들을 점검하고 신뢰가 쌓일 경우 거래 규모를 늘려가기 때문에 초기의 소량 주문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구매 절차는 일반적으로 초기 접촉 → 테스트 및 거래에 대한 협상단계 → 테스트를 위한 소량 주문 → 신뢰 구축 단계 → 대량 주문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통상 초기 접촉부터 거래가 성사될 때까지는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된다.

비즈니스 미팅 시에는 상대방의 의견을 관심 있게 청취하며 상담 중 바로 대답을 해줄 수 없는 경우에는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는 것이 좋다.

겉모양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아주 대기업이 아니면 대부분 회사의 사장도 운전을 직접하며, 커피도 직접 대접한다. 한 한국업체가 그 동안 전화나 팩스, 이메일로 교신하다 덴마크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덴마크 업체 측에서 공항 영접을 나왔었다. 한국 업체는 공항 영접 나온 사람이 직위가 낮은 줄 알고 함부로 하였는데 나중에 상담장에서 보니 공항 영접 나온 사람이 사장이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마.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덴마크의 경우 제품이 복잡하지 않고, 물량이 매우 크지 않은 경우는 쌍방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거래조건만 합의되면 거래를 하게 된다.

그러나 독점 판매권을 부여할 경우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아래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독점 판매지역과 관련하여 덴마크 바이어는 스웨덴,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3 개국을 하나의 상권으로 생각하고 스칸디나비아 국가 전체의 독점 에이전트 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에 특별한 바이어가 없는 경우 이렇게 해도 무방하나 가능하면 거래를 일단 한번 해보고 독점권을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독점권을 주기로 결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바이어가 독점판매권만 보유하고 마케팅을 잘 못할 경우 다른 좋은 바이어가 나타나도 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간 최소 주문수량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그리고 능력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독점 판매권한의 기한을 너무 길게 설정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1년 정도로 설정하고 만족할 경우 갱신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금결제, 딜리버리, 품질 조건 등 의무와 권리가 수반되는 조항은 가능한 명확하게 하여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구실을 주지 말아야 한다.

분쟁해결 조항에서는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이것이 실패하였을 경우 가능한 덴마크 상사중재기관이나 덴마크 법원의 판정을 따르도록 하기 보다는 대한 상사

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국제 상사 중재원의 판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계약서는 비용이 들더라도 법률지식이 풍부한 전문인의 법률 자문을 받아 계약서에 불리한 조항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무역,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덴마크는 비즈니스 환경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무역 및 투자 진출 시 제도나 법규상의 애로사항은 특별히 없다. 다만 문화 및 생활방식의 차이에 따라 우리가 어렵게 느끼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덴마크 바이어의 경우 대체적으로 회신이 느리기 때문에 많은 인내를 요구한다. 덴마크는 세계적으로 인건비가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하기 때문에 인력이 충분하지 못하고, 일년 휴가가 5~6 주나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바쁘다. 따라서 아주 급하고, 충분히 이득이 되는 경우가 아니면 즉각 회신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끈기 있게 접촉해야 한다.

덴마크 사람들의 일 처리는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느린 편이나 대신 우리보다 꼼꼼한 편이다. 따라서 빨리 처리하는데 익숙한 우리에게서 잘 이해되지 않은 면이 있으나 이러한 경향을 이해하고 들어가야 한다.

의사결정이 상당히 보수적이다. 따라서 한번 거래를 하면 장기간 거래를 할 수 있는 반면 처음 거래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거래하고 있는 공급업체보다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한 공급업체 변경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초기 진출이 쉽지 않다.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가. 수출 성공 사례: 덴마크 DIY 공구 유통 체인 진출 사례

- 회 사 명: 태흥이기공업사(주)
- 주 업 종: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
- 홈페이지: www.tae-heung.com

태흥이기공업사는 과수원이나 정원, 산림용 톱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이다. 덴마크 시장 진출을 위해 사전 시장 조사를 진행하면서 낙농업이 발달되어 있고 DIY 문화가 잘 정착되어 있는 덴마크의 시장 여건은 태흥이기공업사가 생산하는 우수한 품질의 톱과 잘 맞아 떨어져 충분한 시장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었다.

문제는 유통채널이었다. 어떤 유통 경로를 통하여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덴마크 내에 많은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건축공구 DIY 유통매장을 주 타깃으로 선정하였다. DIY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어 정원관리를 포함한 각종 가사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덴마크인의 특성상 각종 공구는 생활의 필수품으로 여겨지고 있고 다양한 공구를 한꺼번에 구매 할 수 있는 대형 유통점은 어렵지만 가장 효과적인 시장 공략 대상이었다.

사전에 매장을 방문하여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살펴본 뒤 해당 제품을 담당하고 있는 구매 담당자를 파악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브로슈어, 샘플 등 기업과 제품을 잘 소개 할 수 있는 자료들을 동원하여 구매담당자의 방문을 계속 두드렸다. 까다로운 샘플 테스트 등 구매 담당자의 수준을 만족시키고 마침내 어렵다는 유통체인점과 첫 거래가 성사될 수 있었다.

태흥이공업사의 덴마크 시장 진출은 어렵고 까다롭지만 품질과 가격 수준을 만족시키면서 유통매장에 진출함으로써 빠르고 효과적으로 자사 제품을 덴마크에 판매 할 수 있었던 성공 사례라고 평가된다.

나. 투자 성공사례: 한국 유산균의 유럽 시장 진출

- 회 사 명: 켈바이오텍
- 주 업 종: 유산균원말, 분말제품, 기타 낙농제품 제조
- 홈페이지: www.cellbiotech.com
- 현지법인명: Cell Biotech Europe A/S

지사나 연락사무소의 형태가 아닌 현지 법인으로 덴마크에 투자한 기업은 켈바이오텍사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켈바이오텍은 유산균 전문기업으로 유산균이 사람 몸 속에 들어가 위와 장까지 손실 없이 이동하도록 하는 `유산균 이중코팅`기술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하였으며 특허를 받은 유산균 원말을 수출하여 2006년도에 300만 달러 수출탑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켈바이오텍사는 2006년 9월 유럽시장 수출 및 R&D 공동 연구를 위해 덴마크에 “켈바이오텍 유럽”을 설립하였는데 자본금 출자는 켈바이오텍이 90.9%(9억7000만원), 나머지 10%는 현지 생명공학 마케팅 전문가들이 투자하였다.

덴마크의 제약원료 최대 공급사인 Broste사 DSM사 등에 유산균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유럽 3개국과 공동 R&D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켈바이오텍의 유럽 내 활동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동사의 정명준 대표는 “덴마크는 바이오산업의 선두주자로서 우리 나라와 상호협력 시 다양한 기술이 교류돼 상당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덴마크와의 성공적인 협업 가능성에 대해 평가한바 있다.

기능성 식품원료 부문에 국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켈바이오텍은 바이오 R&D 분야는 매우 발달하였지만 원료물질이나 기능성 식품분야에서 취약한 덴마크에서 성공적인 투자 파트너로 성장 할 것이다.

7. 이주정착 가이드

가. 집 구하기

외국인의 주택구입 및 임차의 경우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관계로 부동산업자를 접촉하여 주택을 물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코펜하겐의 임대주택은 공급이 부족한 상태여서 최소 2-3개월 전부터 물색하지 않으면 현지에 도착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주택임차 시에는 3개월의 임차료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정착금을 준비해야 한다.

임차주택의 경우 퇴거 시 원상 복구를 해 놓아야 하는데 보통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원상 복구 관련 비용을 청구하며, 심한 경우 3개월의 임차료에 해당하는 보증금으로도 모자라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시 원상 복구비용 지불관련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입주 전 주택에 하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를 통해 가격대 및 집 구조, 위치 등에 대해 사전 지식을 얻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이러한 사이트로는 www.scandiahousing.dk(영문제공), www.bolig1.dk, www.boligportal.dk 등이 있다.

나. 행정절차

주택을 구하고 나면 Kommune에 가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외국인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여권, 외국인 거주허가증(주한 덴마크대사관 발급), 결혼증명서, 자녀출생증명서 등이며 본인 및 가족 모두가 Kommune 관계자와 면담이 필요하다.

상기와 같은 절차를 거치면 Kommune에서 CPR 카드를 발급하여 주며 CPR 카드 발급과 동시에 의료보험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의료보험증은 신청 후 6주 정도면 발급 받을 수 있다.

다. 구좌 개설

CPR 카드가 없는 단기 체류자의 경우에는 여권과 본국 주소만으로 은행구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CPR 카드가 있는 사람은 여권, CPR 카드, 현주소로 구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은행구좌 개설 시 달러 구좌와 크로나 구좌를 동시에 개설할 수 있다. 크로나 구좌 개설 시 Dan Card와 VISA 겸용 카드를 신청하는 것이 물품대금 지불 및 제세공과금 납부 시 유리하다.

라. 전화신청

덴마크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전화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전화라인을 인수할 경우에는 DKK 950, 신규설치의 경우에는 DKK 1,650을 납부해야 하며, Mobile phone 가입 시에는 DKK 250을 납부해야 하고, 전화세는 3개월(분기) 단위로 청구된다. 참고로 현지 거주자가 한국에 Collect call로 전화를 희망할 경우에는 (8001+ 0382)를 누르면 한국어 안내가 나온다.

마. 비품 구입

현지 상점들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영업을 한다. 토요일은 영업을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오후 2시까지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 일요일은 12월과 매월 첫번째 일요일을 제외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다.

주요 상점 리스트는 아래와 같다.

- NETTO: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물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주택지에 가까운 곳에 매장을 많이 갖고 있어 이용에 편리하다.
- INCO: 이용 카드가 있어야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곳으로 각종 육류, 생선, 채소류, 부엌 음식물 등이 주종을 이루는 도매상가이다.
- METRO: 일반 가정용품, 가전제품 및 부엌음식물 등의 대형매장으로 이용되며 카드가 있어야 출입이 가능하다
- 기타 IRMA, ISO, PRIMA, GOVA, Bilka 등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 가구류는 IKEA, ILVA, IDEA, 개인가구상점 등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매년 1회 Bella Center에서 개최되는 가구전시회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바. 자동차 구입

덴마크는 자동차 등록세가 수입가격의 180%이기 때문에 자동차 구입가격이 우리나라의 거의 세배에 달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정착금을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자동차를 구입하는 방법은 신차의 경우 우선 웹사이트를 통해 여러 모델의 자동차 가격을 비교하여 적절한 차종을 결정하고, 차종이 결정되면 관련 자동차 딜러를 접촉하여 구입하면 된다.

중고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자동차 딜러를 접촉해서 구입하는 것이 손쉬운 방법이나 가격이 약간 비싸다는 것이 흠이다. 광고를 통해 직접 개인으로부터 구입하면 딜러로부터 구입할 때 보다 가격은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반드시 자동차 정비소에서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온라인을 통해 중고차를 거래하는 www.bilzonen.dk, www.biltorvet.dk 등의 사이트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사. 교육

만 7세 이상의 아동에게는 9년간의 초등교육이 의무적이며 의무교육 이후 3년간의 고등학교(인문계 및 실업계) 과정 및 대학과정의 취학이 가능하다. 대학까지의 모든 학비는 국가에서 보조하고 있다. 현지 거주비자 획득 후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덴마크 학교 또는 Int'l School중 선택이 가능하며 덴마크 학교의 경우 수업료가 전액 면제되며 모든 교육은 덴마크어로 진행된다.

3년 정도 한시적 체류자의 자녀들은 대부분 INT'L SCHOOL에 다니고 있으며 교육은 영어로 진행된다. INT'L SCHOOL 입학은 덴마크에서 거주비자를 (일반인의 경우 CPR CARD, 외교관의 경우 외무성 발급 ID CARD) 획득한 후 간단한 테스트를 거쳐 입학하게 된다.

Copenhagen International School의 경우 처음 입학할 때는 입학 서류 제출시 Application Fee로 DKK 2,500을 내야하며, 등록금으로 DKK 22,500을 납부해야 한다. 그 이후에는 수업료만 내면 되는데 2008/2009학년도 연간 수업료는 아래와 같다.

- Pre-Kindergarten(K1, K2): DKK100,000
- Kindergarten 3: DKK80,000
- 1~5학년(Primary School): DKK80,000

- 6~8학년(Middle School): DKK85,000
- 9학년(Middle School): DKK90,000
- 10학년(Senior School): DKK102,000
- 11~12학년(Senior School): DKK114,000

인터내셔널 스쿨

학교명	주 소	전 화	팩 스	E-Mail
Copenhagen International School (CIS)	Hellerupvej 22-26, 2900 Hellerup	(+45)3946 3300	(+45)3961 2230	cis@cisdk.dk

이 밖에도 코펜하겐 인근에 영국계 인터내셔널스쿨이 있으며, 학제는 상기 미국계 인터내셔널 스쿨과 다소 상이하다. 오후스 등 덴마크 내 여타 대도시에도 인터내셔널 스쿨이 있어 활용이 가능하다.

아. 생필품 조달

생필품은 주요 슈퍼마켓(Fakta, Super Brugsen, Kvickly, NETTO, Fotex, Bilka, ISO, Matas 등)에서 매우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특히 NETTO에서 구입시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자. 한국 식품 조달 여건

덴마크는 인근 독일과 달리 한국 식품점이 없어 인근 함부르크의 한국 식품점에서 조달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계 마켓에서 고추장, 된장, 라면, 참기름, 조미료 등을 판매하고 있어 이전보다 훨씬 한국식품 구입이 편리해졌으나 가격은 한국에 비해 3-5배 정도 비싸고 품질은 썩 좋은 편이 아니다.

채소와 과일 등은 터키인,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운영하는 마켓을 이용하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며, 김치를 담기 위한 배추, 무 등도 구입이 가능하다.

차. 병원이용 및 의약품 구입

덴마크의 경우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CPR 카드를 받게 되면 치과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 서비스는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교관 신분을 보유한 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무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병원을 이용하는 절차는 우선 흉닥터를 지정하여 이 의사로부터 1차 진료를 받은 후 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응급 상황일 경우는 바로 종합 병원의 응급실로 가면 된다.

8. 출장가이드

가. 기후

1) 기후 특성

덴마크는 북위 55도 선상에 위치한 북구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겨울에는 멕시코만류의 영향으로 비교적 온화한 편이나 연중 바람이 많고 특히 겨울에는 비와 바람이 많으며 하루에도 여러 번 기후가 변화한다. 2월에는 평균 영하 0.4℃, 7월에는 16.6℃이다. 연평균 강수량은 664mm 정도이며, 비가 오는 날은 연간 약 160일 정도이다.

2) 주요도시의 기후 및 강수량

주요 도시 월평균 기온

(단위: °C)

도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코펜하겐	0.1	-0.1	2.0	5.7	10.9	15.1	16.4	16.3	13.2	9.5	5.1	1.8
오후스	0.2	0.1	2.3	5.8	10.8	14.1	16.2	15.9	12.1	8.7	4.4	1.8
오덴세	0.3	0.3	2.6	6.2	11.4	15.0	16.1	16.1	13.0	9.4	5.0	1.9
알보그	-0.4	-0.4	1.9	5.6	10.7	14.4	15.7	15.5	12.3	8.9	4.3	1.3

주: 상기 수치는 1961-1990년간의 평균수치임

자료: Danish Metrological Institute

주요도시 월평균 강수량

(단위: mm)

도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코펜하겐	46	30	39	39	42	52	68	64	60	56	61	56
오후스	60	41	48	42	50	55	67	65	72	77	80	68
오덴세	52	36	41	38	46	53	62	61	60	62	69	58
알보그	54	35	44	38	49	54	64	67	72	76	75	62

주: 상기 수치는 1961-1990년간의 평균수치임

자료: Danish Metrological Institute

3) 출장 시 추천복장

9월 이후 4월까지의 가을철 및 겨울철에는 비가 자주 오므로 방수용 점퍼 및 우산을 휴대하는 것이 좋다. 특히 11~3월은 본격적인 겨울철로서 보온 및 방수 효과가 좋은 두꺼운 외투가 필요하다. 덴마크의 겨울은 한국의 겨울보다 온화한 편이나 눈보다는 비가 많이 오고, 습기를 동반하여 체감온도가 낮기 때문에 두꺼운 외투나 점퍼가 필요하다.

6~8월(하절기)에는 평균 기온이 16-18℃ 정도인 관계로 우리나라의 늦여름이나 초가을 복장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절기는 건기에 해당하여 습도가 낮아 우리나라처럼 무덥지 않다.

나. 시차/근무시간

1) 시차

EU주요국과 함께 하계 일광 절약 시간제(Daylight saving time) 즉, 서머타임 제도를 시행한다. 서머타임이 시행되는 3월 말부터 10월 말까지는 한국이 7시간 앞서가며 서머타임이 해제되는 10월 말부터 익년 3월 하순까지는 한국이 8시간 앞서간다. 따라서 한국의 24시는 덴마크의 동절기에는 16시, 하절기에는 17시에 해당된다.

2) 서머 타임

서머 타임은 인근 주요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매년 3월 마지막 일요일 새벽2시를 기해 실시되며 (2008년도의 경우 3월 29일부) 10월 마지막 일요일 오전 2시를 기해 해제 (2008년의 경우 10월25일 부)되고 있으나, 반드시 상기 일정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매년의 서머타임 시행 및 종료일을 각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근무시간

일반적인 근무 시간은 09:00-17:00이나 개인별로 변동 근로 시간제가 허용되기 때문에 07:00-15:00까지 근무하는 사람도 많다. 또한 금요일은 주말로 보다 이른 시간인 오후 3시 이전에 퇴근하는 업체도 많다.

4) 업종별 근무 시간

- 공공기관: 월 - 목 09:00 - 17:00 (금 09:00 - 16:00)
- 우 체 국: 월 - 금 10:00 - 17:00 (토 10:00 - 17:00)
- 은 행: 월 - 금 09:30 - 16:00 (목 09:30 - 18:00)
- 백화점 및 대형상점
 - 월: 10:00 - 19:00
 - 화, 수: 10:00 - 18:00
 - 목, 금: 10:00 - 20:00
 - 토: 10:00 - 17:00
- 일반상점: 월 - 금 09:00 - 20:00 (토: 08:00 - 17:00)

한편, 덴마크는 그 동안 주유소나 영세 상점을 제외한 백화점, 할인점, 일반 상점들의 일요일 및 공휴일 영업일수를 연간 8일로 제한했었으나 2005년 7월 1일부터 영업 가능한 일요일과 공휴일을 20일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백화점과 상점들은 매월 첫번째 일요일 과 12월 전체 일요일 그리고 나머지 6일은 본인들이 선택해 영업을 하고 있다.

5) 회계연도

정부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다. 주요단위

구 분		단 위
길 이		센티미터(cm) 미터(m), 킬로미터(km)
무 게		그램(g), 킬로그램(kg), 톤(t)
부 피		입방 센티미터(Cm ³), 입방 미터(m ³), 리터(L)
넓 이		평방 센티미터(cm ²), 평방미터(m ²),
전기	일반가정	50HZ, 220V - 2 Round Plug 형태 - 3 Round plug를 쓰는 경우 가운데 단자는 접지용임
	공장 및 특별용도	50Hz, 380V, 3 Round Plug 형태
기타		모두 EU 규격에 준하고 있다.

라. 출입국/비자

1) 비자 면제 협정

- 한국과 덴마크 간에는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관광객(90일 이내 체류)은 비자 없이도 입국이 가능하다. 그러나 장기체류(취업 및 유학)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 혹은 제3국에서 비자를 발급 받고 입국하여야 한다. 덴마크에서 노동을 할 수 있는 노동 허가권 (Work Permit)은 입국 전 주한 덴마크 대사관을 통해 사증과 함께 신청하여야 하며, 유학생의 취업은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일정 한도를 넘지 않은 파트타임 노동은 가능하다.

2) 비자 발급처

□ THE EMBASSY OF THE KINGDOM OF DENMARK

-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60-199 남송 빌딩 5층
- (전화) - (+82-2) 795-4187
- (팩스) - (+82-2) 796-0986
- (WEB) - www.ambseoul.um.dk
- (휴일) - 토, 일요일, 한국공휴일, 부활절(2006.4.13-17) 연휴, 크리스마스 등
- (Email) - selamb@um.dk
- (근무시간) - 09:00 - 16:30
- (소요비용) - DKK 150
- (구비서류) - 비자신청서, 사진, 입국사유증명서, 결혼증명서(가족 동반 시), 여권
- (비자발급 소요기간) - 4~6주

3) 방역

- 필요 없음.

4) 출입국절차 및 유의사항

- 출입국 시 별도의 유의사항은 없다.
- 출국 시 여권 및 항공권 검사, 보안검사를 거쳐 출국할 수 있다.

- 최근 항공기 탑승 시 보안검사가 강화되어 식칼, 액체류 등은 기내 휴대반입이 금지되며, 짐으로 수화물칸 반입만 가능하다.
- 입국 시에는 여권 제시만으로 입국이 가능하다.

5) 세관 신고

- 휴대품 과다 반입시 세관에 신고토록 되어 있다.
- 18세 이상 성인 1인당 양주 1병, 담배 200개피 이상 휴대 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마. 환율/ 환전

1) 통화 단위 및 종류

덴마크의 화폐단위는 Danish Kroner (약어로는 DKK) 이다. 1크로나는 100 Øre(외레)이며 50, 100, 200, 500, 1000 크로나의 지폐가 있다. 동전으로는 1, 2, 5, 10, 20 크로나 및 25, 50 외레의 7종이 있다.

2) 환율 체제

덴마크는 유로화 가입국이 아니지만 1998년 하반기부터 유로화 통화바스켓에 포함시키면서 유로화에 대한 환율을 하루에 2.25%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함으로 사실상 유로화에 연동된 환율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1유로당 7.42~7.44 사이에서 변동되고 있다. 유로화와 같은 추세를 보이는 크로나화의 2007년 평균환율은 1달러당 5.4456 크로나이다.

연도별 평균 환율

연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US1불당DKK	8.3188	7.8812	6.5899	5.9919	6.0034	5.9470	5.4456

자료: 덴마크 중앙은행

3) 환전

덴마크 내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막론하고 자유로운 외환의 환전이 가능하다. 단, 총 환전 금액이 6만 크로나를 초과하는 경우 환전은행은 동 거래내역을 중앙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공항, 은행 및 시내환전소에서 환전이 가능하며 여행자수표의 경우 건당 수수료가 22 크로나이며, 수수료 한도는 최소 44크로나에서 최대 220크로나이다.

즉 소액 여행자수표 1매를 환전하더라도 44크로나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며, 10매 이상일 경우는 220크로나 를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여행자 수표 지참 시에는 고액권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공항 및 은행에서의 환전이 호텔 및 기타 환전소에서의 환전보다 유리한 환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4) 신용카드 사용

덴마크 내 대부분의 상점이나 음식점에서는 신용카드의 사용이 가능하다.

바. 교통/통신

1) 우리나라와의 교통

□ 항공편

현재 코펜하겐-서울간 직항노선은 없으며 KAL, Air France, Lufthansa, KLM, British Air, Fin Air 등을 이용 파리,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런던, 프라하, 헬싱키 등을 경유하거나 SAS의 도쿄-코펜하겐 혹은 북경-코펜하겐 노선을 이용, 도쿄(나리타공항)나 북경을 경유 코펜하겐에 도착할 수 있다(비행시간은 경유지에 따라 다르나 총 12-14시간 정도 소요됨).

□ 선편

덴마크항구에서 한국으로 직접 운항하는 라인은 없으며, 대부분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이나 독일의 함부르크를 통해 운항하고 있다. 총 소요일수는 약 45일 정도이며 20피트 컨테이너의 경우 덴마크로부터 한국까지 DOOR TO PORT 요금은 약 10,800크로나(약 2,250달러) 정도이나 반대의 경우, 즉 한국에서 덴마크까지의 요금은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다.

2) 공항에서 목적지 가는 방법

공항에서 목적지 가는 방법으로는 택시, 기차(전철), 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택시는 공항에 항상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며, 바가지 요금 우려는 전혀 없다. 공항 이외의 지역에서는 택시를 전화로 부를 수 있으며 노상이나 택시 주차장에서 승차가 가능하다. 택시 합승은 불가능하다. (코펜하겐에서의 택시 Call 전화: 3535 3535, 7025 2525).

택시 서비스 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고 전화로 호출 시 5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으며, 택시 정류장이나 도로에서 빈 택시(FRI 표시)에 승차할 수 있다. 택시 기본요금은 2008년 기준으로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을 경우 DKK 24이며, 전화로 택시를 호출할 경우 DKK 37이고, 1Km 당 11.50크로나가 추가 된다(오후 6시 이후 저녁에는 1Km 당 12.50크로나가 추가되며, 주말 저녁에는 1Km 당 15.80크로나가 추가됨)

기차나 전철(S-tog)을 이용 할 경우 공항 1층의 기차 표지판을 따라가면 지하에 있는 전철 승강장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지하철(Metro)는 공항 2층에서 승강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버스는 공항 건물 앞의 정류장에서 탑승이 가능하다. 전철과 지하철, 버스는 상호 환승이 가능하며 거리에 따라 구간이 정해져 있다. 전철 및 버스 요금은 2구간에 기본요금 20크로나이며, 2구간 10회 사용권 구입 가격은 125크로나이다. 2구간 티켓의 경우 2구간 내에서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환승이 가능하다.

□ 공항에서 코펜하겐 시내 이동

코펜하겐 국제공항은 코펜하겐 시내에서 남쪽으로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택시를 이용할 경우 20분 정도면 도심에 진입할 수 있다. 요금은 약 200크로나로 40달러 정도이다.

코펜하겐 공항에서 전철이나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시내까지의 소요 시간은 10분 내외이며 요금은 편도 30크로나다. 만약 버스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제 2터미널 앞에서 250S를 이용하여 시내로 진입할 수 있는데 코펜하겐 중앙역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30분 내외이며 요금은 30크로나로 기차와 동일하다. (기차와 버스의 환승 가능 함) 한편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경우라면 10회 사용이 가능한 클럽형 티켓을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인데 가격은 2존의 경우 125크로나, 3존의 경우는 165크로나이다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3존임).

3) 기차 이용

기차를 이용하여 지방도시를 가고자 하는 경우 어떤 기차 정류장에서든 가능하다. 덴마크와 덴마크 내 주요 도시를 잇는 열차의 소요시간과 요금은 아래와 같다.

덴마크 내 주요 구간 열차 소요시간 및 운임(2008년 기준)

구분	소요시간	일반석 요금(DKK)	DSB1(DKK)
Copenhagen-Odense	1시간30분	224	336
Copenhagen-Aarhus	3시간	311	467
Copenhagen-Herning	3시간	311	467
Copenhagen-Esbjerg	3시간 15분	311	467
Copenhagen-Frederikshavn	6시간	360	540

기차 여행시 꼭 예약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장거리 여행 일반석의 경우 미리 좌석을 예약해 두는 것이 권장된다. (예약비 20크로나)

이외 덴마크 내 교통과 관련된 정보는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다.

- www.dsb.dk (덴마크 기차)
- www.dsb.dk/s-tog (덴마크 전철)
- www.m.dk (덴마크 지하철)

4) 우편 제도

덴마크에서는 등기, 등기 속달, 항공 우편, EMS, DHL 등 특사 우편 모두가 이용이 가능하다. 일반 항공 우편의 경우 덴마크에서 한국까지의 배달 시간은 통상 일주일 정도 소요되며, DHL 등 특사 우편의 경우는 3일 정도가 걸린다.

우체국을 이용한 편지 및 소포 발송 시 소요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다.

편지 규격, 무게 별 우편 요금(2008)

구분	덴마크 내(DKK)	유럽(DKK)	기타지역(DKK)
규격 23x17츠, 무게 50g	5.50	7.75	8.75
규격 33x23츠, 무게 50g 이하	6.50	11.25	14.50
무게 100g 이하	10.00	16.00	22.50
무게 250g 이하	16.00	26.00	39.00
무게 500g 이하	26.00	43.50	63.50
무게 1,000g 이하	34.00	71.00	106.00

한편 소포발송 요금은 2008년 기준으로 덴마크 내 지역일 경우, 1Kg 이하 70크로나, 5Kg 이하 90크로나, 10Kg 이하 140크로나, 덴마크 외 지역일 경우는 아래의 표와 같다.

구분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등	한국
일반	기본료	DKK165	DKK165
	Kg당 금액	DKK13	DKK39
속달	기본료	DKK165	DKK165
	Kg당 금액	DKK13	DKK71

덴마크에서 외국으로 소포를 보낼 때에는 A: Prioritaire 또는 B: Economique라고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는데, A: Prioritaire는 B: Economique에 비해 요금이 비싸지만 배달 기간이 짧고, B: Economique는 A: Prioritaire 에 비해 요금은 싸지만 배달기간이 길다. 만약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A: Prioritaire로 간주된다. 우편물의 등기 발송을 위해 서는 추가 60크로나의 요금을 내야 한다.

5) 국제통신

덴마크의 통신시장은 국영통신 기업인 TDC의 독점 상태에 있었으나 1996년 7월 1일 덴마크 통신시장의 전면개방으로 경쟁체제로 전환되었다. 2008년에도 여전히 통신망은 TDC가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업체들은 TDC로부터 통신망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무선통신 사업자로는 TDC, Sonofon, Telia Telecom, 3 등 4개사가 있다

□ 덴마크 유선통신망 보유업체

- TDC A/S
 - ADD: Nørregade 21, DK-0900 Copenhagen C
 - TEL: (45) 3343 7777
 - FAX: (45) 3343 7619
 - 홈페이지: www.tdc.dk

□ 덴마크 무선통신 서비스업체

- TDC A/S
 - ADD: Kannikegade 16, 8000 Aarhus C
 - TEL: (45) 8933 7777
 - FAX: (45) 8933 7719
 - 홈페이지: www.tdc.dk
- Sonofon A/S
 - ADD: Skelagervej 9, 9100, Aalborg
 - TEL: (45) 7212 6000
 - FAX: (45) 7212 7070
 - 홈페이지: www.sonofon.dk
- Telia Telecom A/S
 - ADD: Ejby Industrivej 135, 2600, Glostrup
 - TEL: (45) 8831 3131
 - FAX: (45) 8831 3030
 - 홈페이지: www.telia.dk

- 3 (3세대 모바일폰 서비스 제공업체)
 - ADD: Arne Jacobsens Alle 17, 2300, Copenhagen S
 - TEL: (45) 3333 0135
 - FAX: (45) 3333 0155
 - 홈페이지: www.3.dk

□ 통신요금

- 이동전화기: DKK 0.39-1.20/분(계약조건에 따라 약간씩 상이)
- 유선전화기: DKK 0.25/분(유선전화기에 전화할 경우), DKK1.50/분(무선전화기에 전화할 경우)

□ 현지에서 한국으로 통화방법

- 00 + 82 (한국) + 지역코드(예: 서울 2) + 전화번호

또한 현지에서 한국으로 COLLECT-CALL을 이용할 수 있으며 요금은 3분당 5,310원 정도이다(호출번호: 8001-0382). 호텔 룸에서 국제전화 사용료는 일반가정 전화요금의 6배 수준이며 호텔마다 통화료가 상이하다.

6) 국내통신

□ 현지 공중전화 이용법

카드식과 동전식이 혼용되고 있으며, 동전식은 1, 5, 10, 20크로나 동전이 사용 가능하다.

모든 공중전화기에는 사용설명서가 그림으로 알기 쉽게 부착되어 있으며 국제전화 코드는 00이고 시외통화도 시내와 마찬가지로 별도 코드 없이 8자리 전화번호만 누르면 된다(덴마크 내 지역코드가 별도로 없음). 카드는 KIOSK라고 불리는 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7) 인터넷 환경

덴마크는 초고속 통신망 보급률이 한국을 앞지를 정도로 인터넷 통신환경은 좋다. 여행자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투숙호텔에서 이용하는 방법과 인터넷 카페에서 이용하는 방법, Statio 주유소, 맥도날드, Barresso 카페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다.

대부분 호텔에는 각 룸에 인터넷 라인이 있기 때문에 호텔방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대부분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터넷 카페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경우는 시간당 사용료가 30크로나이며, Statio 주유소, 맥도날드, Barresso 카페 매장에서 이용할 경우는 장소마다 가격이 다르나 보통 분당 1크로나 정도이다.

사. 호텔/식당

1) 호텔

□ Radisson SAS Scandinavia Hotel

- ADD: Amager Boulevard 70, 2300, Copenhagen S
- TEL: (45) 3396 5000
- FAX: (45) 3396 5500
- 홈페이지: www.radissonsas.com
- 가격
 - 정상가격: DKK 1,895/Single 및 Double(조식 미포함)
 - KOTRA 할인가격: DKK1,145/ Single 및 Double(조식 미포함)
- * 도심에서 도보로 1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으나 전시장인 Bella Center에 가깝고 코펜하겐에서는 최고급 호텔에 속함

□ MARRIOTT HOTEL

- ADD: Kalvebod brygge 5, 1560, Copenhagen V
- TEL: (45) 88 33 99 00
- FAX: (45) 88 33 99 99
- 홈페이지: www.marriott.dk
- 가격
 - 정상가격: DKK 2,299/Single 및 Double(조식 미포함),
 - KOTRA 할인가격: DKK1,199/Single 및 Double(조식 미포함)
- * 도심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떨어진 해변에 있으며, 코펜하겐에서 가장 고급스럽고 깨끗한 호텔임

□ IMPERIAL HOTEL

- ADD: Vester Farimagsgade 9, 1606, Copenhagen V
- TEL: (45) 3312 8000
- FAX: (45) 3393 8031
- 홈페이지: www.imperialhotel.dk
- 가격
 - 정상가격: DKK 1,740/Single(조식 미포함), DKK2,120/Double(조식 미포함)
 - KOTRA 할인가격: DKK1,230-1,570/Single(조식 미포함), 계절에 따라 변동
- * 도심에서 위치하고 있으며, 고급호텔에 속하나 상기 2개의 호텔과 비교할 때 수준이 떨어지는 편임

□ ADMIRAL HOTEL

- ADD: Toldbodgade 24, 1253, Copenhagen K
- TEL: (45) 3311 8282
- FAX: (45) 3332 5542
- 홈페이지: www.admiralhotel.dk
- 가격: DKK 1,255/SINGLE(조식 미포함), DKK1,550/Double(조식 미포함)
- * 덴마크 여왕이 거주하는 아말리엔 궁에 가깝고, 해변에 위치한 고급호텔임.

□ ASTORIA HOTEL

- ADD: Banegaardspladsen 4, DK-1570, Copenhagen V
- TEL: (45) 3342 9900
- FAX: (45) 3342 9999
- 홈페이지: www.hotelastoria.dk
- 가격: DKK 825-1,395/SINGLE(조식 포함), DKK 1,495/Double(조식 포함)
- * 코펜하겐 중앙역 바로 옆에 있는 호텔로서 중급 호텔에 속함.

□ CITY HOTEL

- ADD: P. Skrams Gade 24, 1054, Copenhagen K
- TEL: (45) 3313 0666
- FAX: (45) 3313 0667
- 홈페이지: www.hotelcity.dk
- 가격
 - 정상가격: DKK 1,200/Single(조식 포함), DKK 1,450/Double(조식 포함)
 - KOTRA 할인가격: DKK 970/Single(조식 포함), DKK 1,170/Double(조식 포함)
- * KOTRA 사무실 바로 근처에 있는 호텔로서 중급에 속하나 Room이 적은 편임.

□ OPERA HOTEL

- ADD: Tordenskjoldsgade 15, 1055, Copenhagen K
- TEL: (45) 3312 1519
- FAX: (45) 3332 1282
- 홈페이지: www.hotelopera.dk
- 가격
 - 정상가격: DKK 1,380/Single(조식 포함), DKK 1,510/Double(조식 포함)
 - KOTRA 할인가격: DKK 660-1,150/Single(조식 포함), 계절에 따라 변동
- * KOTRA 사무실 바로 근처에 있는 호텔로서 중급에 속함.

□ CAB INN City

- ADD: Mitchellsgade 14, DK-1568 Copenhagen C
- Tel: (+45) 33 46 16 16
- Fax: (+45) 33 46 17 17
- Email: city@cabinn.com
- Web: www.cabinn.dk
- 가격
 - Standard room: 1인실 545 DKK, 2인실 665 DKK, 3인실 785 DKK
 - Commodore: 1인실 645 DKK, 2인실 765 DKK
 - Captains Class: 1인실 745 DKK, 2인실 865 DKK
- * 중앙역 근처에 있으며, 코펜하겐 시내에서는 가장 저렴한 가격에 투숙할 수 있는 호텔.
Room이 매우 적은 것이 단점이나 비교적 깨끗한 편임.

□ Copenhagen Strand

- ADD: Havnegade 37 DK-1058 Copenhagen
- Tel: (+45) 33 48 99 00
- Fax: (+45) 33 48 99 01
- Email: copenhagenstrand@arp-hansen.dk
- Web: www.copenhagenstrand.dk
- 가격
 - 정상가격: DKK 1,540/Single(조식 포함), DKK 1,880/Double(조식 포함)
 - KOTRA 할인가격: 싱글 DKK 850-1,390, 더블 DKK 995-1,660 (조식 포함)
 - * KOTRA 사무실 바로 근처에 있는 별 3개 수준의 호텔로서 인터넷 사용 가능

□ Comfort Hotel Østerport

- ADD: Oslo Palds 5, 2100 Copenhagen Ø
- Tel: (+45) 70 12 46 46
- Fax: (+45) 33 12 25 55
- Email: co.osterport@choice.dk
- Web: www.choicehotels.dk/hotels/dk003
- 가격
 - 정상가격: 싱글 DKK 1,395, 더블 DKK 1,595 (계절에 따라 변동, 조식 DKK 95)
 - * 코펜하겐 Østerport역 주변에 있는 호텔로 인어 동상에서 가깝고 교통이 편리

□ 호텔의 종류

- 크로 (KRO):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숙박시설로 옛날 국왕의 지방 행사 때 사용된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도 당시의 독특한 분위기를 갖고 있음
- 고성 호텔(CASTLE HOTEL): 원래 지방영주의 저택을 호텔로 개조한 것으로 수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고전적인 분위기로 인해 많은 인기를 얻고 있음
- 미션 호텔(MISSION HOTEL):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곳으로 외국인 여행자들에게는 숨겨진 명소 같은 곳으로 덴마크의 노부부 등이 주로 이용하며 가격도 저렴한 편임
- 일반 호텔: 호텔은 작고 깨끗하나 요금은 비싼 편임.

2) 식당: 한국 식당

□ Restaurant Korean Palace(비원)

- ADD : Peder Skramsgade 15, 1054 Copenhagen K
- TEL : (45) 3314 9330
- * 코펜하겐 시내에 있으며 저녁 시간만 영업을 하나 사전에 예약할 경우 점심도 가능함.(일요일은 휴업) 불고기, 삼겹살, 김치찌개, 된장찌개 등이 주요 메뉴임.

□ Miga(미가)

- ADD : Gammel Kongevej 33B, 1610 Copenhagen
- TEL : (45) 3323 3667
- * 코펜하겐 시내에 있으며, 점심, 저녁 시간 모두 영업(일요일은 휴업)을 하며 불고기, 삼겹살, 김치찌개, 된장찌개, 비빔밥, 육개장 등 메뉴가 매우 다양함

□ Seoul Restaurant(서울식당)

- ADD : Skjulhøj Alle 8 a 2720 Vanløse
- TEL : (45) 3871 8886
- * 코펜하겐 시내에서 차로 15분 정도 벗어난 곳에 위치, 대부분의 한식을 맛볼 수 있으며, 중식도 일부 가능함.

□ Sakura(벚꽃)

- ADD: Moentergade 22 1116 Copenhagen K
- TEL : (45) 3313 1189
- * 스시, 사시미 등 일식을 주로 하고 있으며, 한식도 일부 있음. 점심, 저녁 가능하며 (일요일은 휴업) 가격은 위 세 곳의 한국 식당보다 비싼 편임.

□ O MO NIM(어머님)

- ADD: GASVORKSVEJ 21
- TEL : (45) 3131 5220
- * 중앙역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재일교포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수~토요일 저녁만 영업하며, 일식과 한식을 겸하고 있음.

3) 식당: 중국 식당

□ CANTON

- ADD: Vesterbrogade 20, 1620 Copenhagen V
- TEL: (45) 3331 8136
- * 시내에 있으며 코펜하겐에서 중국요리를 가장 잘 한다고 알려진 음식점.

□ ROYAL GARDEN

- ADD: DRONNINGENS TVAERGADE 30
- TEL: (45) 3315 1607
- * 시내에 있으며 다른 음식보다는 비교적 덩섬 요리를 잘하는 식당임.

□ DONG YUAN

- ADD: Holbergsgade 17, 1057 Copenhagen K.
- TEL : (45)3332 8388
- * 값이 비교적 저렴하여 단체 관광객이 자주 이용.

□ FLOATING RESTAURANT SEA PALACE

- ADD: HAVNEGADE KAJPLADS 139
- TEL: (45) 3393 8889
- * 시내에 위치한 일반 중국식당임.

4) 식당: 일본식당

□ KYOTO

- ADD: SAS SCANDINAVIA HOTEL, AMAGER BLVD 70
- TEL: (45) 3332 1674
- * Radisson SAS Scandinavia Hotel내에 소재한 일식당으로 음식은 깨끗하나 비교적 가격이 비싼 편임.

□ Sticks'n Sushi

- ADD: Nansensgade 59, Copenhagen K
- TEL: (45) 3311 1407
- * 몇 곳의 체인점을 가지고 있으며 스시와 꼬치 요리를 잘함.

5) 식당: 덴마크식당

대부분의 덴마크 식당은 음식 메뉴가 양식당과 큰 차이가 없으나 덴마크 전통 음식인 스모레브뢰(Smørrebrød)라고 하는 호밀 빵 위에 육류, 어류, 달걀 이나 치즈 등을 넣은 오픈 샌드위치를 맛볼 수 있음.

□ LA-KAJEN

- ADD: Sundkrogskaj 17, 2100 Copenhagen
- TEL: (45) 3920 3022

□ KANAL CAFEEN

- ADD: Frederiksholms Kanal 18, Copenhagen K
- TEL: (45) 3311 5770

□ Kongens Kælder

- ADD: Gothersgade 87, Copenhagen K
- TEL: (45)3312 8719

6) 식당: 기타 양식당

□ Albert K at The Royal (고급 이탈리아 식당)

- ADD: Hammerichsgade 1, 20 th floor, København V
- TEL: (45) 3342 6161

□ Kong Hans Kælder (고급 프랑스 식당)

- ADD: Vingårdsstræde 6, København K
- TEL: (45) 3311 6868

3) 대표 먹을거리

덴마크는 축산 낙농업이 발달하여 치즈나 버터 등의 유제품과 돼지고기, 소고기 등의 육류 요리가 발달하였으며 수산물로는 연어와 청어를 즐겨 먹는다.

덴마크의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스뮌레브뢰(Smørrebrød)가 있는데 이는 호밀빵 위에 육류, 어류, 달걀 이나 치즈 등을 넣은 오픈 샌드위치로 흔히 맥주나 알코올 도수가 높은 스냅스(Snaps)가 곁들여진다.

Flæskesteg는 오븐에 구운 돼지고기 요리로 고기와 함께 붙어 나오는 바삭 바삭한 돼지 껍질을 먹는 것이 별미이며, 감자와 함께 먹는 덴마크 식 미트볼 요리인 Frikadeller과 폭참 요리인 Koteletter 등도 덴마크인들이 주식으로 많이 먹는 요리들이다.

디저트로 커피와 함께 먹는 데니쉬 페스트리도 유명한데 버터를 겹겹이 발라 반죽을 하고 필링과 토핑을 곁들인 이 빵은 1840년경 비엔나에서 전해졌다고 하여 비너브로트 (Wienerbrød, 비엔나 빵) 이라고 불린다.

아. 관공서 관행

관공서 공무원들은 매우 친절하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신하나 처리기간이 다소 오래 걸릴 수 있다. 뇌물수수나 급행료 징수 등의 불법행위는 일체 없다. 주요 기관이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지수에서 덴마크는 항상 최상위권에 속한다.

관공서와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 우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전화, 팩스, E-mail을 통한 문의회신 및 업무처리도 매우 친절하게 이루어진다. 업무를 추진하는데 직접 방문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서로간의 시간절약을 위해 가급적 직접면담은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최근의 관공서 경향을 보면 먼저 전화나 E-MAIL 등으로 연락을 하고 면담 시에는 반드시 RECEPTION에서 안내를 받아 면담이 이루어진다.

자. 공휴일

2008년 공휴일

공휴일	공휴일명	영문
1 월 1 일(일)	신년	New Year's Day
3 월 20 일(목)~24 일(월)	부활절	Easter Holiday
4 월 18 일(금)	대기도일	Great Prayers Day
5 월 1 일(목)	승천일	Ascension
5 월 11 일(일)~12 일(월)	성령강림절	Whit Sunday
6 월 5 일(화)	헌법제정일(반휴일),	Constitution Day,
12 월 24 일(수)~26 일(금)	크리스마스	Christmas day & Boxing day
12 월 31 일(수)	신년 이브	New Year's Eve

□ 출장 시 업체 상담이 어려운 기간

4월 부활절 기간, 7월 둘째 주~8월 말까지는 Industrial Holiday로 업체 및 공공기관 근로자의 대부분이 휴가에 들어가며, 동 기간 전후 1주일을 포함한 기간 중 담당자 부재로 비즈니스 상담이 어렵다.

동계기간 중에는 12월 중 크리스마스 이전인 12월 20일부터 신년까지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휴무에 들어간다. 하계 휴가기간과 동계 크리스마스 휴가기간 중에는 비즈니스 출장을 삼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 여행시 유의사항

1) 여행준비

덴마크는 북위 55도 선상에 위치한 북극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겨울에는 멕시코만 난류의 영향으로 비교적 온화한 편이나 연중 바람이 많고 특히 겨울에는 기후변화가 매우 심하다. 따라서 10월부터 4월까지의 기간에 덴마크를 방문할 경우에는 날씨가 우리나라 초겨울 이상의 기후임을 감안하여 두꺼운 옷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능하면 방수가 가능한 자켓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6월-8월 말까지는 낮 최고기온이 20℃를 넘는 매우 좋은 날씨가 지속되면서도 한국의 여름처럼 무덥지가 않아, 여행하기에 매우 좋은 편이다. 2월에는 평균 영하 0.1℃, 7월에는 평균 16.4℃이며 연평균 강우량은 664mm 정도이다.

□ 비에 대한 대비

비가 오는 날은 연간 약 160일 정도로 매우 많은 편이며, 특히 9월 이후의 가을 및 겨울, 3~4월까지의 기간 중 집중되므로, 동 기간에 덴마크 여행 시 필히 소형 우산, 또는 우비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여행여건

□ 치안

최근 들어 외국 난민 및 동유럽 인구의 유입 증가, 마약 복용자 증가 등으로 가끔 도난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치안 상태는 매우 좋은 편이며, 집단 범죄, 흉악 범죄 등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야간 외출 등도 무방하다.

최근 동유럽 인력의 유입에 따라 소매치기가 많다. 특히 공항에서 동전 떨어진 것을 집으려다 또는 잠깐 한눈은 파는 사이에 가방을 소매치기 당하는 등 소지품 분실 사례가 빈번하며, 코펜하겐 중심부에 소재한 중앙역에서 소매치기를 당한다든가, 호텔 Check-in할 때 소매치기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택시

시내 어느 곳에서나 택시를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주소를 제시하면 모든 곳을 다 찾아갈 수 있다. 거리에서 택시를 직접 부를 수도 있고 사무실, 호텔 등에서 전화로 부를 수도 있다. (코펜하겐 시내 택시 전화: 3535 3535, 7025 2525) 택시요금은 신용카드로도 지불 가능하다.

□ 응급

여행시 급한 발병으로 병원에 입원할 수 있으며(전화 112를 호출 앰블런스-FALCK 서비스 가능) 입원비는 위급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지방정부에서 부담하며, 그 이후부터는 입원자가 부담해야 한다.

아주 일반적인 의약품은 제외하고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살수 없기 때문에 감기, 해열제, 진통제, 소화제 등 비상약품은 여행 시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자주 걸리기 쉬운 감기(influenza)의 경우, 별도의 감기약을 처방하지 않고 휴식 등 자연 치유를 권하는 점이 특색이다.

□ 팁 관행

시내에서 택시를 이용하거나 호텔에서 포터가 짐을 옮겨 줄 경우 반드시 별도의 팁을 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상황을 고려하여 감사 표시로 약간의 팁을 고려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1~2 달러 정도)

음식점에서는 서비스 요금이 이미 청구서에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별도의 팁을 주지 않는 것이 관행이나 특별한 감사표시를 하고 싶을 경우 음식대금의 10% 이하의 팁을 주어도 무방하다. (과도한 팁은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 식수

덴마크인들은 자국의 환경에 대한 신뢰가 깊은 관계로 일반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카. 유용한 연락처

구분	기관명 및 연락처
현지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nske Bank - Tel: (+45) 3344 0000 Fax: (+45)7012 1080 - Add: Holmens Kanal 2-12, 1092 Copenhagen 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rdea - Tel: (+45) 3333 3333 Fax: (+45)3250 2382 - Add: Christiansbro Strandgade 3, 0900 Copenhagen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G Bank A/S - Tel: (+45) 7011 9959 Fax: (+45)3914 4899 - Add: Nørre Voldgade 68, 1390 Copenhagen 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yske Bank - Tel: (+45) 3378 7878 Fax: (+45)3378 7575 - Add: Vesterbrogade 9, 1780 Copenhagen V
현지경제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공회의소 (HTS; THE DANISH CHAMBER OF COMMERCE) - ADD: BOERSEN, DK-1217, KBH K - TEL: (45) 70 13 12 00 - FAX: (45) 70 13 12 91 - WEB: www.htsi.dk - 기능: 상공인들의 이익도모 및 대변 ○ 전국경제인협회(THE CONFEDERATION OF DANISH INDUSTRIES) - ADD: H.C. ANDERSENS BOULEVARD 18, DK-1790 KBH V - TEL: (45) 9712 6000 - FAX: (45) 9722 3060 - 기능: 덴마크 내 제조업체의 이익대변 및 수출진흥활동 ○ Danish Slaughter House Association(Danske Slaugterier; 덴마크 도축협회) - Add: Axeltorv 3, DK-1609 Copenhagen V. - Tel: (+45)3311 6050 - Fax: (+45)3311 6814 - WEB: www.di.dk - 기능: 덴마크 Slaughter House의 각종 이익대변 ○ Denmark Ship Owners Association - Add: Amaliegade 33, DK-1256 Copenhagen K. - Tel: (+45)3311 4088 - Fax: (+45)3311 6210 - 기능: 덴마크 내 선주들의 이익대변 ○ Danish Fur Producer Association - Add: Langagervej 60, DK-2600 Glostrup - Tel: (+45)4326 1000 - Fax: (+45)4326 1126 - 기능: Fur 제조업체들의 이익대변
대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 ADD: SVANEMOELLEVEJ 104, 2900 HELLERUP - TEL: (+45) 3946 0400 - FAX: (+45) 3946 0422 - 영사과 전화: (+45) 3946 0405
KOT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REA TRADE CENTER, COPENHAGEN - ADD: HOLBERGSGADE 14, 1057 COPENHAGEN K - TEL: (45) 3312 6658 - FAX: (45) 3332 6654 - 관장: 정보영
한인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l: (+45) 3331-6070 - Fax: (+45) 3331-5750 - 핸드폰: (+45) 4096-5070 - E-mail: dankore@get2net.dk - 성명: 이존택

타. 기타 유용한 정보

1) 물가

덴마크의 물가는 매우 비싼 편이다. 여행객들이 체감하는 물가 수준은 한국과 비교할 경우 2-4배 이상 비싼 편이다. 이는 모든 물건 가격에 부가세가 25%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덴마크가 고소득 국가인 관계로 전체적인 물가수준이 우리나라와 비교할 경우 매우 높다. 예를 들면 담배 값은 우리나라의 3배, 맥도날드 햄버거 가격은 2-3배 정도 비싸다.

2) 쇼핑장소 및 특산품

코펜하겐에서 제일 유명한 쇼핑장소는 콘겐스뉴토르(Kongens Nytorv)광장과 시청 사이에 위치한 Walking street로 이곳에는 Magasin 백화점, Illum 백화점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Porcelain 제품으로 유명한 Royal Copenhagen, 은 제품으로 유명한 George Jensen(게오르크 예센), 사가 링크, 호박(Amber), 덴마크 고급신발인 ECCO등을 판매하는 유명 상점이 밀집해 있다.

3) 주요 쇼핑 센터 및 상점

쇼핑 센터 및 상점	주소 및 전화번호	비고
Magasin du Nord	Kgs. Nytorv 13, København K +45 33 11 44 33	고급 백화점, 디자인 패션, 브랜드 의류, 구두, 속옷, 가방, 보석, 시계, 모자, 스포츠, 여가
Dansk Møbel Kunst	Bredgade 32, København K +45 33 32 38 37	덴마크 디자인 가구
Dyrberg/Kern	Niels Hemmingsens Gade 4, København K +45 33 93 73 77	덴마크 디자인 보석, 시계, 의류
Ecco	Østergade 55, København K +45 33 12 35 11	덴마크 디자인 구두, 신발, 어린이 신발, 의류, 패션
GAD - Strøget	Vimmelskaftet 32, København K +45 33 15 05 58	도서, 문구, 음악, 비디오
Georg Jensen	Amagertorv 4, København K +45 33 11 40 80	덴마크 조지 앤슨 디자인 보석, 시계
Illums Bolighus	Amagertorv 10, København K +45 33 14 19 41	고급 덴마크와 유럽 디자인가구, 램프, 유리디자인, 부엌기구, 수제품
Illum	Østergade 52, København K +45 33 14 40 02	고급 백화점, 디자인 패션, 브랜드 의류, 구두, 속옷, 가방, 보석, 시계, 모자, 스포츠, 여가
Br Legetøj, Strøget	Frederiksberggade11, København K +45 33 13 74 70	덴마크 체인 상점 장난감, 게임
Dansk Håndværk	Kompagnistræde 20, København K +45 33 11 45 52	덴마크 전형적인 수제품 상점

파. 관광명소

1) 코펜하겐

인구 140만(인근의 코펜하겐 위성도시 거주인구 포함)의 북구 최대의 도시이며 코펜하겐의 어원은 덴마크어로 상업항구(Commercial harbour)라는 뜻으로 중세 이후 북구 최대의 상업 중심지이다.

1167년 ABSALON 대주교에 의해 건설되어 Christian 4세 때(1588-1648)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으며 17세기 스웨덴의 침공, 18세기 흑사병, 두 번의 대 화재를 겪었으며 19세기 나폴레옹 전쟁 시 영국군에 의한 두 차례의 공격, 제2차 세계대전시 독일군의 점령 등 수난을 겪으면서도 운하, 인공호수 등 옛모습을 간직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아말리엔보 왕궁: Amaliaenborg Palace

크리스천보 궁의 화재로 1794년 이래 왕궁으로 사용되고 있다. Frederiks 5세 기마상을 중심으로 4개의 로코코양식 대저택이 위치하며 Frederik 3세의 왕비 Sophie Amalie의 이름을 따서 지은 궁전으로 여왕 재궁 시 국기가 게양되며 정오에 근위병 교대식이 진행되어 관광객들에 인기를 끌고 있다. 그리고 왕궁 근처 바닷가에는 벨기에 조경 건축가 Jean Delogne가 설계한 Amaliehavn 정원이 있다.

□ 크리스천보 궁: Christiansborg Palace

국회의사당, 대법원, 여왕 접견실이 있으며 우측에는 1640년경 세워진 증권거래소 건물(현재는 상공회의소)이 있다. 왕궁은 코펜하겐의 건설자인 Absalon 주교가 건설한 성터 위에 세워져 있다. 현재의 궁은 1906-1907년에 재건립되었으며 원래 건물은 두 차례(1794,1884) 화재로 전소된 바 있다.

- 개방시간 (안내관광만 허용)
 - 국회의사당 (일): 10:00 - 11:00
 - 왕실접견실 (목, 일): 11:00, 15:00

□ 로젠보성: Rosenborg Palace

Christian 4세에 의해 건설(1606-1617)된 왕궁으로 이곳에서의 볼거리는 성 지하에 있는 왕가 보물이다. 이곳에는 왕관 등 각종 왕실 귀중품들이 보관되어 있는데 현재 여왕도 행사 때 이곳에서 왕관 등을 빌려서 사용한다고 한다.

- 개방시간: 10:00 - 14:00 (화, 금, 일)

□ 인어상: The Little Mermaid

안데르센 동화의 비극적인 인어공주를 테마로 1913년 덴마크의 Edvard Eriksen(1876-1959)이 조각한 동상으로 덴마크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알려져 있다. 관광객의 많은 시선을 한몸에 받아왔으나 2003년 9월 테러범의 소행으로 보이는 폭발에 의해 완파된 후 다시 복원되는 등 수난을 겪어왔다.

유의할 사항으로는 가끔 사진촬영을 위해 인어 동상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바위가 미끄러워 넘어져 골절상을 입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게피온 분수: Gefion Fountain

북구여신 게피온이 네 아들을 황소로 만들어 스웨덴으로부터 Zealand섬을 끌고 왔다는 신화에 따라 세운 분수로 코펜하겐의 유래가 있는 관광명소이다. 실제로 스웨덴에 있는 Vanern호의 자국이 Zealand 섬과 비슷하다.

□ 티볼리: Tivoli 공원

1843년 건설된 Tivoli 공원은 미국 디즈니랜드의 원형이 되는 것으로 유명하다. 26개의 식당, 연주회장, 각종 위락시설이 소재하고 있으며 특히 야경이 멋진 것으로 유명하다. (4월 말부터 9월 중순 및 12월 크리스마스 전후에만 개방)

□ 그룬트비 교회: Grundvig 교회

고등공민학교의 창립자인 그룬트비 목사를 기념하여 1921-40년에 거국적으로 건립한 교회로 20세기 초 덴마크의 대표적 건축이라고 할 수 있다. 600만 개의 벽돌을 사용하였으며 파이프오르간이 특히 유명하다.

- 개방 시간: 09:00 - 16:00 (월-토), 12:00 - 13:00 (일)

2) 질랜드 섬

코펜하겐시가 위치한 섬으로 헬싱거(Helsingor), 로스킬드(Roskilde), 힐러뢰드(Hilleroed) 등 주요 도시가 있다.

□ 크론보 성: Kronborg Slot

프레데릭 2세의 명령에 따라 1574-85년에 축조된 일종의 해군 요새로 헬싱거에 위치 (코펜하겐 북쪽 45km 에 위치)하고 있으며 크론보성은 북해와 발틱해를 연결하는 해협의 가장 좁은 길목에 위치하여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통행세를 징수하던 곳으로 셰익스피어 작품인 "햄릿"의 배경이 된 곳으로 유명하기도 하다.

- 개방시간: 10:00 - 15:00 (화-일)

□ 프레데릭스보 성: Frederiksborg Slot

1602-1620년 Christian 4세에 의해 건설된 북구에서 가장 훌륭한 르네상스시대의 성으로 힐러뢰드(Hilleroed)에 위치 (코펜하겐 북쪽 36km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는 덴마크 국립 역사 박물관으로 Christian 1세 이후 왕가일족의 초상화, 가구, 예술품 등이 소장되어 있다.

- 개방시간: 10:00-15:00 (월-일)

□ 프레텐스보 왕궁: **Frendensborg Palace**

1719-22년 건립된 바로크양식 왕궁으로 왕실의 하계별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코펜하겐 북서쪽 40km에 위치하고 있다. (공원은 상시 개방이나 왕궁은 7월만 개방)

3) 로스킬드(Roskilde)

덴마크의 가장 오래된 도시 중의 하나로 옛날 바이킹의 근거지로 유명하다. 코펜하겐 서쪽 3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 바이킹 박물관: **Viking Ship Museum**

수심이 깊지 않은 로스킬드 만에 가라 앉은 바이킹 배 5척을 1962년 인양하여 전시한 박물관이다.

- 개방시간: 10:00 - 16:00 (월-일)

□ 로스킬드 성당: **Roskilde Domkirke**

1000년경에 지은 목조건물을 토대로 12세기 압살론 주교가 건립한 성당으로 38명의 덴마크 왕 및 왕비의 무덤이 있다.

4) 유트랜드반도

독일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덴마크 본토로 7,448km²에 24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 **Lego Land**

인어상과 함께 덴마크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조립식 완구로 유명한 Lego사에서 조성한 공원이다. 모든 놀이기구가 레고로 만들어져 있어 원색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으며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인기가 좋은 곳이다.

□ **Skagen**

유트랜드반도 최북단에 위치한 스카겐은 두 바다가 만나는 장소로 유명하다. 작은 어촌에 불과했던 스카겐은 18세기 중엽 이후 예술가들이 모여들면서 예술의 마을로 발전하였으며 현재는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지로 변모하였다. 두 해협이 파도가 만나는 아름다운 해변과 모래사장,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미술 작품들이 유명하다.